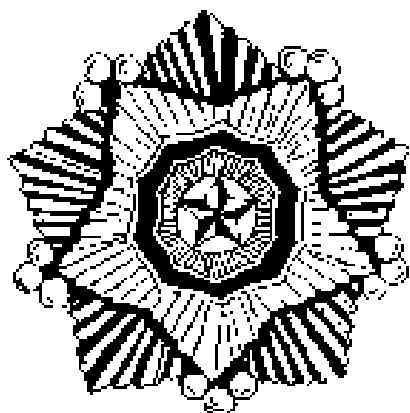




11

주체 89 (2000)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89(2000)년 제11호

(루계 제 637 호)

◆◆◆◆◆◆◆◆◆◆

차 례

◆◆◆◆◆◆◆◆◆◆

우리시대에 맞는 문학예술발전의 앞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	4
상봉	7
사랑과 의리의 서사시	8
불사조들이 돌아 왔다.....	9
영웅들이 안긴 위대한 품.....	10
명언해설	11
위대한 동지관에 대한 품위 있는 예술적형상.....	12
받으시라 이 꽃다발을.....	14
숭고한 정서, 열렬한 추억의 세계.....	15
나의 군복.....	18
장군님과 김철.....	19
위대한 령장의 행군로우에	22
명절날의 생각.....	23
양어장에 오신날	25
나는 철의 도시 행복한 녀인이예요.....	25

차번호 《만-하나》	26
내 심장과 더불어	35
높은 요구	36
전호가의 소나무	44
평양의 눈보라	45
우리 제철소	55
용광로의 숨결	56
용해공 그대의 뒤를 따라	56
먼 후날에도	56
용해공의 손	56
청춘은 가지 않았다	57
작가와 건망증에 대한 일화	67
인생은 언제 철이 드는가	70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외 1 편)	71
저의 인사를 받아주시시오	71
나무는 살아있다	72
옹고집전	73
내가 책임진다	80

우리시대에 맞는 문학예술발전의 앞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

신경균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더 가슴에 사무치기만 하는 아버지 수령님에 대한 한 없는 그리움속에 20세기의 마지막해를 보내며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게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첫 시기에 있어서 변천하는 천리마시대의 위대한 창조적생활을 형상화한 문학예술을 창조발전시키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섰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남이 열걸음 걸을때에는 백걸음을 걸으며 남이 십리를 달릴때에는 백리를 달리는 기세로 살며 투쟁하는 천리마의 정신은 이 시기 우리 인민의 생활신조로 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문학예술은 이러한 시대정신과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회주의건설자들의 생활감정과 지향을 뚜렷하게 형상화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태를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49(1960)년 11월 27일 고전적으로 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를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현실과 문학, 시대와 작가의 호상관계의 측면에서 천리마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사회주의 문학예술을 강화발전시켜 나가는데서 나서는 제반사상미학적문제들과 구체적인 과업들을 밝혀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응당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리고 있는 우리 인민의 이 위대한 창조적생활을 힘 있게 형상화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천리마시대 사람들의 보람찬 생활과 영웅적투쟁모습을 그려야 하며 그들의 희망과 념원을 뚜렷이 나타내야 할것입니다.》

문학예술은 해당 시대의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지향을 반영하며 그들에게 복무하여야 한다. 현실생활에 가까운것,인민들이 바라는 절실한 문제를 그릴수록 작품이 더욱 가치 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전적로작에서 이 시기 현실을 반영한 문학예술작품의 인식교양적기능과 우리 문학예술이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 서지 못하고 있는 실태, 현대성을 구현하기 위한 요구로

부터 제기되는 현실주제작품창작의 합법칙성을 천명하시면서 약동하는 천리마시대정신을 반영하며 천리마기수들의 보람찬 생활과 투쟁모습을 그린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한 제반 미학적천적문제들에 대하여 독창적으로 밝혀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무엇보다 먼저 천리마시대의 반영과 천리마기수의 전형창조에서 나서는 중요한 사상미학적요구에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선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작품을 만드는데서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을 잘 반영하며 사람들에게 끝없이 넓은 앞길을 열어 주는 사회제도의 우월성을 생동하게 보여 줄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

새것이 승리하고 낡은것이 멸망하는것은 생활과 투쟁의 법칙이며 진리이다.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을 잘 반영해야 한다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에 맞게 작품의 인물관계와 갈등을 생활의 법칙, 투쟁의 진리에 맞게 옳게 설정하고 의의 있는 문제성을 해명함으로써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예술적으로 생동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작품에는 생산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상이 강조되어야 하며 위대한 생활은 어떤 한두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자각한 수백만 근로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주체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것은 창작에서 생산기술적문제에 치우치지 말고 주체적관점에서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인간생활도 공산주의인간학의 근본원리에 맞게 창조할데 대한 심오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천리마기수의 성격적 특질을 옳게 그리며 전형화할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품의 주인공은 패활하고 락천적이며 난관앞에 굴할줄 모르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전형적인 인간으로 그릴데 대하여 그리고 지난날 천대 받고 압박 받던 사람이 끊임 없는 노력과 수양으로, 헌신적로동의 시련을 거쳐 마침내 성공하고야 마는 그런 생활과정을 잘 그려야 한다는것을 밝혀 주시면서

천리마 기수들을 형상한 작품을 많이 만들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다음으로 문학예술의 사상성을 높이며 시대적 미감을 구현할데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영화의 사상적내용이 빈약한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우리는련애를 위한련애를 그려서는 안되며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목표를 향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새형의 청년남녀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모범으로 내세워야 한다는것 그리고 사상적내용문제는 영화문학작가들이 해결해야 한다는것을 가르쳐 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질풍같이 내달리고 있는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에 따라 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음악의 실태를 분석하시고 노래는 반드시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지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창조적 로동으로 불러 일으키는 즐겁고도 씩씩한 노래, 《천리마행진곡》, 《강 건너 마을에서 새 노래 들려 온다》와 같이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사람들의정서에도 맞는 노래를 조선맛이나고 들으면 용기도 나고 새맛이 나게 지어야 한다는것을 밝혀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노래에서도 중요한것은 사상적내용이다, 노래를 위한 노래는 아무 소용도 없으며 그저 자연만 찬미하는 노래도 별로 가치가 없다, 인민들은 사상성이 높은 노래를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인민이 받아 들이고 인민이 사랑하며 즐겨 부르는 쓸모 있는 노래를 많이 창작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할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다음으로 천리마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학예술부문 사업에서 첫째로, 작가,예술인들이 아직 당정책을 깊이 체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로, 그들이 인민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 가지 못하며 셋째로, 이 부문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이 잘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결함들을 지적하시고 문학예술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명확히 밝혀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여기에서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공장과 농촌에 내려가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의 불길속에 용감하게 뛰여 들어 현실생활을 직접 연구체험해야 한다는것 그리고 사람들을 교양개조할데 대한 우리 당의 공산주의적교양방침을 구현하여 각계각층의 군중을 교양개조해 나가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생활을 잘 그려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시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예총을 다시 내용으로써 당의 령도밑에 작가, 예술인들이 집체적으로 사업하도록 할데 대하여, 작품합평회를 많이 조직하며 문학예술을 군중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밝혀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은 우리 문학예술이 전진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시대발전을 추동하는 선도적위치에서 전투적사명을 다하며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에 발을 붙이고 당이 의도하고 현실이 바라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을 창조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으로 된다.

이것은 천리마시기뿐만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문학예술발전의 위력한 사상리론적지침으로 된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이 가지는 거대한 력사적의의가 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고전적로작은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예술을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세계최고봉의 혁명적문학예술로 이끌어 올리게 한 강령적지침이며 우리의 모든 작가, 예술인들이 당사상사업의 전초병으로서의 모든 작가, 예술인들이 당사상사업의 전초병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충성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한 주체문학예술건설의 백과전서적대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전적로작에서 밝혀 주신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은 수령님의 뜻을 심장에 받아 안은 우리 작가들이 무엇보다도 현실주체작품창작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사회주의체도의 우월성을 확인하며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활발히 창작한 빛나는 성과와 함께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천리마기수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를 생동하게 형상한 가사 《선구자의 노래》(리호일), 《우리는 천리마 타고 달린다》(박세영), 시 《하늘의 별들이 다 아는 처녀》(정서촌),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오영재), 단편소설 《<해주-하성>서 온 편지》(김병훈), 《백일홍》(권정웅), 희곡 《붉은 선동원》(조백령), 경희극 《산울림》(리동춘), 영화문학 《<갈매기>호 청년들》(한상운)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와 양상의 작품들이 이채를 띠고 본격적으로 창작되었으며 그것은 이전시기에 비해 질량적으로 비약적인 발전면모를 보여 주었다.

이 시기 작품들에는 사회주의전면적건설을 위한 투쟁과 우리 근로자들의 창조적힘과 영웅적위훈에 의해 새롭게 전변되는 약동하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었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질풍같이 내달리는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투쟁기풍과 정신도덕적풍모가 진실하게 그려져 있으며 생기발랄하고 열정적인 천리마기수들

의 성격도 인상 깊게 형상화되어 있다.

우리 작가들은 그 이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그 구현인당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 가 새로운 인간전형과 의의 있는 인간문제를 형상한 훌륭한 작품들을 계속 왕성하게 창작하였다.

그리하여 70, 80, 90년대에 걸쳐 시 《어머니》, 《나의 조국》, 《행복한 인민의 나라여》, 가사 《내나라 제일로 좋아》, 《너를 보며 생각하네》 《높이 들자 붉은기》, 《우리는 명세한다》... 장편소설 《평양시간》, 《생명수》, 《뜨거운 심장》, 《철의 신념》, 《환희》, 《청춘송가》, 《열망》, 《지금은 봄이다》를 비롯한 중편, 단편소설들, 영화문학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 1~11부), 《즐기는 뿌리에서 자란다》 등 수많은 성과작들이 창작되게 되었다.

실로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문예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 주며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리론적업적의 위대성에 대해 다시금 긍지높이 돌이켜 보게 한다.

휘황찬란할 새 세기를 눈앞에 바라보는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장엄한 대행진이 힘있게 벌어 지고 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를 쏘올렸고 세계를 경탄시킨 민족의 장한 딸 정성옥영웅을 비롯한 시대의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천리마대진군의 전통을 이어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 제기기 위한 구보행군을 힘 있게 다그치고 있다.

위대한 시대적현실은 시대를 반영한 문학예술 작품들을 창조할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아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제2의 천리마대진군속에서 배출되는 총폭탄용사들과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 공산주의미풍신구자들은 우리 시대 주체문학예술의 긍정적 주인공-주체형의 인간전형이며 형상원천으로 된다.

오늘 우리 시대가 낳은 주체형의 인간전형들의 사상정신적특질에서 기본은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에 기초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

당과 수령의 명령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아무리 어려운 파업도 자체의 힘으로 무조건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자기 희생정신과 영웅적투쟁정신, 혁명적동지애와 락관주의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이것은 우리 문학예술의 긍정적주인공들의 성격적핵을 이룬다.

오늘 현실주체작품창작에서 시대를 대표하는

이러한 주체형의 새로운 인간전형을 찾아 내고 그들이 지닌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모를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사상미학적요구에 맞게 형상하는 것은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나선다.

현실주체작품창작에서 보다 새로운 혁신적양상을 일으키기 위하여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교시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로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시대가 요구하는 특색있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오늘 창작실천은 우리 작가들이 사색과 탐구, 형상적초점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 감정에 맞추고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의 위대성과 필승불패의 힘을 확증하고 자랑 펼치는데 철저히 지향시킬때 가사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서사시 《조국이며 청년들을 자랑하라》와 같이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총진군운동을 진실하게 형상한 성과작들이 나온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작가들은 무엇보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깊이 체득하고 장군님의 선군정치아래 사상, 총대, 과학중시로선을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우리 인민의 보람찬 생활을 형상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충성의 열정과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 당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로서의 우리 작가들의 혁명적본분과 의무, 보람과 행복이 있다.

또한 우리 작가들은 창작실천에서 실력전을 힘있게 벌리며 작품의 사상예술적질을 높이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야 한다. 높은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은 작가의 생명이며 무기이다.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이 높지 못하면 아무리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간다 해도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는 명작들을 창작할수 없으며 당의 높은 신임에 보답할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 주신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 그 구현인 우리 당정책을 깊이 연구 체득하며 창작적자질을 부단히 높여 작품 하나를 내놓아도 자기 개성이 뚜렷하고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한 걸작을 써냄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40년전에 밝혀주신 천리마 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발전시킬때 대한 가르치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작가들이 명실공히 심장깊이 간직하고 항구적으로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할 귀중한 유훈교시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교시와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옹호관철하며 경애하는 장군님의령도를 따라 주체문학예술의 혁명적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는것은 자랑스런 20세기를 빛나게 장식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영예로운 임무이다.

우리는 새로운 21세기에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교시와 당의 방침을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강성대국의 룡성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보람찬 투쟁과 높은 정신세계를 형상한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 있게 추동하며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끝없이 빛내어 나가야 할것이다.

상봉

김정곤

기여서도 오고
누워 서도 오고
꿈속에서도 그대들이
오고온 길입니다

비가 와도 오고
눈이 와도 오고
사시절을 쉬임없이
오고 또 온 길입니다

쇠살창이 그어 준 주름고랑 깊어 갈수록
분여지의 말뚝 박던 소리
못 견디게 가슴을 잡아 흔들어
당원증을 품고 오던 그 저녁의 밤별이
가슴에 박혀 총총 빛 뿌리고 있어

수령님 주신 밝은 이 세상
이 세상 하나밖엔 더 원치를 앓아
백골이 한줄 흙이 되어서도
이 땅에만 있고 싶어

칼끝에 서서도 온 길입니다
불판을 밟으면서도 온 길입니다
다리뼈가 부서 지면
무릎을 끝면서 온 길입니다

전향이란 종이장들을
죽음뒤에 췌뿌리며
고문대에 매달리면서도 오고
지옥바닥에 쓰러지면서도 오고

순간도 이 걸음 마음에서 놓으면
변절의 함정이 그 한생을 물어 삼키고
순간도 그 마음 흐트리면

머리칼 한오리에도 치욕이 묻어...

절개를 세우고 온 길
육신으로 먼지도 무거워
신념이 육신을 끌고 온 길
한치한치...
살아서 못 오면 저 세상 가서라도 오자던 길

아, 장군님 보내주신 사랑의 해줄기
꿈 같기도 마주와
생시로 열린 이 길로
꿈인듯 훨훨 날아 왔으니

상봉입니다!
9월의 이날이 팔 벌려 안는 상봉!

한생을 떼여 주고 찾은 빛파의 상봉입니다
피가 말라 눈물이 말라
채만 남은 가슴들이
눈물의 바다 삶의 바다와의 상봉입니다

량심 끝머리에 한점 티가 앓아도
마주 대할수 없는
아 아-
전사와 태양의 상봉!

준엄한 혁명의 길을 걷는 전사
수령의 품으로 어떻게 돌아 와야 하는가를
반세기를 쌓은 신념의 성상우에
하얗게 앓은 그대들 백발이
주름고랑 타고 줄줄 내리는 그 눈물이
다 말해 주는 상봉입니다!

(주체 89. 8. 31)

사랑과 의리의 서사시

은 나라 전체 인민의 심장을 감격과 걱정의 파도로 설레이게 하고 세계를 놀래운 격동적인 사변-비전향장기수들의 승환.

한두명도 아니고 63명이라는 비전향장기수들, 통일애국투사들의 대집단이 사회주의조국으로 돌아 왔다.

수십년 세월 모진 옥고를 치르면서도 자기의 사상과 신념, 지조를 지켜 낸-민족의 장한 아들, 신념의 승리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넓고도 따사로운 품, 태양의 품에 안긴것이다. .

이것은 동지들과 인민들을 이 세상 제일로 끝없이 믿고 아끼고 사랑하시는 사랑과 사랑과 의리의 최고화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이 결심하시고 실현하실수 있는 세계적사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의 필승의 신념이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수령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다.》

비전향장기수들이 민족의 장한 아들, 자랑스러운 영웅이 되어 조국의 품으로 돌아 오게 된 기적을 두고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사랑의 세계, 고결한 의리의 세계에 대하여 생각한다.

친혈육들마저도 살아서 만나기를 단념해 버린 지 오래였고 세월의 흐름속에서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던 비전향장기수들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은 어느 한시도 그들을 잊으신적 없으시였거니.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청춘을 바치고 한생을 곳곳이 바쳐 가고있는 비전향장기수들 모두를 데려다 금방석에 앉히고 싶으신것이 우리 장군님의 심정이시였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 일군에게 왜서 그들을 데려 와야 하는가, 당을 믿고 수령을 믿고 한생을 바쳐 온 사람들,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그들에게 흘러 간 청춘을 되찾아 주고 누리지 못한 한생의 락을 다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세월은 흘러 가고 산천은 변해도 영원한것이 바로 전사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이고 믿음이며 의리이다.

비전향장기수들은 비록 분계선너머 멀리에 있었어도 우리 장군님의 마음은 언제나 전사들과 함께 계시였다.

설날이 오면 철창속에서 또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그들을 생각하시며 저 멀리 남녘하늘을 바라보시며 《동지애의 노래》를 조용히 부르

시던 경애하는 장군님.

명절날 색 다른 음식이 생겨도 차창밖으로 흘러 가는 행복 넘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여도 비전향장기수들이 겪고 있을 모진 옥중고초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 아파 하시고 굶이굶이 험한 전선길을 달리는 야전승용차안에서도 고통받는 혁명전사들에 대한 생각으로 순간의 쪽잠마저 잊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비전향장기수 김인서로인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는 보고를 받으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귀중한 고가약들을 보내주시여 그가 다시 대지를 밟고 일 어설수 있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혁명전사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의리는 이렇듯 불처럼 뜨겁고 무한하여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있어서 우리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은 그들이 자기의 사상과 신념을 한생토록 곳곳이 지켜올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였고 다 시든 고목에도 꽃을 피워 주는 불사약이였다.

진정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동지애의 크나큰 힘으로 혁명의 진로를 열어 나가시고 천하를 얻으시며 자신의 한생을 동지들을 위해 바쳐 가시는 절세의 위인, 동지애의 위대한 화신 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민족의 장한 아들,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비전향장기수들 모두를 데려 오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방도와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여러 사회단체들로 《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구원대책 조선위원회》를 내오도록 하시고 국내외적으로 강력한 송환투쟁을 벌리어 그것이 전민족적인 투쟁으로, 국제적인 인도주의적문제로 확대발전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지난 6월 민족분렬 55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 진 력사적인 평양상봉에서 이 문제를 상정시키시고 북남공동선언에 비전향장기수문제해결조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주시였다.

하여 지난 9월 2일 신념과 의지의 승리자들·63명 비전향장기수들의 장쾌한 개선행렬이 온 민족의 열광적인 환호와 축복의 열풍속에 꿈결에도 안기고 싶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랑의 품,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였다.

먼 후날에도 력사가 20세기의 대기적으로 특기할 이 사변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혁명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고결한 의리가 안아 온 민족의 대경사, 사랑과 의리의 서사시이다.

그렇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계시여 사상의

강자, 신념과 의지의 승리자들이 있고 통일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아래 영원히 무궁번영할 통일조국, 주체의 강성대국의 휘황한 미래를 신심과 확신에 넘쳐 바

라보며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본사기자

불사조들이 돌아 왔다.

정성환

꿈만 같구나
살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서 오고
울수 있는 길을 왔다면
내 이렇게 가슴 뜨거우랴

왔구나
죽어 났이라도 오리라던 이 땅에
났이라도 돌아와
나무 한그루 돌 하나도
눈물속에 부둥켜 안아 보고 싶던 조국에

비전향장기수!
입이 다 얼어 붙던 옥중의 무서운 고목과
뼈를 에이는 철쇄의 아츠러운 소리...
얼마나 모진 괴로움과 아픔이
그 말속에 있는지
내 다는 모른다

눈앞에 내대는 전향서를
하루에도 그 몇번 침묵으로 불 태워 버렸더냐
그때문에 하루에도 그 몇번
쇠사슬에 거꾸로 매달려
살을 뜯기우고
불에 지저 지고
사지가 부서져야 했더냐

장장 반세기
순간순간을 미치지 않을수 없는
피의 그 결전장에서
자기를 지켜
조국을 지킨 당원혁명가

백절불굴의 인간들이여

신념으로 승리한 그대들이기에
조국으로 돌아 올 길이 있구나
신념이라는 불멸의 궁지탐을
백발의 머리위에 높이 추켜 들고

조국이여! 가슴 헤쳐
그대의 장한 아들들을 맞이했구나
누구나 가질수 있는 하늘조차
한쫓각도 가질수 없었던 그대들에게
하늘이여! 너의 금빛해살로
영웅들의 백발우에 금관을 얹으라

하루가 천년 같던 캄캄한 지옥에서
한생을 바쳐 내다본 미래가
바로 오늘이 아니더냐
그 모진 세월을 수의와 함께 던져버리고
장군님 주신 새 한생을 받는 오늘이다

꽃수레를 타고 왔는가
꽃바다를 헤치며 왔는가
김정일장군님 사랑의 품에서
만복의 삶을 시작하시라

아 수령의 전사는 얼마나 강한가를
인류력사에 보여준
인간기적의 군상
불사의 영웅들
민족의 장한 아들이 평양으로 돌아왔다!

(주체 89. 8. 31)

영웅들이 안긴 위대한 품

이 땅에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 근 반세기가 되어 온다.

전후에 태어나 아이로 불리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50을 바라보는 중년기를 넘어 섰다.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방금 끝난 지난 6월 어느 날이었다.

자나깨나 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때문에 마음 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날 참으로 가슴 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

북남공동선언에 비전향장기수송환문제를 중요한 조항으로 밝히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이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그들의 소원대로 모두 데려 와야 한다고, 데려다 지금껏 누려 보지 못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어야 한다고, 우리를 믿고 30년, 40년 지조를 지킨 그들을 우리가 돌봐 주지 않으면 누가 돌봐 주겠는가고, 그들이 오면 수십년간 것처럼 바라던 조선로동당원의 고귀한 정치적생명도 빛내주고 여생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자신께서도 마음이 좀 놓일것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뜻 깊은 말씀이 계신 그날로부터 며칠후였다.

어떻게 하면 비전향장기수들을 더 잘 위해 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계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제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데려 오는 문제가 확실해진것만큼 그들을 맞을 준비를 잘할데 대한 귀중한 말씀을 하시였다..

인간으로서 최악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30~40년동안 지조를 지킨다는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데 대하여, 전향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감옥살이고통을 면할수 있었지만 비전향장기수들은 그 어떤 유혹이나 강압에도 굴하지 않은데 대하여, 비전향장기수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데려 오는것은 지금까지의 력사에 있어 본적이 없는일이며 오직 우리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라는데 대하여...

그들을 맞을수 있는 준비를 미리전부터 완전무결하게 갖추어 놓고 계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날 비전향장기수들을 데려 오면 최상으로 우대해 주고 그들을 높이 내세우고 자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간에게 있어서,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중한것은 과연 무엇인가.

조선의 혁명가들이 시련에 찬 투쟁의 길을 헤쳐오면서 인간으로서, 혁명가로서 겪고 체험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 체험하는 과정에 혁명적신념을 지녀야 고귀한 인생길을 걸을수 있다는 진리를 력사에 새긴 성스러운 조선혁명.

항일혁명투사들의 이런 혁명적신념과 백절불굴의 의지를 본받아 목숨을 백번 더 위협 당하는 속에서도 절대로 신념을 저버리지 않은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이 바로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비전향장기수들이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인간으로서, 혁명가로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생을 누린 이들 모두에게 있어서 어머니조국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모든것을 송두리채 맡길 위대한 품이었으며 목숨을 잃을지언정 배반하지 말아야 할 위대한 신념과 의지의 기둥이었다.

세상에는 나라도 땅도 많지만 우리가 안긴 품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뿐이다!

이것이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들인 비전향장기수들 모두의 심장에 간직된 공동의 사상감정이였다.

사람은 한번 다진 신념, 한번 맺은 의리를 끝까지 지킬줄 알아야 한다.

혁명적신념과 의리를 지키면 충신이 되고 버리면 간신이 된다.

혁명적신념은 한번 택한 혁명의 길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가는 혁명가의 굳센 의지이며 어떤 바람이 불어도 변하지 않는 지조이며 혁명의 고결한 량심이다.

리인모동지가 심한 병환으로 생사기로운 있을 때에도 온 나라, 온 대륙에 리인모송환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주신분도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시다.

또한 리인모동지가 꿈에도 그러 보던 사랑하는 처자가 있는 평양으로 돌아 오던 날 온 평양시민들이 떨쳐 나서 그의 송환을 열광적으로 환호하게 해주신 분도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이시다.

리인모동지를 위하여 마음 쓰시고 사랑을 기울이시던 그 뜨거운 심장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늘 60여명의 사랑하는 전사모두가 인생의 귀중한 모든것을 다 바치며 그러 온 위대한 당의 품,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기게 하시였다.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첫 송환이 실현되던 그때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한생을 곳곳이 살아 온 비전향장기수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모두 데려 올 결심을 하고 있

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곧 공화국정부, 적십자 및 사회단체 책임일꾼들이 망라된 비전향장기수구원대책위원회를 조직할데 대한 현명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었다.

이런 위대한 결심과 의지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2000년 새해 벽두부터 비전향장기수송환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었다.

지난 1월 어느 날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남조선에 있는 그들모두를 빨리 송환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하여 혁명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투쟁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이처럼 끝까지 믿어 주고 품에 안아 준다는것, 통일을 위해서는 이런 지조를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는것을 내외에 시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어머니 조국의 품에 안기는 그들모두를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고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하고 웅심깊으신 사랑의 세계는 실로 무한대하다.

지난 6월 중순 어느 날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지켜 싸운 비전향장기수들을 데려 온 다음 그들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날로부터 3일후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

리는 이번에 비전향장기수들을 기어이 데려 오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은 지조를 지킨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 준다는것을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한다고, 우리가 이번에 비전향장기수들을 받으면 자신께서는 그들에게 생활조건을 비롯하여 줄수 있는 사랑을 다 주어 그들이 빼앗긴 청춘을 되찾고 여생을 행복하고 보람차게 보내도록 하려고 한다고 뜨거운 사랑의 감정으로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랑하시면 온 나라가 떨쳐 나서 열화 같은 사랑을 쏟는것이 우리 조선의 현실이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일터와 가정에서 오늘 조국의 품에 안긴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우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잘 위해주고 돌봐 줄것인가를 토의하며 환희에 넘쳐 있는것은 비전향장기수들 모두가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주체형의 참되고 고결한 혁명가들이기때문이다.

세상에서 신념과 의지가 제일 강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들을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특출히 사랑을 부어 주시기에 **김일성**동지의 품, **김정일**동지의 품에 기어이 안긴 비전향장기수들의 앞길엔 날에 날마다 행복과 영광, 환희만이 꼭 차넘칠것이다.

명언해설

《생활은 인간관계속에서만 깊이 있게 그릴수 있고 인간관계는 생활속에서만 두드러지게 보여 줄수 있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문학예술창작에서 생활을 깊이 있게 그리며 인간관계를 두드러지게 보여 주기 위해서는 생활과 인간관계를 통일적인 련관속에서 잘 그려야 한다는 뜻이 밝혀 져 있다.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은 인간과 생활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한다는데 있다. 생활과 인간관계는 서로 밀접히 련관되어 있다. 사람의 생활과정에 인간관계가 맺어 지며 인간관계가 발전

하는데 따라 생활도 변화발전한다. 인간관계를 떠난 생활이란 있을수 없으며 생활을 떠나서 인간관계를 생각할수 없다. 사람들의 생활은 인간관계속에서 벌어 지며 인간관계는 생활과정에 맺어 진다. 따라서 인간생활을 깊이 있게 그리며 인간관계를 두드러지게 보여 주자면 작품창작에서 생활과 인간관계를 서로 밀착시켜 통일적으로 깊이 있게 그려야 한다.

위대한 동지관에 대한 품위 있는 예술적형상

김정철

단편소설 《동지에 대한 추억》(권정웅 작, 《조선문학》 주체89년, 4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 계신 숭고한 동지관의 전모를 높은 사상에 술적경지에서 펼쳐 보여 준 품위 있는 작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일수록 수령의 심리세계에 대한 직접적묘사가 더욱 자유분방하게 펼쳐져야 하며 수령의 위대한 영상이 여러 각도에서 묘사되어야 한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처 오는 그리움을 더해 주며 이 소설이 우리 독자들의 가슴에 커다란 사상미학적감흥을 불러 일으켜 주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 계신 동지에 대한 사랑, 동지관의 세계를 가슴 뜨겁게, 철학적으로 해명하여 보여 주고 있기때문이다.

단편소설 《동지에 대한 추억》은 혁명은 동지를 얻는것으로 시작해서 동지를 얻는것으로 끝나는 사회운동에서의 어길수 없는 철칙이 있다는 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어버이수령님의 체험세계속에서 그것을 깊이 있게 해명하여 주고 있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 형상수단과 수법을 여러모로 리용하여 형상의 진실성과 생동성, 폭과 깊이를 충분히 보장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형상적요구로 나서고 있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단편소설들에서는 흔히 제3의 인물시점에서 수령의 위대성을 반증하는 형식의 형상수법을 많이 써왔다.

물론 작품의 소재와 양상에 따라서 이러한 형상수법도 쓸수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수령의 시점에서 형상을 창조하는것이다. 그래야 수령의 내면세계를 깊이 있게 펼쳐 보여 줄수 있으며 수령의 형상을 주도적인 위치에서 감명 깊게 보여 줄수 있다.

단편소설 《동지에 대한 추억》에서는 수령의 시점에서 수령의 체험세계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중요대상인물의 성격과 생활을 진실하고 가슴뜨겁게 그려 보여 주고 있다.

작품에서 이야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신의 금고안에 소중히 보관하였던 김책동지와 함께 찍으신 사연깊은 한장의 사진을 꺼내보시는데로부터 시작된다.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있었던 김책동지와 첫 상봉과 가릴치절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최

고사령부 작전실에서 그를 만나시던 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체험과 추억속에서 뜨겁게 펼쳐진다.

하나의 형상적계기, 즉 한장의 사진을 통하여 시공간적령역에 구애됨이 없이 과거와 현재, 현재와 과거를 련결시켜 위대한 수령님의 심리세계에 대한 직접묘사를 자유분방하게 펼쳐 보여 준 이 장면장면들은 실로 감동적이다.

건국의 한해를 뜻깊게 보내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김책동지와 단 둘이서 사진을 찍게 되시였다.

이 뜻 깊은 사진을 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29(1940)년 겨울에 있었던 김책동지의 성격과 생활에로 펼쳐져 나간다.

김책동지가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되었으며 해방 후 산업상으로 사업하였던 일,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부 작전실에서의 마지막작별과 그날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된 사연 그리고 어버이수령님께서 눈 내리는 영결의 마당에서 그토록 비분에 잠기시던 일들이...

하나의 계기로부터 어버이수령님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립체적으로 보여 줄수 있게 하며 수령님의 내면심리세계를 풍부하게 보여 주는데서 매우 효과적인 수법으로 된다.

하바롭스크교외에서의 첫 상봉시 동지의 사랑이 습배인 한결레의 신발을 두시고 어머니과 철주동생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 뜨거움을 느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추억의 세계.

최고사령부에 찾아 온 김책동지의 해진 양말을 벗기고 새 양말을 신겨 드리시면서 체험하게 되는 심리적굴곡, 김책동지가 심장마비로 잘못되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접하시였을 때의 강한 걱정, 그의 분묘를 찾던 그날의 가슴 터지던 사연, 이러한 계기들에서 체험하시게 되는 수령님의 내면심리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개방은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울려 주는것인가.

...아, 나의 이 팔을 자른들, 이 다리를 생짜로 끊어 낸들 이다지 아프고 쓰리고 절통할것인가?

김책이! 일어 나라, 왜 말이 없는가. 깨여 나서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가라... 조국통일이 되면 우리 서울에 가서 축배잔을 같이 들어 보자고 했지... 응? 왜 말이 없나, 김책이...

작가는 이렇게 혁명동지를 잃은 어버이수령님의 아픈 심정을 수령님의 체험세계속에서 펼쳐지는 내면심리로 직접 보여 주고 있다.

이 내면심리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독자들은

아버이수령님께서 안고 계시는 동지에 대한 사랑이 그 얼마나 참되고 열렬하며 영원한 것이었는가를 너무나도 가슴 뜨겁게 절감하게 된다.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동지애의 인간적품모를 한장의 사진을 계기로 펼쳐지는 수령님의 체험세계속에서 감동깊이 그려 보여 준 여기에 이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적성과가 있으며 예술적기교의 비결이 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혁명관, 인생관을 자신의 높은 미학적안목으로 예술적으로 정립하여 보여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작가의 미학적리상은 주인공의 내면세계의 개방과 독백, 작가의 주정토로를 통하여 실현된다. 하지만 작중인물들의 객관적생활론리를 따라 생활을 그려 보여 주는 소설에서 작가의 주정토로나 주인공의 내면세계와 독백 등이 생활적전제가 없이 씌여 진다면 그것은 한갓 《공허한 웨침》에 불과할뿐 아무런 미적감흥을 일으켜 줄수 없다. 때문에 작가의 주정토로나 주인공의 내면독백 등은 생활적인 전제를 타고 흘러 나와야만 독자들의 가슴속에 자연스럽고 뜨겁게 안겨 와 크나큰 공감을 일으켜 주게 된다.

이 작품에서는 혁명동지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깊은 철학적사색을 내면독백의 형식으로 보여 주고 있다.

동지! 이것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만능당의 힘과 용기를 주는것. 그러나 그보다 먼저 말 해야 할것은 혁명은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지를 얻는것으로 끝나는 사회운동에서의 어길수 없는 철칙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동지! 혁명에 대해서 모든것을 단 한마디로 말해 주는 실체인것이다.... 나에게 동지를 달라, 그러면 임의의 시각에 천하를 움직일 조직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것은 공든 장담이 아니라 내가 한생을 통해서 얻게 된 결론이다. 알기쉽게 말해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도 열망하고 필요로 하는 혁명적조직이란 별로 신기한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인간들의 리성적결합체인것이다. 때문에 동지,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고귀한 존재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동지는 혁명에서 필수불가결의것이면서 그것을 얻고 사귀는 과정에는 최대의 희생이 요구되기 마련이다. 하여 동지를 위해 한목숨 바칠 각오가 돼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동지가 차례지지 않는 법이다.

작품에서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 진 사실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동지애, 동지관을 그려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령님의 내면독백이 혁명과 동지애의 심오한 철학적의미를 새롭게 안겨 주며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 주게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가지로 설명할수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것

은 아버지수령님의 고매한 인간적품모와 내면세계를 작가가 높은 미학적안목에서 깊이 파헤쳐 펼쳐주고 그것을 높은 예술적기교로써 일반화하여 보여 주었기때문이다.

작품에서 작가는 위대한 수령님과 김책동지와 의 연고관계를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한 동지관, 혁명관을 뜨겁게 보여 줄수 있는 관계로 승화시켜 형상을 심화함으로써 그 추억의 화폭을 폭 넓고 깊이 있게 펼쳐 보여 주었다. 그러한 생활적전제하에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혁명관, 동지관의 본질을 높은 미학적안목으로 형상하여 보여 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단편소설은 아버지수령님의 혁명동지에 대한 뜨거운 추억의 시적정화로 울리는 감동 깊은 화폭이라고 할수 있다.

혁명동지들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을 써오시면서도 자신에 대하여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너무도 생각하지 않으신 아버지수령님, 그 누구도 모르게 애용하신 우리 수령님의 금고안에는 서류봉투 몇개와 김책동지와 나란히 찍으신 한장의 사진만이 보관되어 있었으니 생의 마지막순간까지도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혁명동지, 김책동지에 대하여 생각하시였다.

40년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변치 않은 동지에 대한 위대한 사랑과 믿음, 그 사랑과 믿음의 최고화신이 바로 우리의 수령님이시였다.

이렇듯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인품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고 뜨겁게 그려 보여 줌으로써 높은 사상예술적감화력을 담보하고 있다.

단편소설 《동지에 대한 추억》의 높은 사상예술적품격은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함께 모시고 수령님의 동지관을 그대로 이어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체험세계속에서 수령님의 동지관의 본질을 심오하게 펼쳐 보여 줌으로써 보다 훌륭히 담보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김책동지와 함께 찍으신 그 사진을 보시며 수령님께서 《조직비서동지》하고 불러 주시던 그 호칭을 생각하신다. 그러시면서 동지라는 그 부름속에 혁명의 모든것이 함축되어 있음을, 혁명의 핵이고 진리며 변증법이 이 동지라는 호칭속에 있음을 뜨겁게 의미해 보신다.

우리 수령님께서 물려 준 고귀한 유산으로 동지의 의미를, 심장속깊이 새겨 안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지관이 안겨 주는 깊은 의미를 더욱 뜨겁게 새겨 안으며 두분의 위인의 세계를 감동속에 되새겨 보게 된다.

작품에서는 또한 아버지수령님의 고매한 인간적품모를 환상과 련상, 회상의 수법으로 이채롭게 펼쳐 보여줌으로써 하여 사상예술적품격을 보장

하고있다. 그리고 작품의 시작부터 밤의 전경에서 시작하여 과거의 그 밤으로 이어지고 현재의 밤으로 또다시 이어 지는 정서적계기의 활용으로 하여 이 작품의 글줄마다에 시적리듬과 같은 서

정을 부여해 주고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하는 모습속에 비친 고매한 인간적풍모를 다시 한번 절감하며 작가의 높은 예술적기교에 대하여 새롭게 의미해보게 된다.

받으시라 이 꽃다발을

정혜경

그대들 군복입고 전선으로 떠날 때
들꽃 한송이 꺾어 드리지 못하고
내 이제 무슨 말을 할수 있으랴
오리오리 희여 진 그 백발앞에

내 진정 무엇을 드릴수 있으랴
신념 그 하나를 지켜
캄캄한 지옥속에
푸르디푸른 청춘을 묻고
장장 40 여년의 인생을 묻고
조국에 돌아 온 그대들앞에

하염없이 눈물은 쏟아 져 내리고
억이 막혀
정말로 억이 막혀
아무 말도 할수 없는 이런 때엔...

망울 터친 이 땅의 고운 꽃을 다 골라
철창속에 흘려 간 그 순간순간들에
다 피워 드리고 싶은 마음
우주의 한끝에 꽃이 있다면
그 꽃을 꺾어
그대들 곁에 온
피의 자욱자욱에 다 놓아 드리고 싶은 마음

받으시라
피 터지는 고문과 고독, 굶주림에
철창은 녹아 떨어 저도
북두칠성 우리르며 잠 못 들던 밤
그 마음의 뜨락에
떨기떨기 피여 나던 꽃송이

전향이라는 치욕의 두 글자 아닌
비전향이라는 세 글자를 지켜
뼈가 부서지고 살점이 찢겨 질 때
가슴에 젖어 오던
고향집의 그 향기 넘쳐 나는 꽃송이

꽃은 정녕

신념앞에 더 아름답더라
백화는 정녕
태양의 빛발아래서만
향기를 더해 주더라

가는 계절 오는 계절도 모르고
한점 빛도 없는
한초한초를
백년천년으로 씹어 보내며
백발로 신념의 꽃을 피운 그대들앞에

송구스러워라
내 하나의 작은 다발밖에 드릴수 없음이...

허나 받으시라
낮이나 밤이나
눈 오나 비 오나
집 떠난 아들들을 기다리고기다리던
이 나라 어머니들 그 마음 어린 꽃다발

그 어머니들의 아픈 마음 다 안으시고
굽이굽이 전선길에서
그대들 이름 부르고부르시며
우리 장군님
동지애의 뜨거운 사랑으로 엮으신
이 꽃다발을
하여 오늘은 그 위대한 손길로
20 세기 마지막 9 월의 강산
이 화원속에
개신장군
통일의 불사조들을 기어이 안아 오셨나니

받으시라
그대들이 헤쳐 온 파란만장우에
삼가 드리는 이 꽃다발
민족의 장한 아들들에게 드리는
조국의 꽃다발
조국의 영광을!

(주체 89. 8. 31)

송고한 정서, 열렬한 추억의 세계

-1990년대 후반기 송년시문학의 갈피를 번지며-

안성

우리는 지금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 세기를 바라 보는 력사의 분수령에 서 있다. 20세기와 더불어 우리 주체문학이 걸어 온 길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느라면 참으로 주체문학이 자기 수령에 대한 끝 없는 경모심과 절대적인 숭배심을 자양분으로 하여 보다 힘있게 전진해 왔음을 긍지 높게 깨닫게 된다.

격동적인 사변들로 충만된 20세기를 헤쳐 오면서 주체문학이 층층이 쌓아 올린 성과속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5년 혁명실록이 엮어진 1990년대 후반기에 줄기차게 발전한 송년시문학도 들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문학예술은 격동하는 시대의 력사적흐름을 힘있게 선도함으로써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력사에 류례없는 가장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증첩된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이겨 내고 가장 성스럽고 빛나는 승리와 업적을 이룩한 1990년대 후반기에 송년시문학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지, 감정과 정서에 더 가까이 따라 서며 주체문학의 또 하나의 봉우리로 우뚝 솟았다.

송년시 《눈이 내린다》(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여》(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 집제작), 《아름다운 추억의 해 1999년이여》(백의선 작) 등 1990년대 후반기의 송년시문학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절대적인 숭배심이 안아온 시대의 명시들이다.

송년시는 말 그대로 한해를 보내면서 그 해를 돌이켜 보는 정서적체험세계를 반영하는 시문학이다. 그러므로 시의 서정은 추억의 감정으로 일관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서정적주인공자신의 개인적인 생활과정에 대한 추억의 감정이 아니다.

온 한해 시대의 진군길을 앞장에서 개척하시며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인민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욱자욱에 대한 경건한 추억의 감정이다. 그것은 그대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 절세의 위인상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노래이다.

바로 여기에 1990년대 후반기 송년시문학의 본질특성이 있으며 비상한 사상정서적감화력의 근본원천이 있는것이다.

1990년대 후반기의 송년시문학은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풍만하고도 깊이있는 서정으로 펼쳐 보임으로써 독자들의 커다란 감동과 공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값 높은 평가속에 시대의 명작으로 새겨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그 어느 력사에도 감히 견주지 못할 위대한 5년 혁명실록이 엮어 진 1990년대 후반기 송년시문학의 갈피를 번지며 그 서정세계를 다시금 음미해 보련다.

그리움의 대하는 굽이친다

그리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그리움, 이것을 예민하게 감수하고 일관하게 구현하여 무게 있게 형상하고 있는데 1990년대 후반기의 송년시문학이 이룩한 사상예술적성과의 첫째가는 비결이 있다.

송년시문학에 전일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감정정서는 오로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그리움의 정서이다. 여기로부터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끝 없는 경모심과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경애하는 장군님을 더 높이 모셔 갈 굳은 신념과 의지 등 모든 사상정신적 지향이 흘러 나온다.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정서를 떠나서 시문학의 그 어떤 사상정서적견인력도 생각할 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그리움은 오늘 우리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정서로, 우리 인민의 모든 사색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되고 있다.

세월의 락엽속에 쉽사리 묻어 버리기에는 너무도 값 비싼 대가를 치르어야 했던 1990년대 후반기의 한해한해, 결코 범상하게만 흘러 오지 않은 그 나날에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그리움은 백배해 졌거니, 그것은 모든 운명과 미래를 그이께 다 맡기고 따르는 절대적인 숭배심에 뿌리를 두고 실지 생활속에서 체질화되고 신념화된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리움이였다.

우리 시대의 가장 주도적인 감정정서,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인민의 열렬한 그리움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송년시문학은 시대의 숨결이 거세차게 느껴 지는 송고한 추억의 서정세계를 펼칠수 있었던것이다. 그것은 이런 그리움의 정서

로 하여 송년시문학에서 흘러 간 한해에 대한 추억은 필연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어 오신 자욱자욱에 대한 경건한 추억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치시는 불멸의 로고에 대한 감동깊은 추억으로 승화되고 이어지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그리움의 정서가 안고있는 사상미학적본질이 있고 1990년대후반기 송년시문학이 개척한 독창적인 형상세계가 있다.

문득 상기해 보건대 물론 이전 시기에도 한해를 돌이켜 보며 격동된 사상감정을 노래하는 시들은 적지 않게 창작되었었다. 이런 작품들에서는 지난 한해에 기록된 사회정치적사변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기록된 성과들을 정서적으로 체험하며 승리자의 긍지와 자부심, 생의 희열과 랑만에 넘쳐 당과 수령의령도를 노래하는것을 보편적인것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 수령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을 가장 명백하고 가장 주되는 감정정서로 분출시켜수령이 온 한해 쌓아 올린 불멸의 위업에 대한 숭고한 추억의 서정세계를 전일적으로 펼친 레를 우리는 1990년대후반기의 송년시문학에서 비로소 찾아 보게 된다.

우리 혁명투쟁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진 《고난의 행군》의 한해, 주체86(1997)년을 돌이켜 보며 강렬한 서정을 터친 송년시 《눈이 내린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인민의 열렬한 그리움의 대하는 세차게 굽이 친다.

《거리와 마을에/소리없이 흰 눈이》내리는데 그 한송이한송이에 뜨거운 추억을 실으며 《마지막일력장을 조용히 번지는 이 마음》이 가닿는곳은 그 어디인가. 《이 해의 365일》을 시가의 붓을 들고 걸어 왔건만 《이 가슴을 울리는 노래는/이제 시작이런듯》 싶어 삼가 경모의 노래를 엮는 서정적 주인공,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추억의 밤은 깊어 간다.

송년시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그 어느 한사람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세차게 고동치는것임을 감동깊이 시화하였다.

단풍은 9월의 단풍이지만 경애하는 장군님을 《기다리는 병사들의 그리움이/이 산 저 산 물들여》 철이 늦어도 지지 않던 구월산의 단풍이며 꿈속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뵈옵던 염분진의 녀인에 대한 시구절은 모두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서준다.

레사로운 날
레사로운 밤
기적소리 하나 들어도
장군님 타신 렬차의 기적소리를 아는 인민
굽이굽이 령길에 찍힌 차바퀴자욱을 보아도
장군님 가신 길을 다 아는 인민

이 그리움속에서 주체86(1997)년에 새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자욱에 대한 추억은 끝없이 이어 지고 이어 지나니 《온한해 우리 장군님 계신》 그 렬차, 그 야전차의 차창에 《이 땅의 사계절이 따라》 서지 않았던가. 《눈내리고 비 내리는 련련한 산발》, 천리전선길은 어떻게 헤치셨고 《길길이 일어 서던 파도는》 어떻게 넘으셨던가. 못잇을 정월초하루 설명절의 그날에도 오직 한분 우리 장군님께서만은 《만경대의 눈보라속에 계시었으니》 시에서는 《이 해의 년력에는》 인민이 다 쉬는 일요일도 명절날도 있었건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의 운명과 인민의 행복 지켜 모든 난관을 헤쳐 가신 그 길에는 일요일도, 명절날도 없다고 걱정을 터치시는것이 다.

송년시 《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여》에서 노래된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그리움은 또 얼마나 절절하고 불 같은것이었던가.

흘러 간 한해의 하루하루에 불러 온 노래는 《그리움으로 시작하고/그리움으로 이어 지더니》 저무는 그 해의 《마지막 노래도/그리움으로 젖고 젖어》 가슴들먹이는 인민의 마음은 시의 구절마다에 력력히 어려 있다.

한해도 다 가고
설날은 다가 오는데
정초에 먼길 가신 우리 아버지
지금도 돌아 오시지 않는구나

지금은 어디에 계실가
그 어느 북변마을의 동구밖
밭이랑의 찬 눈을 헤집고
파아란 밀보리를 보살피지 않는지
천리 먼 최전연초소
병사들의 온실을
돌아 보고 계시지나 않는지

이 그리움을 안고 서정적주인공은, 아니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하루도 한달도 아닌/긴긴 해와 달》에 가고가신 그 길을 더듬어 보며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지울래야 지울수 없는 추억》을 소중히 안아 보는것이다.

그 추억속에 뜨겁게 새겨 지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였다.

이 땅의 모든것이 그리도 크고 소중한 《차창에 언뜻 스치는/작은 시내가의 소형발전소 하나》도 무심히 보지 않으시고 이름 없는 산간마을 문화주택지붕우에 세운 《TV 안테나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여 보신 장군님. 들리신 마을에서는 집집의 《아래목의 온기도》 가슴해 보시고 찾으신 《일터의 기대앞에서는》 다정히 이야기도 나누시며 친 아버지의 사랑을 부여 주신 장군님. 《바다가초소의 해안포진지》를 찾으시여서는 쌍둥이병사들의 피리소리를 들어 주시며 《참 잘한다고/정말 대견하다고》 박수도 쳐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모습이 런던마다에 뜨겁게 어려 있다.

이런 열렬한 그리움, 이런 숭고한 추억의 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과 우리 인민은 《정으로 맺어 지고/사랑으로 뜨거워/끓을래야 끓을수 없는/한식술 한혈천》임을 심장깊이 절감하게 되는것이다.

송년시 《아름다운 추억의 해 1999년이여》에서 펼쳐 지는 그리움의 정서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인민의 아버지에 대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추억의 세계를 감명 깊게 그려 내고 있다.

해와 달은 흘러흘러 어느덧 한해가 저무는 무렵 《흰 눈은 이 강산을 포근히 덮어/생각은 더더욱 깊어 지는데》 인민의 천만사연과 아름다운 추억은 오직 《한분 그이와 이어 졌으니》 서정적주인공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을 불태우고 있다. 시에서는 이런 강렬한 그리움 속에서 일년의 그 어느 하루도 《인민을 찾는 길에 빈날없이/인민을 위해 불같이 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를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다.

태천땅의 정월 눈보라 몰아치는 언제우에 발전 소건설자들과 함께 계셨고 쏟아지는 불벌아래 자강땅의 너인들과 뿔발에 계셨고 분계선의 민경병사들과 초소의 전호가에 서계셨다. 광명성체염소와 함께 태어난 귀여운 아기의 몸을 어루 만져주시며 해풍이 부는 바다가에 계셨고 머리흰 고문 지배인들과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시며 그들에게 청춘의 활력을 부어 주시고 노을 비긴 시내가와 눈내리는 온천물가를 찾으시여서는 양어의 비결도 가르쳐 주시였다.

인민이 살고 생활하는 온 나라가
우리 장군님 계신 주소였거니
그곳이 그이의 집무실
그곳이 그곳이 내 나라의 해가 솟는 곳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로 사시고
인민과 생사운명의 동지로 사신
아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

이것은 그대로 흘러 간 한해에 대한 추억을 통하여, 아니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심장으로 절감한 불변의 진리이다.

이처럼 1990년대 후반기의 송년시문학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의 감정정서를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그것을 일관하게 지향시켜나감으로써 한해에 대한 추억이 철두철미 절세의 위인의 거룩한 생애에 대한 숭고한 추억으로 전환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격조높이 노래하는데 적극 기여할 훌륭한 형상적터전을 마련할수 있었던것이다.

풍만한 시적세부, 진실한

생활감정

1990년대후반기 송년시문학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감동깊이 서정화할수 있게 된 비결의 다른 하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위인적풍모를 보여 주는 생활세부들을 수많은 취사선택하여 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하고 있기때문이다.

시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치 작가들이 자신과 한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쓴것 같다고 말씀하실만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자육을 걸음걸음 따라 서면서 시줄을 엮고 있으며 하많은 사연들과 생활세부들속에서 적중한것을 고르고골라 미학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예술적으로 생동하게 재현시키고 있다. 송년시문학에 반영된 수많은 시적세부들은 단순히 라렬이나 소개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정서의 흐름을 타고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사상주제적내용을 천명하는데로 집중되고 있다.

하여 독자들은 시를 읽으면서 복잡다단한 그 한해한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을 지켜 로고를 바쳐 가신 불멸의 령도자육을 다시금 가슴 뜨겁게 되새겨 보면서 시인의 격조 높은 토로에 열렬한 공감과 뜨거운 호응을 보내는것 이다.

송년시 《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여》에서 형상된 시적세부들이 안겨 주는 정서적여운은 참으로 크다.

인민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시였으면 《희천사람들이 자꾸만 꿈에 나타난다고/그들이 나를 기다리는것만 같다고》 하시며 자정도 넘은 깊은 밤에 높고 험한 령을 넘으시여 해 뜨는 아침에 찾아가신 장군님의 그 마음. 인민들이 편할수만 있다면 쪽잡마저 제대로 드실수 없는 고생을 사서라도 하겠다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행군의 돌파구를 열어 가시는》 그 자욱자욱우에서 《감자꽃 피는 백두삼천리》가 물결치고 우리 곁을 떠나 갔던 평범한 혁명동지들이 《영생의 돌사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며 머나먼 복변 이름 없는 《농민의 그 소박한 소원도 헤아려》 사진을 찍어주신 눈물겨운 온 한해 인민의 집에 계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그대로 보여 주는 풍부한 생활세부들의 정서 깊은 형상을 통하여 독자들은 주체87(1998)년은 《사회주의 큰 집을 지키시고 빛내여 오신/최고사령관의 천신만고의 365일》이며 《강철의 보호자의 풍찬로숙의 365일》이며 《우리 아버지의 불면불휴의 365일》이라는 시인의 주장에 절대적인 공감을 보내는것이다.

송년시 《아름다운 추억의 해 1999년이여》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간직하신 추억에 대한 시적세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적친품에 대한 생동한 립증으로 된다.

온 한해, 《그 열두달우에 실린/장군님의 추억중

의 추억은/잊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추억》이었나니 한평생 잊지 못할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땅의 평범한 인민들이었고 고지의 평범한 전사들이었다. 《이 해의 첫 기슭에서 만난 과학자들》과 저 멀리 백두산초소에서 《2월의 흰 눈우에 스키를 타던 군인가족들》, 《대홍단의 해병출신 행복스런 그부부》며 세벌농사의 가을을 안아 온 북방땅의 이악스런 녀성관리위원장, 눈 덮인 최전연고지 전호에서 《눈물 흘리며 환호하던 포병중대원들》, …만나고 헤어진 그 천만사람을 차마 못 잊으시여 《이해의 마지막 인사도 그들에게 보내시는 장군님》의 마음이지거나 시에서는 이런 시적일반화를 통해서 수많은 생활세부들을 하나로 꿰고있다.

아, 장군님의 그 마음이
날과 날에 수놓아졌다
장군님의 그 마음이
사계절에 굽이쳐 흘렀다

1990년대 후반기의 송년시문학은 생활감정의 진실성으로 하여 그 서정적형상이 더욱 감명 깊게 안겨 온다. 송년시문학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에 대한 체험으로부터 환기되는 생활감정을 그 어떤 꾸밈이나 과장이 없이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그 어떤 특이하고 요란한 생활에 대한 탐구로써가 아니라 그 누구에게나 알려 진 평범한 생활에 대한 정서 깊은 체험을 통하여 생활감정의 진실감을 더해 주고 있다.

1990년대 후반기 송년시문학이 도달하고 있는 사상예술적높이에 대하여 론할 때 아직 많은것을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시대적으로 많은것을 반영해야 하고 폭 넓은 생활을 시화하여야 하는 송년시문학에서 정서적 감화력을 약화시킴이 없이 결코 짧지 않은 분량

의 작품을 꾸민다는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시인들은 진지한 예술적탐구와 불 타는 창작적열정으로 송년시문학을 시대서정이 풍만히 무르익은 말그대로 시의 세계로 일관시켰다.

명백한 시상의 선택과 시적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침투, 열렬한 주정토로와 아름다운 시적화폭의 교차속에서 이루어 지는 심도 있는 시적일반화, 송년시고유의 독특한 양상의 구현, 시적언어구사에서의 세련성, 각이한 형상수법의 능란한 활용 등 우수한 창작기교들을 남김없이 발휘한것으로 하여 송년시문학은 구절마다에 풍만한 서정이 주렁진 예술적화폭들을 마련할수 있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5년 혁명실록이 엮어진 1990년대 후반기에 즐기치게 발전한 송년시문학은 그 위대한 5년이 주체문학사에 남긴 귀중한 자취이며 20세기를 총화 지으면서 우리 주체문학이 긍지높이 안아 보는 크나큰 자랑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불 타는 충성심과 절대적인 숭배심으로 시인들의 심장이 불 타오를 때 시대를 대표하는 명시, 명작들이 수많은 태여날수 있다는것을 이 글을 마감 지으면서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이 해에는 우리 어떤 송년시를 읽게 될는지, 벌써 많은 기대가 쌓여 진다.

그러나 그것도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가장 열렬하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진실한 칭송의 노래로 되리라는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머지 않아 새 세기의 동은 트리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력사가 끝없이 계속되는 한 **김정일**세기로 찬연히 빛날 21세기에도 송년시문학은 년년이 자기의 보물고를 끊임없이 늘여갈것이다.

가사

나의 군복

최향일

정다운 고향집 멀리 떠나 와
내 벌써 그 몇번 갈아 입었다
총 잡고 선서다진 그날부터
보위색 군복입고 나는 자랐네
아, 병사의 군복이 나는 좋아

거리에 멋진 옷들 물결쳐 가도
그속에 나의 맘 세운적 없네
백두의 풀물 오른 군복 입고

훈련길 떠날 때면 자랑 높아라
아, 병사의 군복이 나는 좋아

내 한생 군복속에 땀발을 세워
자랑찬 군공의 별 수 놓아 가리
이 한몸 전호에 묻힌다 해도
고향은 가보로 전해 가리라
아, 병사의 군복이 나는 좋아

장군님과 김철

전승일

불을 안고 뜨겁게 노호하는
북방의 김철
동 터오는 새 세기를 향하여
억센 머리 높이 추켜 들고
도도히 굽이쳐 가는 김철

세기의 야만들이 휘몰아쳐 온
봉쇄의 압살의 살풍을 차던지고
어제도 오늘도
장군님의 조국을 무죄기등으로
억척같이 떠이고 나가는
오 나의 김철이여

준엄하고 광란하는 이 세월앞에
무슨 힘을 지녔기에
김철은 주저앉지 않았고
무슨 심장을 지녔기에
김철은 대진군의 고고성을 더 높이 올리는지

나는 노래하련다
이 땅 철의 기지에
꿈같이 흘러 간 반나절
반나절의 이야기로...

X

손꼽아 기다리면서도
이렇게 오실줄 몰랐더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물을 머금고 기다리면서도
이렇게 문득 찾아 오실줄
누구도 정말 몰랐더라

너무도 평범한 보통날이었다
숨막히는 8월의 폭양속에
점심마저 건느신채
우리 장군님 철의 구내를 밟으신 날은

장군님 맞이할 이런 날을 위해
쇠물색갈에 물들여 마련한
수천폭의 붉은기도
용광로 해탄로 압연장...
그 머리우에서 조용히 퍼덕이고 있었을뿐

기다리는 우리들도
다는 몰랐더라

우리 장군님 심장속에
김철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불이 끓는 용광로
불덩어리처럼 지동치는 동체앞으로
왜 그리도 거침없이 다가서시였는지

빛발치는 그이의 안광은
달아 오른 동체우에
주먹같이 꺾박혀 있는
붉은 글발에로 줄달음치시였다

전후에 김철의 로동계급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19 만톤의 공칭능력을 뛰어 넘어
27 만톤의 선철을 생산함으로써
보수주의, 소극성을 짓부시고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 주었다고

어제도 오늘도
충직한 로동계급
자신이 바라는 쇠물을 더 내자고
천도 고열속에도
웃으며 뛰어 든다는
사랑스러운 이 로동계급

사람들은 다는 모르리
얼마나 김철이 보고 싶으시였으면
한해전 이른 봄날
더는 쪼갤수 없는 시간을 앞에 놓고
이 용광로의 불노을을 바라보시며
철의 도시를 세바퀴나 돌고도시였다는것을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다 알고 계시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목숨 같은 용광로를 지켜 내자고
우리가 바친 피와 땀과
눈물까지도

용광로 이 불이 꺼지면
조국이 식기에
용광로.이 동체가 식으면
조국의 피가 굳어 지기에
이 용광로들 안고
수백밤을 잠못 드신

우리 장군님이 아니시던가

사품치는 백광의 쇠물앞에서
피줄이 일어서도록
두주먹을 짜악 틀어 쥐시는 장군님
근엄하신 그 영상 우러러 선 나의 귀전엔
이 가슴의 흥벽을 광광 두드리던
그날의 목소리가 들려 온다

쏟아 지는 비를 맞으며
방송차우에 서서
구내를 돌고돌며
애절한 너방송원이
눈물 젖어 웨치던
아 그 목소리

-동지들!
용광로가 식어 갑니다
우리 수령님 한생을 마음속에 안고 사신
용광로
우리 장군님 다시 한번
조선사람의 본패를 보여 주자 하신
그 용광로가 다 식어 갑니다

아 원썬들의 봉쇄와 압살이
아무리 모질다 한들
이 무슨 가슴 무너지는 소리란 말이나
용광로를 숨 죽여 놓고
김철의 수만목숨은 살아
무엇한단 말이나

한덩이 콕스를 찾아
수천의 사람들이
구내를 뒤덮었다
얼음장이 뚱뚱 뜨는 바다물속에서
함마를 휘두르며
파철을 까냈다

누구는 아버지가 정히 깎아
꼭게 물 먹여준
결혼선물 큰 밥상을 들고 나오고
또 누구는 수십년을 손때 묻힌
이불장을 뜯어 내오고...

울바자를 뽑고
콩대마저 꺾는
이름 모를 아바이앞에서
그때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더라
용광로가 있고야
내 집이 있는것이 아닌가

용광로에 만송풍을 걸고

피 같은 쇠물을 뽑아 내던 날
너무도 장군님이 그리워
잘 익은 쇠물을 한남비 떠 안고 보니
그날도 장군님께서서는
평양에 계시지 않았더라

격랑치는 날바다를 헤쳐
뒤집혀 질듯 노호하는
쇠란간을 틀어 잡으시고
그 어느 섬초소를 찾아 가시는 장군님
뿌려 치는 포말앞에 옷자락을 다 적시시는
그 영상 우러러
우리는 로정을 두드리며 웨치지 않았던가
-장군님 용광로가 살았습니다

장군님께서만은
다 알고 계시었다
오직 쇠물
붉은 쇠물 하나만을 안고
귀중한 삶을 깡그리 불 태워 가는
억척 같은 이 로동계급이
장군님 심장에 콕 차 있었다

로장의 굳은 살 배긴 두손을
쫄어 주고 또 쫄어 주시며
가슴속에 쇠물처럼 끓여 온
그 충정도 다 헤아려 주시며
온 로정이 찢찢 울리게
쇠메아리를 일으키는 장군님의 말씀이어

-쇠물을 보니 힘이 납니다
쇠물은 공업의 왕이고
나라의 기둥입니다

오 우리 장군님께
힘이 된 쇠물
그 붉은 쇠물을 기어이 지켜 냈다는
파도처럼 터져 오르는 행복으로
억대우 사나이들은
소리없이 어깨를 떨었더라

태양의 품에 안겨
마음껏 흘린
우리의 더운 눈물이
장군님 옷자락에 다 스며 들었음을
인민이어 용서하시라

×

철가루 앉은 구내길을
자욱자욱 밟으시며
장군님의 귀중한 시간은 흘렀다
용광로에서 정련로로

다시 또 압연장으로...

김철이 대견하다고
김철에 와서 큰 힘을 얻었다고
주먹을 높이 들어
말씀하시던 장군님
웬 일이신가
금시 안팎에 불을 담으신것은

가시다간 돌아 서시고
돌아 서시여
다시 엄하게 쳐다보시는 그곳은
거세차게 붉은 연기를 토해 내는
강철로 아아한 굴뚝의 그 높이

웬일이신가
김철의 상징처럼
김철이 살아 숨쉬다는
뜨거운 숨결처럼
밤과 낮을 우리 안고 살아 온
저 붉은 연기가 아니더냐

-수령님께서 그리도 아껴 오신
김철로동계급인데
아직도 이런 연기아래서
일을 시켜서야 되겠는가
철이 아무리 중하다 한들
생산을 세우고
돈을 들여서라도
저 연기를 없애 치우시오!

아 아 장군님
선군령도의 자욱자욱
찾으시는 곳마다
강철이 많아야 한다고
그래서 김철만 살면
나라가 산다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던 장군님

우리는 누구나 말했다
저 연기를 보지 못한 밤이면
잠자리가 불편해
종내 잠을 못 잔다고
저 연기가 텃으면
온 김철이 밥술을 못 뜬다고

무엇을 숨기랴
탄산수대신
맹물을 마시면서도
우리는 때없이 손을 들어
당결정으로 채택하지 않았던가
저 연기만은 멈출수 없다고

천리 전선길
그 어느 험한 산고지를 오르시다도
멀리 김철의 이 연기를 보시며
우리 장군님 기뻐 하시게
그래서 더 높이 더 거세차게 뿜어 올리자고
그리도 자주 맹세하던 이 붉은 연기가 아니더냐

오 이 연기가
우리의 궁지처럼
우리의 자부처럼 지켜 온
이 붉은 연기가
김철이 끼쳐 드린 단 하나
장군님의 아픔으로 될줄이야
우리 어찌 알았으랴

-저 낡은 해탄로도 소결로도 없애고
제일 좋은것으로 들여 오시오
돈을 타산하지 마시오

다시 한번 사랑의 봄우뢰마냥
드르릉 철의 하늘가에 울리는
사랑을 안고
그 깊이 알수 없는 무한대 사랑을 안고
뢰성처럼 김철의 심장을 울리는
장군님의 목소리

불이 뜨거워도
뜨거운줄 몰랐고
더 뜨거운 불앞에 마주 서야
오히려 마음 편해 지던
우리 아니더냐

고열이면 어떻게
숨 막히는 연기면 어떠랴
혁명의 천만 짐을
단신으로 짊어 지신 두어개
그 어깨를
무쇠기둥으로 받들어 간다는
오직 그 하나 행복으로 줄달음쳐 사는
우리 김철이 아니더냐

오 이것이
우리 장군님의 강철관이시다
불이 아닌 사랑으로
불보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무쇠를 녹여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의지이시다

끓어 번지는 불을 안고
지동처 우는 열을 안고

거대한 불덩어리 김철은
자기의 활화산 같은 심장을 터쳐
장군님앞에 아뢰였노라

장군님 이제는 김철이 살았습니다
장군님 사랑으로 억척같이 일떠선
나라의 맏아들 우리 김철은
백년 천년 다시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

사람들이여 보시는가
지금은 햇숨 같은 흰 연기 뿜어 올리는
강철로와 해탄로
용광로와 압연장...

크나큰 철의 기지
김철의 열도가 얼마나 더 뜨거워 지고
김철의 속도가 얼마나 더 빨라 졌는지를

장군님 안고 오신 반나절
사랑으로 영원하고
충성으로 길이 흐를
이 반나절을 안고
김철은 폭풍쳐 달린다

조국을 안고
조국의 천만전선을 이끌고
오 강성부흥의 새 세기에로
새 세기에로!

위대한 령장의 행군로우에

정동찬

내 병사로 살 때나
로동자의 직분을 가지고 살 때도
나의 중대는 1211 고지의 돌출부중대
나의 일터는 《1211 고지》의 강철작업반

그 무슨 언약처럼
조국의 큰 당부 얹혀 있는 고지
불의 전선구역에서 내 살아
또다시 영광의 시각을 맞이했노라

얼어 드는 눈속에도
장군님을 모신 전호속의 오락회 더운 김 날렸고
그이의 야전복자락속에서
나의 언 손은 조용히 녹고 있었거니

산발 타고 앉은 병사들을 한품에 안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최전연 흠이 묻은 그 자욱으로
련합부대 령마루 참호에 오르시듯
야금기지 용해장 총계를 오르신다

받들어 총 ! ...구령소리
들먹이는 내 마음속에 뜨겁게 떨구며
높이 받들어 안던 기관총처럼
내 오늘 달아 오른 쇠장대를 비껴 잡고
그이앞에 나선다

오, 김철이 살아야 조국이 산다고
엄숙히 선언하시는 아버지장군님

위대한 령장의 행군로우에서
나는 다시한번 차렷구령을 내렸다

뚝 떼여 내시는 장군님의 시간속에
내 숨결을 맞추고
철의 새 력사 빛발쳐 오는 장군님의 안광속에서
내 삶의 리정표를 본다

내 이미 벌써 전호속에서
포탄의 비행속도와 땅크의 무한계도진동을 두고
그 견고성을 가늠한 병사출신 로체공
최고사령관동지 그이앞에서
쇠물의 량과 질을 책임지노라

한초 한초
생명의 값을 알게 하는 뜨거운 땅
언제나 불의 전선 운명을 한줌에 거머쥐고
한 목숨 내대는 강철의 《1211 고지》여

조국의 운명을 걸고
위대한 령장의 행군로우에
버쩍 머리를 추켜 든 산악의 이름으로
내 맹세하건대

식을줄 모르는 강철고지 정점에서
쉬임없이 퍼내는 쇠물로
이 나라 강성대국 부흥의 터전을
내 마음껏 다지리라

명절날의 생각

김명철

깊디깊은 산골짜, 하늘을 치받을듯한 산벼랑을 뒤에다 병풍처럼 두르고 나란히 줄 맞춰 아담하게 들어 앉은 그림같이 아름다운 문화주택마을.

밤 새워 닭고 또 닭은듯 싶은 티없이 맑고 파아란 하늘이 쌀함박속같이 좁고 움푹한 골짜기안을 내려다 보고 황금빛, 적황빛, 자주빛으로 질게 물든 나무들이 이따금 불어 오는 산산한 가을바람에 와스스 몸을 떨며 잎사귀에 맺힌 이슬방울들을 뿌려 던지는 상쾌한 가을날의 아침이다.

나는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맑고 청신한 새벽공기를 마음껏 들이키며 마을길을 천천히 거닐었다.

둥둥둥... 쾅창, 쾅창...

고요한 새벽대기를 흔들어 깨치며 산골짜를 쨍쨍 울리는 북소리, 쾅파리소리에 놀란 나는 고개를 쳐들었다.

저쪽 건너다 보이는 봉긋한 언덕의 과원, 이제 는 잎이 다 떨어 지고 가지만 남은 과일나무들사이로 난 길을 따라 주련이 늘어 서서 올라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엷은 안개발속에 바라보였다.

산촌의 정열적인 마가을단장에 도전하듯 온통 불긋불긋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북이며 장고들을 메고 흥이 나 웃고 떠들며 올라간다. 간혹 전형적인 민족옷차림에 상모를 쓴 사람도 두엇 보이는데 점점 높아 지는 북소리, 쾅파리소리에 맞추어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며 모자끝에 매단 긴 맹기를 신바람나서 돌려 댄다. 저 너머 학교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작업반별 체육경기대회에 가는 사람들의 행렬이다.

출장지에서 돌아 오던 내가 오래간만에 작은 할아버지네가 사는 이곳, 평양에서 천수백리 떨어진 여기 산골마을에 들린것은 어제.

한데 바로 오늘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이 마을을 다녀 가신 뜻 깊은날이었다. 그래서 어제는 도와 군에서까지 사람들이 내려와 보고회를 가졌고 오늘은 리적인 체육대회를 한다는것이다. 어제밤 늦게까지 웅원에 쓸 가장물을 만든다, 선수들을 선발하고 경기전술을 짠다 법석이더니 오늘은 모두다 새벽에 떨쳐나 저렇게들 흥이 나서 경기대회장으로 떠나가는것이다.

작은할아버지네 집에 돌아 오니 나의 6촌형님을 비롯한 온 가족이 체육대회장으로 갈 준비를 하느라 북적북적대고 있었다.

팔손을 바라보는, 이 마을의 최상인 나의 작은 할아버지도 마당에 내려 서서 이것저것 거들며 주며 재촉을 한다.

《늦어 지겠다. 저것 보라. 다른 작업반들은 벌써 올라 갔는데... 아, 규률점수가 제일 높았는데 그러다간 꼴찌하겠다. 원, 쫓쫓.》

머리는 하얗게 섰으나 아직 정정하고 기력이 넘치는 작은할아버지이다.

또다시 북소리, 쾅파리소리가 골안을 울리기 시작했다. 명절처럼 화려하게 차려 입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들었다. 모두들 신바람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조무래기아이들도 덩달아 동 떠서 이리저리 뛰어 다닌다.

작은할아버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 세워 놓고 마을의 좌상답게 훈계를 한다.

이 사람 반장, 꼭 1등을 해야 하네...

2분조장, 자넌 덤비는게 탈이야. 오늘 경기에선 침착하라구...

작은할아버지의 잔소리에 모두들 싱글싱글 웃는다.

예, 예 할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이윽고 모두들 떠나 갔다. 북을 치고 쾅파리를 울리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6촌형님은 나를 보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천천히 따라 오라며 떠나 갔다.

점점 멀어 저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작은할아버지에게 물었다.

《모두들 명절분위기로군요.》

《명절, 암 명절이지. 이 골안에 태를 묻고 사는 사람에게야 제일 큰 명절이지.》

《명절! 명절!》

작은할아버지의 말을 받아 외워보느라니 저도 모르게 생각이 깊어 진다.

명절, 명절은 어떻게 오는것인가.

어른도 아이들도 야릇하고도 달콤한 흥분속에 가슴 조이며 기다리는 명절.

명절은 과연 어떻게 오는것인가,

평범한 날 이름 없는 심산유곡의 자그마한 산간마을에서 뜻하지 않게 명절분위기에 휩싸이고 보니 어쩔수 없이 갈마드는 생각이였다.

우리에게는 명절, 기념일들이 많다.

우리 당과 공화국이 창건된 날을 비롯해서 해

방절, 전승절... 자기 공장, 자기 마을에 대한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기념일...

하다면 이 많은 명절, 기념일들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그러자 어제밤 작은할아버지가 들려 주던 이야기가 그 어떤 그림처럼 눈앞에 삼삼히 그려 진다. 이 마을의 뜻 깊은 명절로 아로새겨 지게 된 선 다섯해전 바로 이날의 이야기가...

지도에 이름조차 없던 이 산골마을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 오신것은 해방된 그해, 지금같이 추수가 끝난지도 이숙한 어느 가을날의 늦은 오후때였다.

그때... 해방과 더불어 마음이 들썩해진 이 마을사람들은 왜놈들의 등쌀을 피해 화전을 쫓겨 먹으며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못살 이 땅을 떠나 멀리 두고 온 고향으로 하나 둘 돌아가고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 오신 그날, 바로 그날도 작은할아버지를 비롯한 마을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찾아 어떤 행운이 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작은할아버지네 집에 들리시여 토방에 대충 꾸러놓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사집들을 가슴 아프신 눈길로 둘러 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이 골짜기에도 사람들이 산다길래 이렇게 찾아 왔는데 다들 떠나간다고 말씀하시였다.

너무도 돌이 많고 땅이 척박해서 떠난다고 작은할아버지가 말씀 올리자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산너머 먼 북쪽하늘가를 이윽도록 바라보시다가 돌이 많고 척박하기 이틀데 없다 해도 우리 조국땅이라고, 이 땅을 찾자고 우리 동무들이 산설고물설은 저 만주산야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른다고, 우리 선렬들이 피로써 찾은 이 땅을 버리지 말고 살기좋은 땅으로 만들 방도를 같이 찾아보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누덕누덕 기운 치마자락이 부끄러워 엉성하게 쌓아놓은 이사집뒤에서 나올줄 모르는 나의 작은 할머니에게 물 한그릇 청해 드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마을어른들을 이끄시고 험한 산고개를 몇번씩이나 오르내리시며 마을이 살아 갈 방도를 의논해 주시였다.

장마철마다 범람하군 하는 옥계천기슭엔 제방을 쌓고 돌이 많은 앞내밭엔 흙을 날라다 칸 다 음 물을 끌어 논을 풀며 석재덕엔 과일나무를 심고 마을앞 산골짜기에는 자연방목지를 꾸려 짐승을 기르고... 그러시느라 밤이 깊도록 횃불까지 켜드시고 언덕길, 강변길, 산비탈길을 걸으시다가

새벽녘에야 떠나 가신 어버이수령님. 이제 마을이 소리치며 잘 살게 될 때 꼭 다시 오시겠다고 굳은 약속을 남기시고서...

정녕 명절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 것인가.

이 마을사람들이 그리도 기뻐하며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는 이 명절은 어떻게 생겨 난 것인가.

다시 또 다시 굴러 보는 생각속에 밝혀 오는 산촌의 모든것!

저 기름진 앞내벌이며 무성한 과수원, 준비하게 늘어 선 문화주택마을... 이 모든것이 어버이수령님의 것처럼 바쁘시고 힘겨우신 그 하루의 로고속에 태어난것 아닌가!

그렇다. 우리들이 그토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맞고 보내는 명절의 하루하루는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을 위한 가장 바쁘고 힘겹고 로고에 찬 하루하루에서 생겨 난 것이다.

아니, 어찌 하루뿐이라.

8.15해방을 위해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간고분투, 풍상고초의 날과 달들을 생각해 보라. 무려 20성상에 이르는 그날과 날들에서 해방의 그 아침이 밝아 온것 아니던가. 9월 9일, 10월 10일, 7월 27일, 4월 25일... 이 나라 방방곡곡 어느 공장, 어느 농촌의 현지도기념일도 마찬가지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뜻을 이어 인민을 위해 바쳐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속에 우리의 명절은 오늘도 계속 태어나고 있거늘.

우리가 레사로이 맞고 보내는 그 명절의 하루하루에 깃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는 수천수만날에 이른다.

하다면 우리는, 나는 해마다 맞는 날이라고 너무나도 레사로이 그 명절의 하루하루를 흘러 보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어느덧 나와 작은할아버지는 어느덧 리소재지마을 한가운데 정중히 모셔 진 어버이수령님의 현지도사적비앞에 섰다.

이름 없는 산간마을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자욱을 길이 전하며 서 있는 사적비.

사적비앞에 놓여 있는 산촌의 이름 모를 들꽃뭉치들, 아직도 함초롬히 이슬에 젖어 싱싱한 향기를 풍기는 꽃잎들...

저기 운동장에서는 와- 와- 흥에 뜬 사람들의 웃음소리, 함성소리가 울려 퍼지고 축구공이 하늘높이 날아 오른다.

그 웃음소리와 함께 더욱더 깊어만 지는 나의 생각...

양어장에 오신날

최충웅

새로 건설한 바다가 양어장에
장군님 오신 날
기쁘시여 너무 기쁘시여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호수마냥 끝없이 펼쳐진 양어장을
한눈에 훑어 보시네

못마다에 그득하니
새끼고기들 노는 모습도 보아 주시고
몹소 고기먹이도 뿌려 봐 주시며
만족하시여 못내 만족하시여
치하의 말씀 해주시던 장군님

문득 물으셨네
사료문제는 어떻게 풀려는가고...
자체로 풀어 보겠다는 대답 들으시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더니
걱정 말라고
자신께서 다 맡아 풀어 주겠다 하시네

바다를 끼고 있어

바다물고기만 알고 있던 우리들에게
민물고기도 먹이시려
큰 양어장설계도 보내주시고
오늘은 양어장에 친히 오시여
사료문제까지 걱정해 주시며
자신께서 그 일까지 다 맡아 안으시니

인민의 새 기쁨이 시작되는 곳에서
인민 위한 장군님의 걱정은
또 시작되는가
양어장에 오신 이 기쁜 날조차
인민의 더 큰 기쁨을 위해, 행복을 위해
새 시름을 또다시 안으시고
사랑의 길 떠나시는 우리 장군님

아 위대한 그 사랑에 목 메여, 목 메여
양어장은 달려 가고 바다는 달려 오고
서로 맞붙어 끌어 안고
흐느끼고 있었네
흐느끼고 있었네

나는 철의 도시 행복한 녀인이예요

럼형미

저 애가 바로
눈매 부리부리한 얼굴에 검둥이 칠한
저 사내애가 바로 내 아들이예요

불의 고장에 태어나선지
그저 불장난밖에 몰라요
놀음도 밤낮 쇠물... 용해공놀음

밤 늦도록 들어 오지 않는 장난꾸러기
어둠속에 찾아 내어 듭쑥 안고 올 때면
아, 나는 왜 그리도 행복스러울가요

이 나라 사나이들중에서도
제일 억세고 뜨겁고 강의한
철의 도시 대장부를 내 낳아선가요

조국의 전초병, 개척자, 밀뿌리
그 위대한 부름에 대답할
하나의 용사를 내 품에서 떠올려선가요

아아, 사품치며 끓는 심장의 쇠물로
강성대국의 굳건한 강철기둥을 부어 가는
나는 엄마-철의 도시 행복한 녀인이예요!

차번호 《만-하나》

김창수

(전호에서 계속)

4

그러나 혜선은 그때로부터 나흘이 지난 후, 그것도 한밤중에야 준섭이를 만나러 갈수 있었다.

그 사이 쉬 나다니기 멋진 일이 하나 생겼던 것이다.

혜선은 전날 지하수때문에 바빠 놓는 구조물 주변 한군데 토질이 별로 무른것이 걱정이었어서 나무기둥들이라도 박을양으로 러단제재소 마당에 참나무들을 실어다 놓았었다.

그런데 현장방송에서는 어찌자고 그러는지 별안간 그 참나무들을 박달나무들로 둔갑시키더니만 이런 만년대계 고임돌이 어디 있느냐고 뱀다며들어 대기 시작했다.

혜선은 닭의 살이 돋는것만 같아 곧 송수화기를 들고 사실대로 방송해 줄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처럼 겸손한 지휘관이 어디 또 있겠느냐고 노래까지 받쳐 가며 더 열을 올리는 것이었다.

혜선이 참을수 없어 막 찾아 가려는데 시공참모가 그의 팔소매를 조심히 쥐더니만 제재소마당에 박달나무들이 나타난것은 사실이라 했다.

혜선은 열길 뛰며 누가 그랬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그 소행의 임자는 알길이 묘연했다.

남의 등에 업혀 산에 오른것 같은 생각...

남의 얘기 사흘 안한다고 그 말도 사흘쯤 지나니 증증해 졌다.

하여 혜선은 이 밤에야 망신보따리에서 풀려난듯한 심정을 느끼며 총총히 떠날수 있었던 것이다.

옥사봉아래 별빛을 이고 다소곳이 었드려 있는 수리소대 작업장이 보이자 혜선은 홀연 가슴이 전기에라도 닿은듯 찌르르해 나는것을 느끼었다.

준섭이... 그가 와 있다고 하기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작업장이 었다.

아마 얼굴이 낯양푼처럼 둥그런 수리소대장이 그의 고충을 제 먼저 알아 차리고 은혜라도 베풀듯 이제부터 수리소대일은 자기한테 다 맡기고 《만-하나》공사에만 전념하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혜선은 남몰래 피로와 했을런지도 몰랐을 것이었다.

이른봄이라 퍼렇게 언 밤하늘에서는 별들이 찬

바람에 씻기우며 부서지듯 줄곧 떨어졌다.

수리소대쪽으로 부지런히 걸던 혜선은 문득 이쪽을 향해 논두렁길로 한쪽 다리를 끌듯 하며 힐금씩금 다가오고 있는 수리소대장을 보자 멈춰섰다. 소대장도 그를 띠여 본듯 더 바빠 다가오며 자기네 소대로 기어이 오는가고 묻더니 다소 덜 통한 어조로 계속했다.

《거... 그 친구 틀려 먹었던데요.》

혜선은 밀도 끝도 없는 그의 말이며 한쪽 다리를 저는것이 놀라와 눈을 크게 뜨고 서 있었다.

소대장은 한쪽 신발이 없어 다리를 전다는듯 양발만 신은 발을 들었다 놓으며 계속했다.

《이제 다 그 친구때문이라니까요.》

《도대체 누굴 그렇게 욕하는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리준섭이지.》

혜선은 대뜸 숨소리마저 가무리었다.

그리고 그는 이 쌀쌀한 한밤중에 소대장을 맨발로 걸게 만든 준섭의 잘못이 어떤것인지 아직은 알수 없었으나 가렵던 곳을 긁어 주는것만 같아 저으기 개운해 나는것을 어찌는수 없었다.

혜선은 자기가 래일중으로 대장까지 다 만나게 될런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어서 계속하라는듯 수리소대장의 얼굴을 끝추 바라보았다.

수리소대장은 오늘 지하수때문에 서둘러 놓고 있는 배수로구조물공사장에 이동수리를 나갔었다.

그는 그곳에서 타임전투에도 참가하여 일을 돕던중 그만 몰탈속에 한쪽신발을 먹히었다.

그곳 대원들은 좋아라 웃으며 새 신발을 당장 가져다 준다고 법석했다.

바로 그때 어디갔다 오는지 송탄유냄새가 물씬 풍기는 배낭을 걸머 진 준섭이가 그들앞을 우뚝막아 서며 신발을 몰탈속에 묻어 놓고 새 신발을 가져 온다는게 무슨 소린가, 어서 몰탈이 굳어지기 전에 그것을 찾아 내야 한다면서 속히 삽들을 들라고 웨쳐 댔다.

대원들이 얼떠름해 지자 그는 더 큰 소리로 웨쳐댔다.

《구조물이 병 들수 있단 말이요!》

《콩크리트가 병 들다니?》

《헛하-》

드디어 모두 요절할듯 웃어 대는데 지원자 리준섭은 여전히 쑥스러운줄도 모르고 더 피대를 돌구는것이였다.

《콩크리트구조물이란 보긴 돌덩이 같애두 사람의 몸과 비슷하오. 온도가 40℃만 넘어두 뚝 뺨개져나가구 !》

《...》 웃음소리가 잦아 드는것이 알렸다.

《그러니 구조물속에 신발이 하나 잠겨 있는게 몸뚱이안에 파편이 하나 박혀 있는것과 뭐가 다르겠소. 언젠가는 앓을수 있소.》

《허허참, 그거야 몇백년후만에 한번 그럴지 말지... 답답하구만!》

누군가 짹 짹 웃어 대며 이러자 준섭은 자기가 결사로 거뤄야 할 적수를 드디어 골라 잡기라도 한듯 그앞으로 무섭게 다가들더니 들부시는것같은 어조로 말했다.

《<만-하나>대원의 입에서 그런 쓸개 빠진 소리가 나오다니?... 동문 여기 있을 자격이 없소!》

대뜸 자라목이 되는 그의 모습은 가엾었다.

준섭은 한마디 더 할듯 하더니 그의 삽자루만 나꿔채듯 빼앗아쥐고 수리소대장을 향해 물었다.

《일하던 곳을 딱히 찍어 줄수 없겠습니까?》

순간 수리소대장의 눈에서는 자기 얼굴을 개떡으로 만들어 놓은데 대한 본격의 웨침 이상의것으로 빛발쳐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준섭은 그따위것은 다 자기가 알바가 아니란듯 몰탈을 뿌리며 돌아 가기 시작했다.

수리소대장은 그가 자기 얼굴을 직접 뿌리며 돌아 간대도 이처럼 창피하지 않을것 같았다. 그는 그 이상 더 참아 낼수 없어 자리를 뜨고 말았다....

기대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던 혜선은 갑자기 실망스러운 마음이 밀물처럼 밀려 드는 바람에 한숨을 내그으며 어깨를 떨구었다.

그러나 수리소대장은 더욱 불만이 부영게 내뿜힌 어조로 말하는것이였다.

《정말 민한 친구더구만요. 참모장동무가 왜 한사코 그 친굴 싫다 하는지 다 알듯 하...》

비릿한 역겨움이 불쑥 목을 밀어올리는 바람에 혜선은 저도모르게 웨쳤다.

《그런건 탓하는게 아니예요!》

《아니?》 놀라는 그의 모습이 더 역겨웠다.

정녕 혜선은 어떤 난쟁이와 여직썰 시시덕대며 즐거워한듯한 수치감을 금할수 없었다.

수리소대로 올 때까지 소대장에게 눈 한번 주게 되지 않았다. 대신 그가 것처럼 타매하던 준섭이가 혐오스러운 너울을 한꺼풀 벗어 붙이며 눈바투로 읊칠 다가오는것을 뿌리칠수 없었다.

이 예상치 않았던 마음속 잔파도는 소대장이 신발을 바꿔 신으려 숙소로 가고 자기 홀로 수리소대 작업장을 돌아보다가 대대의 수치로 락인된 현차앞에 마주섰을 때 아주 큰 격랑으로 일어번지고 마는것이였다.

차는 이미 현차가 아니였으며 어떤 너절한 마

음이 있어 끌어 왔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깊은 정성이 처처마다에 깃들어 있었던것이다. 그리고 쪽무이마냥 술한 판자들을 이어 알심있게 세면으로 둘러 친 적재함이며 이제 차번호를 새길양으로 파랑게 칠한것이며 한 인간의 새로와 진 참마음에 대하여 너무도 많은것을 속삭여 주며 은근히 빛을 뿌리고 있었기때문이었다.

혜선의 마음은 더욱 큰 파도를 타고 마구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가 자책으로 끝날 마감을 예감하며 조바심을 느낀다는것을 알았으나 강하게 부정했다.

(아니야. 나는 그만 조금 놀랐을뿐이야. 그렇잖구. 저 차를 봐도 그래. 대대장이 된다니까 우리 대원들의 환심을 산 심산으로 저렇게 잘 고쳐왔겠지 아무렴 주인에게 돌려 주자고 그랬겠어. 그 동문 이번에도 생활에서 만에 한번쯤 어지러운 생각을 품는건 결함이 아니라고 보는 자기 인생관을 다시금 날날이 드러내 놓은거야. 그런데도 대대장자격이 있다구? 우리 대델 뭘로 만들려구? 대장동지가 눈이 멀었지.)

혜선은 자기가 이런 사색을 더듬으며 마음속 신념도 새로 더 굳히였고 결심 또한 가슴속깊이 새로 더 몽그러 넣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잠시후 혜선은 아직 뭔가 미진한것이 있는것 같은 심정을 어렴풋이 느끼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자 사뭇 놀라며 어리둥절해 지지 않을수가 없었다.

왜 그럴까? 이번에도 자기 멸시를 받게 되는 준섭이가 불쌍해서일가?

혜선은 아마 그 순간 까닭없이 자기 등어깨쪽에서 아픔이 되살아 나고 아직은 며칠 종이 퍼내야 할 썩돌무지가 눈앞에 덩그렇게 떠오르지 않았더라면 새차나 다름없이 된 저 《현차》 때문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였을런지도 몰랐을것이였다.

그랬다. 자기는 준섭이를 속시원히 떼버리는 대신 저 훌륭한 운수기재는 영 잃어 먹어야 하는 것이다.

아쉬움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검질긴 유혹이 강행군의 나날에 그리운것이 턱없이 많아 진 너지 휘관의 심장을 덩석 문것이였다.

혜선은 조금후에야 그것이 준섭의 병든 사상이 자기의 의식속에도 기여 든것이라는것을 알았는데 깨닫는 순간 어떻게나 놀라왔던지 앓소리를 치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번 하였다.

정녕 그는 그때 병실로 갔던 수리소대장이 자기결로 바빠 다가오며 말을 걸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 퍼터앉아 울음을 터뜨렸을런지도 몰랐을것이였다.

《견물생심이라고 차가 쓸만해 가니 마음이 달

라지는게 아닙니까?)》

혜선이가 당황해 하자 소대장은 노래라도 부르는것 같은 어조로 계속했다.

《하기야 손수레가 님보다 더 그리운 때 누군들 탐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전날… <청춘려단>으로 분연 출도했습시다.》

혜선은 질책과 호기심이 뒤엉킨 눈길로 돌아보았으나 소대장은 여전히 찰진 어조로 말했다.

《마침 요즘 거기 려단장이 소환되고 내 친구인 참모장이 대리사업을 하고 있어 별로 어렵지 않게 대답을 받아 낼수 있었습시다. 준섭동무의 수고를 봐서 차는 우리가 아주 쓰기로!》

혜선은 또 한결음 그한테로 이끌려 가는 자신을 뚜렷이 의식하며 다소 거칠게 말했다.

《그 동무의 생각이 어쩔는지 모르구 제멋대로 그래서야 쓰겠어요?》

《뻔하지요. 흥운반분대쯤 하나 말기면야… 사람이란 워낙 자신부터 생각하기 마련이 아닙니까.》

혜선은 다시금 난쟁이와 마주서는것 같은 심정을 뚜렷이 의식했다. 그러나 자기는 어쩌서 아까와는 달리 그냥 코를 맞대고 서서 그한테서 뭔가 더 알아 보지 못해 감질이 나 하는지 통 알수가 없었다.

《그런 생각을 그 동무도 하고 있으리라고 믿는건 주관이에요.》

《헛참, 제 낮내기밖에 모르는 친구가 자기 분덜 망신바가지에 들게 하자구 차를 남 줘요? 그 공명심 누구도 감히 흉내를 못 낸다니까요.》

혜선은 드디어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자리를 뜨게 되는 자신이 너무도 놀라와 다시금 버럭 중을 냈다.

《설혹 그렇더라도 동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건 실례예요. …내부문건들이나 좀 봅시다.》

수리소대장은 그제야 자기네 녀지휘관이 그 아무리 겉으로는 아달맹이 차돌인체 해도 자기는 이미 허물어 내리기 시작한 그의 가슴속 모든 곳을 다 들여다 보고도 남았다는듯 활짝 웃으며 자기 방으로 앞서 달려 들어 가는것이였다.

5

방에 따라 들어 와 소대장이 내놓는 문건들을 쥐려고 손을 내밀던 혜선은 책상위에 이런데선 좀해 볼수 없는 원고지가 눈에 띄이고 뒤이어 거기에 마지크로 휘갈겨 쓴 굵직한 글발도 밝히자 저도 모르게 읽기 시작했다.

-실화문학. 건설장의 자랑 리준섭동무-

혜선의 마음이 화약처럼 터지는데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소대장이 서류장문을 닫고 돌아 서기도 전에 그의 뒤통수를 호되게 후려 치며 터져 올랐던것이다.

《여우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수 있어요?》

《아니? 왜 그러니까?》

혜선은 말없이 지시손가락으로 원고지를 찢었다.

《아, 그건… 대장동지의 글입니다!》

혜선은 갑자기 둔한 타격이라도 받은듯 아찔했다.

그래서 그는 대장이 《청년전위》사의 청탁을 받고 이 글을 썼으며 준섭이를 데리고 있는 자기한테 방조를 받고 싶어 아까 저녁때 원고를 보내왔으나 자신은 우선 정식 돌격대원이 아닌 사람을 내세우려 하는것이 마음에 안들고 원형 또한 잘못 잡은것 같아 아직 읽지도 않았노라는 수리소대장의 말을 꿈결에서처럼 간신히 알아 들었다.

혜선은 대장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어서 원고를 읽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머리속이 온통 뒤죽박죽이 된때문인지 거기에 뭐라 씌여 있는지조차 가려 볼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글줄들에서 박달나무라는 글발이 얼핏 망막을 스치는 순간 매우 놀랍게도 모든것이 갑자기 별발이 고른 날 목표를 내다볼 때처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것을 어찌는수 없었다.

---나는 그때 준섭동무에게 박달나무기둥들을 박는다고 참나무기둥보다 얼마나 더 로반기초가 좋아 지겠는가, 그저 조금밖에 나아질게 없으니 고생할 생각 말고 어서 차수리나 끝내라고 했다. 그런데 말없이 돌아 왔던 그가 그 밤으로 자기 고향 립산사업소로 떠났을줄이야.… 가서 거기 로동계급들을 불러 일으켜 박달나무들을 심고 왔을줄이야…

나는 그때 그의 두손을 힘주어 잡으며 물었다.

《어쩌면 그리 만년대계정신이 투철한가?》

그는 쑥스러운듯 뒤더수기를 굵으며 대답했다.

《한 녀성한테서 배운건데… 사랑까지 잃으면서 말입니다.》

《영? 사랑까지 잃으면서?!》

나는 그 순간 만세대살림집건설때 친구로 사귄 후 여기까지 그를 데리고 온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했다. 사실 나는 그를 내결에 두고도 싶었거니와 그에게 꼭 알맞는 일감이 생겨 불렀던것이다.

그런데 이런 난감한 일이라고야… 그 일감엔 자기보다 더 알맞는 녀성이 있다고 한사코 거절해 나서고 있으니… 자기는 그저 평대원으로 일하면서 그 녀성한테서 더 배우겠다는것이다.---

혜선은 자기가 원고를 읽다가 언제 밖으로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단지 문을 열었을 때 그림자가 자기보다 먼저 밖으로 멀리 앞서 달려

나가던 생각만이 날뿐이었다.

그리고 언제 러단제재소로 향했는지도 기억되지 않았다. 그저 그 애물단지인 박달나무들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만이 머리속에 짙어 있을뿐이었다.

어둠이 모든것을 겹겹이 에워 싸고 있어 그 나무들을 인차 알아 볼수가 없었다.

더 다가가니 희벗한것들이 보였다.

그런데 누군가 거기서 허리를 접이칼처럼 굽히고서 무슨 일인가 하고 있었다.

누굴까?

문득 혜선은 자기 코밑으로 송탄유냄새가 훅 끼쳐 오자 화뜰 놀라며 굳어 졌다.

송탄유... 배낭에 지고 나타났더라는 수리소대장의 말... 뒤이어 《준섭이다!》 하는 소리가 퇴성처럼 귀청을 메웠다.

혜선은 달아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발이 얼어 붙은듯 통 움직여 낼수가 없었다.

밤인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그러나 그는 먹물을 풀어 놓은것 같은 어둠속에서도 준섭이가 지금 박달나무들에 송탄유를 알심있게 칠해 가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으며 과일향기마냥 은은히 풍겨 오는 그의 만년대계정신도 너무도 잘 감수할수 있었다.

줄후에 혜선은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그는 그길로 공사장으로 달려 나가 썩돌마대를 둘러 지고 우황 품은 황소마냥 씩근거리며 달렸다. 다시는 준섭이를 만나려 하지 않을것이다.

그 엉큼한 대장도 만나려 하지 않을것이다.

대대장으로 올테면 오고 보낼테면 보내라지.

그러나 준섭이는 절대로 스스로 찾아 오진 못 할것이었다. 그저 영원한 문전기권자로 살다 떠나가 버리고 말것이었다. 그러니 이것으로 전날 계획을 종결 짓는수밖에... 후유, 강낭떡이 속 달군다더니만...

혜선은 이런 생각을 하며 반시간가량 더 일하다가 지휘부로 돌아 왔다.

먼지를 가볍게 털고 사무실로 들어 서던 혜선은 보통키의 한 청년이 의자에 올라 서서 천정에 바투 매달렸던 축수 낮은 전등을 밑으로 좀 내리우는 일을 하다가 싱긋 웃으며 아는데 하자 잠시 누군가 하는 낮빛으로 서 있었다. 그러다가 홀연 송탄유냄새가 가볍게 풍겨 오고 그 청년이 벗어놓은 신발결에 몰탈을 뒤집어쓴 또 한쪽의 신발도 눈에 띠우자 혜선은 소스라쳐 놀라며 하늘에서 내려 오는 불벼락이라도 쳐다보듯 그 청년을 올려다 보았다.

준섭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러나 혜선의 가슴속에서는 경계심만이 날카롭게 살아 올라 바짝 당겨 진 활시위마냥 푸르르 떠는것이었다.

준섭의 눈동자도 천천히 굳어 지고 있었다.

하여 그들이 지키는 예리한 침묵과 허공중에서 부딪치는 눈길들로 해서 방안공기는 부웅소리가 날만큼 팽배해졌다.

만약 그때 준섭이가 의자에서 내려 서려다가 뒤로 자빠질변 하고 그 모습이 하도 위태로와 혜선이 황급히 붙들려 하는 뜻밖의 일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더 오래도록 불쾌한 침묵을 지키며 서있었을런지도 몰랐을것이었다.

《아, 그러지 마십시오. 일 없습니다.》

처지는 좀 바뀌었지만 너무도 첫 상봉때의 일을 방불케 하는것이어서 두사람은 천리 멀던 자기들사이가 퍼그나 가까와 진듯한 느낌이 드는것을 어찌는수 없었다.

《히, 이거 참... 이 건설장에서 다시 만날줄 모르구... 지금도 안울수 없는 일이 생겨서 그만...》 준섭은 사죄라도 하듯 머뭇거리었다.

《안됐어요. 와 있다는걸 알면서도... 한데 안울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건? 송탄유를 칠했다는것까진 벌써 다 알고 있는데?》

혜선은 감사하나 이 밤중에 그걸 구실로 만나려온것은 반갑지 않다는 기색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보이며 물었다.

준섭은 대척 않고 수리소대장의 신발만 집어들었는데 그 행동은 흡사 그때위나 알려려 한쪽 신발이 없이 다니는 사람을 뒤로 밀어 놓고 여기부터 올 위인인줄 아는가 한마디 맵짠 불만이라도 토하는상 싶었다.

잠시후 준섭은 높지 않은 소리로 물었다.

《듣자니... 돌로 메우자는 논의도 있었다던데... 왜 부정되었는지 전 그걸 알고 싶어 왔더랬습니다.》

혜선은 옛일과 관련된 말이 아닌것이 다행스러웠으나 그 말뒤에 비낀 새로운 위협이 다시금 칼끝처럼 마음을 위협하는것이어서 여전히 쌀쌀하게 응답했다.

《왜랄게 있어요. 운수설비도 부족하니...》

대신 판 대책들이... 섰다는거야...》

혜선은 나무기둥소리를 하기가 멋적어 이렇게 얼버무리고 말았다.

준섭은 손바닥만한데다 나무 몇대를 박을 차비를 해놓고 자랑질부터 하려 드는것이 부끄러운듯 미간을 흐리며 계속했다.

《물은 전구역에 흐르던데... 거기도 빼놓아선 안될줄로 압니다.》

《...조금씩... 흐르는데도 말이지요?》

《조금씩 흘러두 흙은 물을 먹울것이구... 그러면 청석 같은 돌에 비해 어방없이 약할것이라는 거야... 아니 제 꼭 동무앞에서 이런 말을 자꾸 해야 하겠습니까?》

혜선은 불쑥 서슬 푸른 날창 같은것이 눈앞으

로 육박해 오는듯한 감을 느꼈다. 그는 분명 준섭의 눈길에서 옛 사랑의 여한이 아닌, 새로 움켜쥔 신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 차며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달리 하거나 새로 시작도 하지 않으려 하는 한 인간의 무죄쪽 같은 새 결심을 읽었던것이다!

하여 혜선은 물리는 심정으로 황황히 말했다.
《다시 토론해 보겠어요. 아니 당장 제기하겠어요.》

혜선은 자기가 혀로 아니라 의지로 말한것은 세상에 태어나 이번이 처음이라고 눈물을 삼키며 생각했다.

준섭은 기쁜듯 얼마간 명상에 잠겨 말했다.

《이제 아마 사람들은 그 길로 해서 21세기로 들어 서러 할런지 모를겁니다. 것처럼 깨끗한 길은 없을테니까요. 허-》

혜선은 한순간 자기 눈곱쪽이 싸아하니 매워나는것을 느끼며 섰다가 물었다.

《그런데 그 청석은 어디서 가져 온다는건지? 제 알기엔 5리주변에는 없는것 같던데?》

《웁습니다. 10리밖에 있습니다. 돌팡산에서 버린.》

혜선은 불쑥 격한 걸음으로 다가섰다. 10리가 5리보다 그리 먼게 아니라는 준섭의 늘어진 어조가 그의 분통을 터뜨렸던것이다.

《어쩔 그리 쉽게? 지금 운수기재도 없이 어떤 고생들을 하고 있길래 그렇게 홀?》

혜선이가 진짜로 울부짖고 싶어 하는 말들은 토막나 버리고 만 그 뒤말들에 더 많이 남아 있는듯 하였다.

《아, 아 저도 실은 차수리나 끝내고선 썩돌이랑 같이 나르면서 토론해 보자 했됐습니다.》

준섭은 당황해 하며 계속했다.

《그런데 매물공사가 당장 시작되겠더군요. 그래 이렇게 홀 달려 든겁니다. 여기야 만에 한번 그럴지 말지 한것두 천만금으로 소중한 사주는 <만-하나>본적지가 아닙니까.》

혜선은 준섭이가 뭔가 드센것으로 입은 물론 사유하는 기관들마저 다 봉쇄해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상 지금 그의 뇌리속에서 사색의 점선을 가까스로 긋고 있는것은 자존심이 물어 뜯기운듯 하여 몹시 불쾌하다는것과 옛 사랑을 잊지 못해하는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한것때문에 매우 서운하다는것뿐이었다.

준섭은 얼름름해 하는 그와 더 마주 서 있고 싶지 않은듯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다.

그가 전등을 밑으로 내려 놓은 탓으로 방안은 대낮처럼 밝았으나 혜선은 천길나락밑에 홀로 나앉은듯 못내 어둡고 무거웠다.

6

요즘 혜선이네 대대에서는 찾는것이 돌이였고 안고 다니는것이 돌이었다.

현장휴계실을 열고 그 밑에 고였던 돌들마저 《만-하나》공사장주변에 묻고 있어 사람들은 감동을 금할수 없어 했다.

《정말 만년대계 영웅들이요!》

어디서나 그들에 대한 칭찬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떠들수록 사뭇 웅색해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혜선이었다.

그는 어째서 자기가 준섭이와 약속한대로 돌팡산에서 청석을 날라 올 생각을 않고 공사장주변에 널려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돌로 우선 대처하려하는지 아직은 그 이유를 잘 알수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수리소대 부소대장으로부터 준섭이가 이자 막 차수리를 아주 다 끝내고서 《청춘려단》에 차를 인계하는 간단한 모임을 하나 조직해 줄것을 제기했다는 전화를 받았을적에 자기는 여직껏 남모르게 기다린것이 바로 그 차였으며 만약 그것이 자기네 공사장으로 못 오는 경우 자기는 청석문제를 다르게 결심할 속심으로 그랬다는것을 너무도 명백히 깨달았다.

한순간 뜨스한 홍조가 볼을 스쳤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짧은 순간에 불과했다.

가슴을 헤집듯 하며 달려 드는 준섭이에 대한 야속한 감정이 너무도 강렬했기때문이었다.

(애당초 마주 서지부터 말았어야 하는건데... 모든건 그저 그 수리소대장때문에...)

혜선은 오늘의 이 수치를 몰아 온것이 바로 그 수다쟁이때문이라는 생각이 새삼스러워 그만 지금 회의중이라는것마저 잊고 어성을 높였다.

《당장 소대장을... 바꾸지 못하겠어요?》

부소대장은 잠시 둘러 델 말을 고르는 기미더니 지금 전화를 바꿀 형편이 못돼서 그런다고 했다.

혜선은 더 바싹 약이 올라 소리 질렀다.

《비굴하게 피할 생각 말고 당장 나서라 해요!》

《야, 정말... 쓰러진 그 동물 업구... 려단군의 소로 가서 그러는건데...》

《뭐, 뭐 누가 어떻게 됐다고요?》

혜선은 급히 이쪽 귀로 송수화기를 옮겨 오며 웨쳐 물었는데 그 모습은 흡사 연방 덮쳐 드는 놀라운 소식들을 한쪽귀로만 다 받아 들이차니 너무 빠근해서 그러는상 싶었다.

부소대장은 소대장이 이 사실만은 아직 보고하지 말렸지만 할수 없어 알린다면서 준섭은 그 사 이 몇밤을 새우며 차수리에 정력을 쏟아 붓다나니 건강이 매우 나빠 졌다는것, 《청춘려단》에 차 인계모임을 조직해 달라고 제기할 때에도 꺼져가는 소리로 겨우 말하더라는것, 그런데 소대장

은 그 죽어 가는 사람한테 어찌자고 그러는지 옥설을 퍼부어 대며 먹살까지 들더라는것, 하자 준섭은 아연실색해 하더니 담배불에 달렸던 재가 스러지듯 두무릎을 푹 꺾으며 쓰러지더라는것, 바빠 난 소대장은 자기가 직접 둘러 업고 려단군의 소로 달리면서 참모장한테 차가 튀었다는 보고만 하라고 지시했다는것, 그러나 자기는 준섭이가 후송중에 잘못돼도 그렇고 해서 그의 친구인 대장한테만은 사실대로 직보했노라고 실토했다.

혜선은 한순간 예리한 면도칼날로 심장을 복내리긋는듯한 아픔을 느끼었다.

전날밤 그를 만났을 때에도 자기는 분명 그의 입술에 통이 진것을 보았었는데 어째서 그를 위한 인정의 문은 그리도 꼭 닫아 매놓고 있었던지 지금 생각해 봐도 부끄러워 견딜수가 없었다.

혜선은 죄스러운 어조로 지휘관들에게 말했다.

《안됐지만 얼른 군의소에들 좀 가주세요.》

그들은 밖으로 내던져 진 사람들처럼 달려 나갔다.

혜선은 일어날 기맥도 없어 그냥 앉아 있었다.

(그 동문 왜 와가지구…)

원망으로 웅어리 진 싸늘한 감정이 다시금 가슴속으로 기어 들어 자리를 찌는것이 알려졌다.

그와의 일은 아무쪼록 이것으로 다 끝났으면 하는데 밤시간만에 돌아 온 지휘관들은 군의소가 가서 준섭이라는 청년의 그림자도 못 보고 왔노라고 했다.

(그럼 중도에서 잘못되길라도?)

혜선의 낮빛이 백자기빛으로 까지 변하는데 홀연 그들을 놀래우며 전화종소리가 다급하게 울었다.

대장의 운전수한테서 온 전화였다.

그는 준섭이가 대장의 지시로 중도에서 지휘부 군의소로 실려 왔으며 지금 중앙병원의 유능한 의사들한테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노라고 전한 후 전화를 푼 끊어 버렸다.

혜선은 땀담한 그 태도가 대장의 심사인것 같아 다소 웅색했으나 속으로 안도의 숨이 터져 나가는것을 어찌는수 없었다.

《대장동지가 수고한것 같구만요. 우린 이번 일요일에 모두 다녀 오도록 하자요. …그리구 래일 중으로 차인계모임도 잘해 주구요. 어찌겠어요. 룡가재미 알 빠지는것 같구 사자어금이 빠지는것 같애두 참는수밖에… 대신 우린 청석문젤 걷어 치우면 돼…》

혜선은 불쑥 하던 말을 끊고 깜짝 놀란 눈길로 지휘관들을 둘러 보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이자 그런 덜돼먹은 소릴 망랑 한 사람이 누군가고 찾길라도 하는것 같았다.

그것은 실로 제 정신이 아니게 번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럴수 없는 행동인데다 청석문

제로 자기네 착한 녀지휘관을 괴롭히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똑똑히 알게 된 안전참모를 비롯한 몇몇 흠매몰지지자들의 얼굴에는 당장 폭발하려는 험악한 기상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혜선이 한손을 들어 자중하라는 행동을 해보이고 애써 생각을 더 해보려는 낮빛까지 짓는것이어서 그들도 별수없이 분격을 눌러 잡는 것이었다.

지금 혜선의 뇌리속으로는 요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달리기만 한다면 비록 쌀속의 뉘처럼 그냥 두고 오는것이 더러 있고 다소 매끈하지 못한데가 간혹 있어도 서로 웃음으로 리해해 준다는 생각과 시련의 고개턱에서 참아 내기 어려워 얼마간 자신의 편안을 찾아도 비렬할뿐이라고 서로 즐겁게 용서해 준다는 생각이 서서히 흘러 들고 있었다.

정녕 사람들은 엄혹한 이 강행군의 나날에 늦는것보다 더 빠른것을, 보이지 않는것보다 더 보이는것을 바라면서 후대를 위한 만년대계니 뭐니 하는 아직은 봄노래와 같은 섬세한 감정보다 조국의 운명이라는 현실적이고도 거창한 리성에 더 빨리 익숙되는듯 싶었으며 또 그렇게 사는것을 이 시대 인간들의 첫째가는 의무로 여기는듯 싶었다.

여기까지 사색의 줄을 늘어 온 혜선에게는 드디어 요즘 준섭이를 새롭게 대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자신의 정신생활에 병이 들지 않았는가 은근히 불안해 하던 그 모든것들이 별로 의의가 없는 어리석은 일들로 여겨 지고 마는것을 어찌는수가 없었다.

하여 혜선은 결연히 고개를 들었다.

《전 매물작업을 원래 계획대로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새 참 안됐어요.》

흠매몰을 주장하던 지휘관들의 얼굴에는 억제할수 없는 기쁨의 물결이 떠올랐다. 그러나 힘겨워도 청석을 날라 올것을 주장하던 태반의 지휘관들의 얼굴에는 실망의 구름장이 무겁게 드리우는 것이었다.

의견론의도 없이 일들이 결정되기 시작했다.

래일중으로 매물계획문건을 다시 완비하는것은 시공참모한테, 매물할 흠건본을 피라미트형으로 쌓아 놓고 모레아침중으로 대장까지 불러 다 놓고 최종합의를 보는 일은 안전참모한테 맡겨 졌다.

혜선은 이제는 모든 일이 자기 예상대로 진행될것이라고 확신했다.

실상 일은 다 그렇게 돼가는듯 하였다.

그저 조금 달라 진것이 있다면 최종합의를 한 시간 앞둔 오늘 아침 대장이 자기는 너무 일이 바빠 판사람을 대신 보내겠다고 전화를 걸어 온 것뿐이었다.

(참모장동질 보낼러나?) 하고 혜선은 생각하며 협의회에 오는 지휘관들의 점심준비때문에 총총히 식당으로 달려 갔다.

잠간 들렀다 간다는것이 뭐가 다 넉넉치 못한 때라 반시간이나 지체되었다.

혜선이가 늦은 봉창을 하려고 식당에서 나오는 길로 공사장을 향해 구을듯 달리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안전참모네들이 그쪽에서 장달음해 하며 오지 말라고 웨쳐 댔다.

혜선은 자기 가슴속에서 벌써 판자 같은것이 나떨어지는 소리를 들은것만 같았다.

이니나 다름가 안전참모네들은 달는 길로 그를 사무실안으로 끌더니만 리준섭이가 다시 나타났다고, 대장이 보낸 사람이 그라고 고아 댔다.

《아니 그 동무야 입원?》

혜선은 숨이 꺾 막혀 말을 더 번질수 없었다.

《입원이 뭐니까. 오늘아침 최종협의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자 점적중에 있던 주사기마저 제 손으로 뽑아 버리고 대장동지방까지 기여서 왔더라는데.》

《이자도 지팽이에 겨우 기대서 있으면서 흙무지속에 보이는 벼뿌리 셋을 가리키며 <만-하나> 대대가 언제 이렇게 티검볼에 휩싸였는가, 참모장을 당장 데려 오라구 불호령이 아니겠습니까.》

《?》

혜선은 아직 자기 머리속에 흘러 들어 온것이 실지에 있어선 말이 아니라 그 어떤 탄탄한 물체들이거나 한듯 지금 한창 바수어 리해하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서 있었다.

가슴을 울컥 흔들어 놓는 정상이여서 지휘관들은 다시 리성이라는 랭정한 계산의 저울대들을 잃고 웨쳐 대기 시작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그러니까?》

《흠으로 묻는다고 무슨 침하가 우려되며 무슨 만년대계가 망그러진단 말입니까?》

《그거야말로 몇천년후에 만에 한번 그럴지 말지 한건데 왜 그리 세차게 군답니까?》

《허락만 하십시오. 당장 내쫓겠습니다!》

《할 들어 내겠습니다!》

《그만들 해요!》

명주필 찢는것 같은 혜선의 목소리가 울리자 그들은 일시에 입을 다물었다.

혜선은 자기가 해바야 할 대상이 그들이거나 한듯 더 격한 어조로 힐책했다.

《내쫓긴 누굴 내쫓구 들어 내긴 누굴 들어 낸단 말이에요? 그는 우리 대대장으로 올 사람이예요!》

《??》

경악실색하는 소리가 돌풍처럼 일었다.

이윽고 안전참모네들이 잔뜩 주눅이 든 낮빛들을 짓자 혜선은 모든것에 초탈한듯 헉헉한 어조

로 입을 열었다.

《벌써 알려 주지 못해 안됐어요... 저도 그만 전날 그 동무가 후송될 때 그것으로 다 끝나는줄 알구... 그러니 더 이상 떠들지 말구 그 동무하자는대로 해요. 몰랐더니... 숨이 넘어 가는 순간이 온다 해두 티없이 살려는데가 있는것 같아요.》

그 동무에 비하면 전 아무래두... 그래요. 전 이만...》

안전참모네들의 얼굴에 결사로 만류하려는 낮빛들이 떠오르자 혜선은 다시금 채찍 같은 어조로 못 박았다.

《절 불들 생각 말아요. 저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구 모욕을 느낄줄 아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흥분은 다시 압축공기마냥 놀리웠다.

《기다리겠는데 어서들 가주세요. 작별인사는 대장동질 만나고 와서 따로 하겠어요.》

혜선의 움직일수 없는 결심을 읽은 지휘관들은 한숨들을 내그으며 고개들을 떨구었다.

7

혜선이가 해임제의를 웃주머니속에 밀어 넣고 자기 방을 나선것은 그때로부터 두어시간 싹히 지난 뒤였다.

방안에 있을 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정작 대대를 떠나는 길에 나섰다고 생각하니 뼈속까지 훑어 내리는 아릿한 심정과 봄빛을 물고 춤추는 초목들 앞에서까지 얼굴을 들수 없게 부끄러워 지는 마음을 금할수가 없었다.

그는 무엇보다 탄사람도 아닌 준섭이한테서 이런 수치를 당한것이 분했다.

그리고 자기를 골탕 먹이는데 한몫 한 대장도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그래서 그는 러단장이 아니라 대장한테로 가 해임제의를 내밀 되알진 결심을 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생각처럼 안되는것이 생활인지도 모른다.

별관길에 들어서 걸음을 더 다우치던 혜선은 저기 눈앞 나무밑에 지친듯 쪼그리고 앉았다가 가까스로 일어서고 있는 사람이 준섭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였다.

그처럼 준섭은 옛 모습을 몰라 보게 불이 꺼져 있고 피골이 상접했던것이다.

혜선은 준섭이가 《기어이 떠나려는가요?》 하고 물었을 때에야 소스라쳐 놀라며 멈춰 섰다.

대뜸 숨결이 거칠어 지고 눈빛도 야멸차 졌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준섭의 어조는 품행이 바르지 못한 학생을 타 이르는 선생의 목소리여서 혜선은 대뜸 발끈했

다.

《됐어요. 저에 대해선 그만 관심을 돌려 줘도 되겠어요.》

혜선은 쏘아 붙이고 다가지게 걸었다. 그래도 마지막곧추치기는 자기가 했다고 서글픈 패감을 느끼며 일부러 활개까지 치는데 별안간 등뒤쪽에서 벽력 같은 고향소리가 쩌렁 울리며 대기의 폭을 갈랐다.

《비렬하오!》

혜선은 어떤 보이지 않는 오라줄이 자기 목을 묶어 매고 잡아 채는것 같아 비틀었다.

뒤쪽에선 여전히 못된 짐승을 달아 댈 때가 아니고선 절대로 그렇게 욕할수 없을것 같은 격노한 어성이 연방 터져 오르고 있었다.

《정녕 동문 기름목욕도 선뜻 하려 들던 그 자강도쳐녀가 옳소? 만에 한번 일지라도 그 하나를 놓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버리게 된다고 것처럼 절규하던 강계사람이 옳은가 말이요?》

혜선은 자기가 언제 돌아 섰는지 알지 못했다.

이글이글 타번지는 두점의 불덩어리를 보았을 적에야 자기가 준섭이와 마주 섰다는것을 알았다.

《변해도 분수가 있구 믿음을 저버려두 정도가 있지 않소!》

혜선은 자기의 모습이 너무도 외곡되게 그려지고 있는것이 참을수 없어 맞소리쳤다.

《도대체 누굴 어떻게 보구 함부로 그런 소릴 하는거예요?》

자기측에서도 꽤 여문 소리가 튀어 나갈것이라고 믿었던 혜선은 그 울림이 너무도 질그릇 울리듯 툭툭해서 다시금 혼신의 힘을 다해 울분을 밀어 올렸다.

《제가 어제날과 무슨 차이가 그리 있다구 개패듯 하는가 말이예요?》

《차이가 있소. 있어도 수치스러운 차이가!》

혜선은 그의 불칼 같은 어조에 그만 말문이 꺾막히고 마는것을 느꼈다. 토해 버리지 못한 억한 심정은 그저 가슴속에서만 요동칠뿐이었다.

준섭은 불쑥 어떤 정신적인 구로감이라도 느끼는듯 턱을 밑으로 내려 굶고 있더니 안타까이 계속 했다.

《동문 정녕 지금 빛이 빠진 보석처럼 쓸모 없는 유리알이나 다름없이 된 자신을 느끼지 못한다면 말이요?》

혜선은 어떻게나 억울한지 가슴 밑바닥이 툭갈라 지며 피방울까지 빠지지 내배는것 같았다.

하자 준섭의 눈가엔 다시 화광과 같은것이 어려왔다..

《아프더라도 들어야겠소. 왜냐면 동무가 버린 그 신념은 너무도 소중한것이기때문이요. 그렇소.

만에 하나... 바로 그 하나가 실지로 오갈데 없는 우리 청년전위들의 가장 순결한 량심이구 자기를 송두리채 바쳐 장군님을 받드는 충실성이요. 바로 그 하나가 장군님을 결사옹위하구 강성대국을 안아 오는 실제적인 힘이란 말이요!》

《아-》 혜선은 준섭이가 자기 흉곽속에서 조울고 있던 마음속 금선들을 한꺼번에 다 건드려 온몸으로 장중한 선물이 메아리쳐 가게 해주는듯함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뿜었다.

참패라는것은 이미 말할 여지도 없는것이였다.

천하를 향해 보짐을 이렇게 바꿔 질수도 있느냐고 울부짖고 싶는데 그 하늘가 어디선가에서 울려 오는것만 같은 준섭의 의미심장한 목소리가 계속 울렸다.

《난 동무가 다른건 몰라도 그 하나마저 버릴줄 모르는 정신때문에 장군님의 돌격대인 우리 조선 청년들이 것처럼 훌륭하구 위대하다는걸 알았으면하오!》

떠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혜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눈물을 펄펄 쏟고 있다는것을 알아 허둥지둥 수풀속으로 뛰어 들었다.

해 묵은 쑥내가 씩씩히 풍겨 오는 둔덕에 엎드려 시간 가는줄도 모르고 울었다.

과연 내가 언제 먼지 한점 물울세라 깨כות 량심을 지켜 가는 우리 청년들의 순결미를 내 자신한테서가 아니라 준섭에게서 찾아 보는 너절한 인간이 돼버렸단 말인가.

언제 이 가슴속에는 수치스러운 세계만이 타버린 폐허같이 거뭇게 남았던 말인가.

혜선은 다시 돌아 갈수 없는 그 맑고 궁지 높던 세계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여 가슴이 아파 더없이 울었다.

중낮쯤 됐을 무렵 혜선은 대대를 떠나기전에 마지막으로 진실로 사심 없는 일을 하나 해놓고 싶은 충동에 떠밀리며 중앙지휘부를 향해 다시금 곧바로 걸기 시작했다.

대장은 지휘부마당에서 이곳 지휘관들과 함께 금시 실어 온듯한 헌차바퀴 달린 손수레들을 이리저리 굴러 보다가 정보로 다가 오는 혜선이를 흘깃 쳐다 보더니 별안간 누구에게라 없이 화를 냈다.

《글쎄 어쩌서 이런것까지 그 동무가 해야 하는가 말이요?》

지휘관들이 뭐라 웅얼웅얼 사죄하는데 대장은 더 벌컥 성을 냈다.

《어서들 짹 사라지거나 하오!》

혜선은 지휘관들이 떠나며 자기를 향해 어서같이 피하자고 손짓들을 했으나 못 본듯 내쳐 대장결로 다가 갔다.

대장은 그가 곁에 와 섰다는것을 뻔히 아는것 같은데 눈길도 안돌리고 손수레만 이것저것 굴러 보더니 불쑥 물었다.

《멋 있지?》

혜선은 뭐가 멋 있는지 또 그런 대답을 할 계 해도 아니고 해서 대척않고 서있었다.

그러자 대장은 《정말 멋있단 말이야.》하고 스스로 대답하더니 눈길은 들었으나 여전히 그를 보지 않으면서 물었다.

《그래, 무슨 일이요?》

《저… 언젠가 제기하시던 그 동무를 어서 대대장으로 보내 달라 말씀 드리려구…》

대장이 우뚝 놀라며 그제야 곧바로 쳐다 보자 혜선은 한발 다가 들며 얼싸게 부르짖었다.

《그때 마음이 아니란걸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무한테서 배우겠습니다.》

《떠나진 않구?》

《전사로 일하겠습니다!》

대장은 그의 동그랗게 영글어 진 눈에서 새로운 결심을 읽는듯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니 말했다.

《그렇지만 늦었소.》

《네?》

《그 동문 오늘 아침<청춘려단> 려단장으로 임명됐소.》

《아, 아니 그럼 우리 대댄 어떻게입니까? 우리 대대엔 그 동무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 내 왜 그때 제격 받아 물지 못했을까? 대장동지, 당분간이라도 우리 대대에 있다 가게 해주십시오. 새 대대장을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네?》

대장도 저으기 감심된 낮빛으로 섰더니 새 대장도 이미 선정되었노라고 대답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어디 그만한 동무야 있겠습니까, 뭐.》

혜선은 더 말할 흥미조차 없어 하는데 대장은 그제야 대화에 열을 내며 한결음 다가 들었다.

《준섭동무가 추천한 동무요. 난 결사반대했지만.》

《그것 보십시오. 대장동지가 결사로 반대한 사람이 무슨 구실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렇지만 준섭동문 끝까지 보증했소.》

《됐습니다. 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뭐 알아 비밀이 될것도 없소.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혜선은 굳어 졌다.

대장은 지곳은 낮빛을 거두며 계속했다.

《그렇소. 오늘아침 중앙지휘부에선 혜선동무를 <만-하나>대대 대대장으로 임명했소.》

《아 아니, 제가 어떻게?》

혜선은 놀라움에 휩싸여 몸둘바를 몰라 했다.

《할수 있소. 준섭이와 같은 진짜배길 키워낸 동무가 아니요.… 이 손수레들을 보우. 차를 고쳐 내는 그 어려움속에서두 자기 고장 다이야 공장을 비롯해서 각 기업소들에 수백통의 편지를 내어 청석을 날라 올수 있도록 수십대의 손수레들을 만들어 보내오게 한걸.》

혜선은 준섭이가 진실로 만년대계 창조물을 건설하는데서 사는 보람을 찾고 있다는 느낌이 새삼스러워 다시금 두눈에 뜨거운것을 함뱍 담았다.

《게다가… 청춘려단장으로 임명되자 곧 자기 려단에 호소했소. <만-하나>대대에 차를 돌려 주자구. 청석을 가득 싣고 가서 아주 주자구!》

혜선은 자기 가슴에 울컥 별물처럼 넘쳐 나는 걱정을 이겨 낼수 없어 흑하고 느껴 울었다.

《그래 이런 진국을 키워 낸 동무가 그를 다시 따라 잡지 못한단 말이요? <만-하나>철학이 누구 것이였길래? 분하지도 않은가, 영?》

혜선은 그의 꾸밈 없는 위안과 질책이 고마워서 어린애처럼 소리내 울며 연방 고개를 끄덕거렸다.

혜선은 자기가 언제 정든 공사장으로 돌아 왔는지 알지 못했다.

돌아 오는 동안 눈 부신 해살이 아지랑이와 어울려 일렁거리며 내내 그의 온몸을 감싸고 돌았다. 그가 환희에 넘쳐 공사장으로 들어 서는데 낮익은 대원들이 와- 떠들며 반대쪽 길가로 달려가고 있었다.

거기로는 화물차 한대가 달려 오고 있었는데 그 우에는 하나같이 환한 청년들이 올라 있었다.

혜선은 눈물이 핑 고여 오르는 속에서도 길동 그렇게 잘 생긴 한 청년의 모습을 분명히 포착했다. 하자 이름할수 없는 감정의 잔 파도가, 언젠가 대형변압기결에서 처음으로 맛 보았던 그 봄물결 같은 따뜻한 파도가 다시금 가슴속에서 일어 번지는것이 알렸다.

느닷없이 준섭이가 웨치던 말이 되살아 왔다.

《…바로 그 하나가 실지로 오갈데 없는 우리 청년전위들의 가장 순결한 랑심이구… 충실성이요.》

…장군님을 결사용위하는… 실제적인 힘이란 말이요!》

그래, 소금이 쉬고 순금에 녹이 쏘고 이 세상 모든것이 달라 진다 해도 준섭동무가 믿고 우리 청년전위들이 사랑하는 이 신념은 내 가슴속에서 다시는 퇴색하지 않구 죽지도 않을거야!…

공사장으로 다가 오는 준섭이네들이 탄 차앞에는 이 나라 청년전위들이 더 높은 세계로 들어서는 인생차 변호인양 《만-하나》라고 쓴 하얀 글발이 은은히 빛을 뿌리고 있었다.

내 심장과 더불어

길수암

사람은 심장이 없이는
참답게 못 살아
네가 있어 량심이 있고
네가 있어 신념을 지키노라

사랑에는 뜨겁게 박동치다가도
증오에는 흉벽을 뚫고 튀어 나울듯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와 함께 고통치는
너는 순결하고 정직한
넋의 불덩어리

내 오늘
세기의 령마루에 올라
온몸에 해빛을 한껏 받으며
높뛰는 심장과 더불어
걸어 온 길, 걸어 갈 길을 생각해 본다

철 없던 그 시절
너무도 허기져
이웃집 배 한알 따 먹고
내 얼굴을 붉혔어라
어린 마음에도 부끄러워

그때부터였던가
심장이여
너는 그렇듯 일찍부터
정의감에 불 타고
의분에 떨었다
세월의 풍상속에서
인생에 눈 뜨고
벗과 원썬을 보았어라

아, 잊을수 없는 그 나날
한치의 조국땅을 두고
생사를 겨루는 고지에서
돌격의 앞장에 섰던 전우
공화국기를 안고 쓰러 졌나니

증오로 피 끓던 너
번개를 치고 뇌성을 울렸다
원썬의 가슴팍을
무자비하게 꺾질렀다

하지만 저만을 위하여
숨 가쁘게 맥박치는
그런것도 있더라
처세와 배신으로 살 쥔
고기덩이도 심장이런가

나는 안다
글 한자를 써도
너의 목소리가 아닌
손끝으로 쓴것이라면
사람들은 믿지 않으리

너는 태양의 빛과 열을 받아
참다운 삶, 고귀한 넋을 주는
붉은 샘줄기
정의와 량심의 거울

심장이여
내 만약
하늘 땅 캄캄한 포화속에서
정신 잃고 쓰러지면
억세인 고통으로 깨워다오

내 혹시
험난한 가시밭에서 비틀거리면
이 가슴을 세차게 울려 다오
나를 일으켜 세워
불사신으로 싸우게 하여다오

나에겐 엄숙한 맹약이 있어라
우리의 운명과 미래인
위대한 태양의 존엄
신성한 어머니조국에
감히 맞서 덤벼 드는 무리 있다면

명령이 없어도
구령을 기다리지 말고
용약 돌진하여
육탄으로 막고
자폭으로 쓸어 버리자
나의 사랑하는 심장이여

열핵폭탄도 무색하게
광광 터치자, 폭발하자
주체의 성전에서
우리는 기어이 승리하리니
웃으며 바치자
귀중한 나의 심장이여

먼 후날
영생의 언덕앞에 선 사람들속에
한 무명전사 잠들었어도
붉은 심장의 고통소리 들려 온다면
더없이 행복하리라

높은 요구

오광철

1

귀 기울이면 별들이 내는 소리가 들릴 듯 싶은 그렇게 고요하고 별 많은 밤이다. 어디선가 서늘한 바람이 조심스레 불어 온다.

리인학은 모든것이 잠들 차비를 서두르는듯한 어둠속에서 붉은 빛의 창문을 지켜 보며 서 있었다.

창가림이 드리워진 방안 저쪽에 앉아 있는 처녀의 그림자가 손에 잡힐 듯 뻗어온다.

리인학은 지금 도에 있는 카바이드공장에 갔다 오는 길이다. 그 길은 저 처녀와 처녀의 아버지 앞에 죄스러운 길이였다.

그러나 처녀는 아는 듯 모르는 듯 주먹으로 이마를 고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 있다. 이따금 몸을 움쭉이는 처녀의 희미한 그림자가 애뜻하게 흔들린다.

(명심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날 이해해 주오.)

리인학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그는 자기의 그 말을 어린 시절처럼 처녀의 집 창문 아래 새겨 놓고 싶었다.

천진하고 즐겁던 그 시절의 모습이 영화화면처럼 언뜻거렸다.

저녁놀이에 승이 난 광산마을아이들의 자지러지는 목소리가 할머니나 어머니들의 불려 들이는 소리와 어울려 울려 오던 그 저녁녘.

창가에서 쏘아 저 내리는 불빛 아래 소년은 숨마저 깨물고 앉아 나무꼬챙이로 땅바닥에 무슨 글인가 새긴다. 그 소년은 바로 리인학 자기였다.

소년은 땅바닥에 무슨 글인가 열심히 새겨 놓은 흙을 모아 그 글자를 다시 덮고 발로 툭툭 다진다. 흙 묻은 손으로 코밑을 쓱 훑치는 소년의 얼굴에서 장난꾸러기 두 눈이 보석마냥 반짝거린다.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도 없이 제비꼬지 같은 머리태에서 빨간 리본이 나풀거리는 소녀가 그 발자리가 난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는다.

손에 쥔 얇은 막대기가 그 발자리가 난 땅바닥을 살살 후비다가는 획 같은 것이 느껴지면 조심스럽게 따라 가곤 한다. 그러면 놀랍게도 풀대마냥 흔들거리는 그 나무꼬챙이 아래 어제 밤에 새겨 쓴 글자들이 나타나곤 한다. 그것이 바로 천진한 장난꾸러기들의 글자찾기놀이이다.

소녀에는 방금 찾아 낸 글자들을 읽는다.

《연필꿀꿀이》

그것은 깔끔해서 제 연필은 그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는 소녀에게 붙인 심술꾸러기 별명이다.

인학이보다 두살이나 아래인 그는 외동딸을 남다르게 키우려는 아버지의 고집으로 학령전 나이에 학교에 붙었는데 우습게도 자기가 다른 애들보다 두살쯤은 우인듯이 생각하곤 했다.

그 별명앞에서 소녀는 약이 올라 발을 동동 구르며 장난꾸러기소년이 사는 집쪽을 향해 소리친다.

《심술쟁이! 머저리!》

바로 그 말이 그날 저녁이면 소녀의 나무꼬챙이에 의해 장난꾸러기소년의 집 창문아래 새겨지고 다음날 아침이면 반대로 소년이 그 글자를 찾아 내고는 좋아라 꺽충거리곤 했다.

그 어떤 뽀족하고 아픈 말도 그들의 사이를 갈라 놓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학은 다시금 처녀의 방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힘겹게 자기 사무실로 돌아 왔다. 불을 켜자 책상위에 놓인 두통의 서류가 기다린 듯, 독촉하는 듯 확 안겨 온다. 그것은 인학이 작성한 서로 다른 두 보고서였다.

인학은 그중의 한 보고서를 집어 들었다.

《ㅎ》 광산 지배인 장현철의 사업성과에 대한 료해보고서였다.

장현철은 명심의 아버지이다. 저물녘이면 지긋게도 자기 집 창문 아래 찾아들어 땅바닥을 긁적이는 인학을 잡아 일켜서는 엉치를 철썩 갈기던 사람이다.

아프다기보다는 놀라서 아가가 소리를 지르며 달아 나면 기다렸던 듯 창문이 활짝 열리고 거기서 깔깔거리는 명심의 웃음소리와 함께 그 절절한 웃음소리도 들려 오곤 했었다.

잊지 못할 사람, 인학이 제대되어 이 광산으로 왔을 때 누구보다 반겨 맞아 주고 일을 배워 준 지배인이다.

성실하며 능력 있는 일꾼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 주저하거나 비판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생산성으로 일떠선 그였다.

채취공업성에서는 그러한 장현철지배인의 사업 성과를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이 계획되고 있었다. 그를 위하여 이곳 광산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리인학지도원이 광산으로 파견되어 왔다. 높은 국가수훈도 예견되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기쁘고 즐거우며 좋은 래일이 약속

되던 때였다.

인학이 광산으로 내려 간다는것을 안 그의 아버지는 서둘렀다. (그는 년로보장으로 도에 있는 딸아들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인학이 내려 가는 길에 결혼은 몰라도 약혼까지는 성사시키자는 생각이였다.

리인학과 장명심의 사랑은 본인 당사자들보다 광산의 오랜 친구들이였던 그들의 부모들에게 더 기쁜것이였다.

《또 옳다 옳다 할 생각은 말어라. 지배인두 이제 60이 썩 지났구 명심이두 처녀나이 60이야. 지금 보기 곱다구 무슨 인형처럼 여길 생각이나? 너보단 부모들인 우릴 욕할게다. 결혼은 그저 말나구 정 있을 때 제격 하는거야.》

인학은 웃었다. 아버지는 공연한 걱정을 한다.

소꿉시절과 중학시절은 물론 인학이 소대를 지휘하던 군사복무나날에도 언제나 가슴속 가까이 있는 처녀다. 그것은 지금도 다름바 없다.

원췌와의 결전에서 심한 부상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 왔던 그때 인학은 그 처녀의 도움으로 공장 대학까지 나올수 있었다.

그러나 인학의 마음을 알리 없는 아버지는 서두른다.

《이번 기회에 약혼을 하구 날을 받자》

인학은 아버지를 만류했다.

《이번에는 안돼요. 제가 광산에서 일을 다 본 다음에... 정말이에요. 이번에 말은 일은 제가 누구보다 객관적일걸 요구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인차 그의 말뜻을 알아 차렸다. 하여 그가 이번에 말은 일을 다 끝내고는 아버지의 의사를 따르기로 략착이 되였다.

《가서 처신을 잘해라.》

아버지는 몇번씩이나 당부했고 또 몇번씩이나 약속대로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 냈다. ,

그리고 아버지는 흐뭇해 했다.

리인학자신의 인생에도 가슴 두근거려 지는 행복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리인학이 광산에 내려 와 그동안의 계획수행정형과 자력갱생기지운영정형, 후방기지의 능력 등을 물었을 때 현철지배인은 모든것을 다 알아 차린듯 했다. 그의 눈이 오래도록 인학의 얼굴을 지켜보았었다.

이윽고 무엇인가를 캐묻는듯 하던 눈길을 창밖으로 돌리며 그는 왜서인지 침울해 하였다.

《난 말해 줄게 없구만. 자네는... 나라의 채취 공업발전을 맡은 성일군이니 모든걸 제 눈으로 확인하게.》

하여 인학은 광산 계획과에 있는 명심과 함께 각종 계획수행지표며 통계자료들을 분석하게 되였다.

사랑하는 처녀와 매일같이 만나 함께 일한다는 그것보다는 모든것을 보고 연구할수록 지배인의

놀랄만한 사업성과가 뚜렷해 지는것이 더 기쁘고 즐거웠다.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였대도 그것은 너무도 명백한것이였다.

그럴수록 인학은 자기의 사업에 더욱 객관성을 부여하려고 애 썼다. 광산의 여러 갱들과 자력갱생기지들, 후방기지들에 나가 노동자들과 기술자들도 만나보았다.

바로 그 과정에 인학은 스쳐 지날수 없는 피로운 문제에 맞닥들었던것이였다.

인학은 한숨을 내쉬며 손에 들었던 성과료해보고서를 내려 놓았다. 그리고 피로운 눈길로 자기가 작성한 또 하나의 보고서를 내려다 보았다.

광산의 생산원가소비정형과 그 해결책으로 되는 광산 카바이드공장 폐기를 주장하는 보고서였다.

머칠전 광산의 생산원가소비정형을 계산해 보던 인학과 명심은 다 같이 얼굴이 굳어 저 마주 보았다

한마디 말도 떼지 못하고 바라보는 그들의 얼굴은 이상하게 창백해 졌다.

명심은 자기스스로도 그것이 놀라운듯 계산된 수치들을 자꾸만 내려다 보았다.

광산의 생산원가초과는 다름 아닌 광산자체로 건설한 카바이드공장때문이었다.

지하가스가 류출되지 않는 지층에 위치한 광산에서는 흔히 광부들의 조명문제를 카바이드로 해결한다. 카바이드의 보장은 곧 광석의 생산이다.

바로 그러한 카바이드공장을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고 광석생산을 정상화한 장현철이었다.

광산에서 50여리 떨어진 곳에는 국가에서 많은 자금과 현대적기술설비들을 들여 건설한 도적인 규모의 카바이드공장이 있다.

그러나 나라가 허리띠를 조이던 《고난의 행군》시기 그 공장에서는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했고 그것으로 하여 광산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가 없었다.

장현철지배인은 자체의 힘으로 광산에 카바이드공장을 세웠다. 바로 그 공장이 많은 전기와 자금을 소모하고 있는것이였다.

당에서는 경제관리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할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의 집약화, 집중화를 실현해야 한다. 같은 생산단위를 여러 곳에 마구 벌려 놓는것은 나라에 덧짐을 지우는 일이다.

그런데 《ㅎ》광산의 경험을 따라 주변의 여러 광산들에서도 각기 카바이드공장을 세우려 하고 있다. 도적인 그 카바이드공장이 아니라 이 광산 카바이드공장과 실제로 틀고 앉아 기술문건과 자료, 경험들을 연구하는 다른 광산의 《대표》들도 있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광산의 카바이드공장을 폐기하고 거기에 드는 자금과 자재로 도에

있는 카바이드공장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면 그 공장은 얼마든지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다. 거기에다 바로 그 생산을 위해 아글타글하는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있다. 생산정상화의 징조도 보이고 있다.

우리 일군들에게 실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알려 주어야 한다.

하여 인학은 오늘 도에 있는 그 카바이드공장에 다녀 온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에게는 차마 들리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가 있는 집이 멀리 바라보이는 한 청량음료점에서 마른 빵을 묵묵히 씹으며 피로운 생각에 몰두했다. 그는 다름 아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희생 시켜야 하는것이 었다.

그의 눈앞에는 현철지배인과 명심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만 얼른거렸다.

지금도 그는 서로 다른 두 보고서를 내려다 보며 결정하기 어려운 두 생각과 싸웠다.

저 멀리 밤하늘가에 광산 카바이드전기로의 화광이 붉게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2

광산의 카바이드공장에는 현철지배인과 명심 그리고 인학의 소중한 추억과 땀이 깃들어 있었다.

현철지배인은 그때 누구도 모르는 중한 병을 앓으며 공사를 지휘했다. 지어 그는 자기 딸의례장감까지 자재구입을 위해 바쳤다.

그 카바이드공장의 전기로를 세우던 날.

광산이 가지고 있는 기증기능력으로는 어렵다던 그 수십톤의 전기로본체를 명심이 제작한 8단활치를 써서 통채로 들어 올렸다.

그러나 그것을 제정된 기둥돌우에 올려 놓는 작업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한 작업이었다. 기증기 쇠바줄에서는 심장을 싸늘하게 갇아내리는듯 한 새된 금속성음향이 계속 울려 왔다.

문득 기증기가 꺼꾸러질듯 흠칫했다. 그 반층으로 허공중에 매달린 수십톤의 전기로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러자 전기로본체의 한쪽 쇠바줄이 고리에서 벗겨 지려 하였다. 조금만 지체하면 전기로는 처참하게 나딩굴며 주변의 설비들과 기증기까지 들이칠것이다.

그 순간 인학은 경악하여 굳어 진 지배인의 얼굴을 보았다.

구원을 호소하는듯 황겁히 사방을 둘러 보는 명심의 얼굴도 똑똑히 보았다.

더 생각할 사이 없이 인학은 지레대를 들고 반

공중에 떠서 빙글빙글 도는 전기로에 달라붙었다. 필사의 힘을 다해 전기로에 기여 올라 가 쇠바줄에 지레대를 가로 태워 고리에서 벗겨 지는것을 막으려 안간힘을 썼다.

주변에서 비명이 터져 올랐다. 숨 막히는 공포감에 모두들 눈을 감았다. 그러나 전기로는 무사했다. 그 전기로밑에는 만약 전기로가 떨어 저 내리면 통채로 받아 올려 인학을 구원할듯 두팔을 벌리고 들어 선 지배인과 여러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고 바로 그속에는 유일한 처녀의 모습, 명심의 모습도 보였다.

그 전기로를 무사히 세우고 조업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명심이 공장을 찾아 왔다.

깨끗하게 꾸려 진 공장안팎을 둘러 보는 처녀의 생기발랄한 눈동자속에는 자식을 지켜 보는 어머니의 눈빛과 류사한 애무와 행복감이 뛰놀고 있었다.

문득 그는 바닥에서 짊막한 쇠줄을 주어 들더니 산뜻하게 미장한 전기로밑기둥의 채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무슨 글인가 자그마하게 새겨 넣었다.

그때 인학이 거기로 다가왔다. 처녀가 새긴 글은 공장의 완공날자를 표시하는 수자였다.

《그건 뭘 어린애처럼 그러오?》

인학은 가볍게 나무랐다.

《기억하고 싶어서요. 인학동지가 전기로에 뛰어오르던 날을... 그리고 그렇게 일떠세운 이 공장을...》

기쁨과 추억이 한데 어우러진 처녀의 눈빛은 눈부시리만큼 밝았다. 그것으로 하여 처녀의 싱싱한 아름다움이 해살마냥 비쳐 나오는데 했다. 이 처녀가 그리도 아름답다는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으며 인학은 거의 주눅이 든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거기엔 나만 뛰어 든게 아니지 않소.》

그러자 처녀는 소리를 내어 웃었다. 나직하고 랑랑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져 갔다.

처녀는 한옆에 놓인 미장칼로 몰탈을 퍼들더니 자기가 새겨 놓았던 그 글자를 매끈하게 덮어 버렸다.

《?!》

《이 글자는 꼭 우리만 알고 있자요. 이건 우리밖에 그 누구도 찾지 못할 글자예요.》

그 말을 하는 처녀의 얼굴빛은 왜서인지 확 붉어 졌다.

글자는 지워 저 버렸다. 그러나 그들 두사람의 눈길은 언제나 그 글자를 찾아 내곤 하였고 거기에 깃든 즐겁고도 행복한 의미에 가슴을 두근거리곤 했다.

바로 그 카바이드로를 없앨것을 다름 아닌 인학이 요구해야 하는것이였다. 어쩌면 그것은 장현철지배인의 모든 노력과 모든 성과에 대한 무

시로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였다.

다음날 인학은 광산사무실 앞마당에서 기와를 찍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알아 보니 카바이드 공장 전기로에 필요한 철판때문에 반년전에 철제 일용품공장 철판지붕을 벗겨다 썼는데 지금 그 대신으로 기와를 찍어 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카바이드전기로는 필연적으로 많은 철판을 소모한다. 전기로는 흑연전극을 방전시켜 반응물을 녹이는데 그 전극을 바로 철판으로 말아서 쓰기 때문이었다.

속담에 배 한자를 짜도 배들은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적은 량의 카바이드라고 해도 전기와 철판은 그 량대로 있어야 했다.

그래서 광산의 철판을 리용하다 못해 남의 공장철판지붕까지 벗겨 오게 된 것이었다.

그때 기와 찍는 작업을 책임지고 진행하던 리재기는 우울해서 말이 없었다.

현재 광산 설비과에서 일하고 있는 리재기는 장현철지배인과 동갑이었다. 그는 광산이 개발되던 당시부터 지배인과 함께 일했는데 늘 지배인의 나이가 이 광산의 나이라면 자기 나이는 또 지배인의 나이와 같다고 멋들어지게 말하곤 하였다.

기술일군, 행정일군, 지어는 후방일군의 경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는 재기라는 이름 대신 《제기》라고 불리우곤 했다. 광산에서 제기되는 문제 속에는 언제나 그의 이름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렸다. 것처럼 사업에서 성과가 있는가 하면 유명한 실패도 있는 리재기였다.

그럴 때면 그는 장현철지배인에게 불려가 자기의 비유대로 한다면 《반쪽반쪽하니 닻이도록》 추궁을 받곤 하였는데 그래서인지 그는 지배인을 범보다도 더 무서워 하곤 하였다. 그 어떤 된 꾸중이든 억울한 꾸중이든 그는 지배인앞에서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쫄쫄 매곤 하였는데 그러나 지배인앞에서만 물러 나면 큰 소리를 치거나 눈물이 글썽해서 너무하다고 하소연하곤 했다.

《저 지배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배인을 했을 거네.》

어느 날 얼근하게 취할 김에 리재기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그제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그는 자기가 젊었을적에 딱 한가지가 모자라서 이 모양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넥타이때문이라고 했다.

《우리 광산 초창기에 생산사갱을 건설할 때였는데 그놈의 사갱이라는게 도무지 설계나 지질도에 그려져 있는대로 지층이 생겨 먹질 않았거든. 단층과 파쇄대공간이 나오지… 석수는 계속 쏟아지지… 그때 저 지배인과 내가 돌격대 대장을 하였었는데… (돌격대 대장을 둘이서 하느냐고 묻는 말에 그는 후방대장은 대장이 아니냐고 반문했

다.) 어느 날 중앙에서 큰 간부들이 내려 와서 저 사갱을 끝까지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토론하며 우리 두 사람을 불렀지. 결심을 들어 보자구. 점심을 먹고 어느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군. 우린 사갱을 끝까지 내밀어야 한다고 제기하기루 했어.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 몸을 씻구 양복을 갈아입었지. 사람이 허술해 보이지 말자면 결 불 안이라구 외모가 깨끗해야 하는게거든. 더우기 중앙에서 온 간부들인데… 그런데 그 망할 놈의 넥타이가 어디로 갔는지 통 찾을 수가 있어야지. 올리 뒤집구 내리 뒤집구 하는 참에 저 지배인이 작업복을 그대로 입구 먼저 나서서 기어이 해내겠다구 들보가 꺾어 저라 소리쳤지.

결국 생산사갱은 끝까지 건설됐어. 그때 내 넥타이만 먼저 찾아 냈어두… 아니, 저 지배인이 내 앞날을 밝지만 않았어두…》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그런데 그 말이 곧장 지배인 귀에 들어 갔다. 그는 그날로 지배인 앞에 불려 갔다. 그때 어찌나 반쪽반쪽하게 닻이었던지 그는 한동안 누가 찾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그러나 광산에서 무슨 일이 제기되면 지배인은 버릇처럼 리재기를 찾곤 했다. 또 지배인에게 기쁜 일이거나 가슴 아픈 일이 생기면 리재기가 그를 찾아 가곤 했다.

광산의 카바이드공장을 세울 때도 리재기는 많은 일을 했다. 그때 기울어 지는 전기로에 인학이 뛰어 올랐을 때 지배인과 함께 그 전기로밑에 두팔을 벌리고 섰던 사람들중의 하나도 바로 리재기였다. 그러나 그때 어찌나 긴장했던지 전기로가 무사히 바로 잡힌 다음 그는 풀썩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고 말았는데 사람들은 뛰어 오르는 인학이 뛰어 오르고 깔리기는 리재기가 깔리었다고 웃었었다.

지금도 그는 달갑지 않은 일에 성수가 나지 않는듯 작업장을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그의 그런 기본에 전염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남의 공장 지붕을 벗기고 기와를 찍어 주어야 하는가고 물었다.

《기술과의 어느 기사가 카바이드로에 드는 철판을 완전히 절약할 안을 내놓았다는데 언제 도입합니까?》

누군가가 큰 소리로 물었다.

그 말에 리재기는 별로 당황한듯 사람들의 얼굴색을 살피더니 판전을 부렸다.

《거 첫날 각시 숟가락 돌리듯 하구 있지 말구 다그치라구.》

그는 심각한 얼굴로 자기들을 지켜 보는 인학을 보자 마침이라는듯 한쪽구석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방금 이야기된 그 카바이드로의 철판을 절약하기 위한 기술혁신안을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 가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귀중한 기술혁신안이었다.

그것은 유압뿔프와 자동화설비들을 리용하여 철판에만 흑연을 입술연지처럼 필요한만큼 내밀어 방전시킴으로써 철판은 그대로 보존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잘못 내밀면 전극이 통채로 쏘아 쳐내릴수 있기때문에 그것을 기술조건이 좋은 도에 있는 카바이드공장에 도입하라고 지배인이 딱 자른다는 것이었다.

《내 오지랖이 넓어서 싸안구 나서는게 아니라 그것때문에 지배인이 말 들을것 같아 그런다니까. 실패가 두렵다구 딴 공장에 도입하라니 이젠 보신주의가 아닌가. 지배인두 이젠 늙나보이, 응? 이자 이 말은 전하지 말구 자네가 좀 말해 보게. 지배인에게 말이야.》

인학은 점점 복잡하게 얽히는 카바이드공장문제를 느꼈다.

그 기술혁신안은 지배인의 주장대로 도에 있는 카바이드공장에 도입해야 한다. 그러면 그 공장의 생산정상화에 큰 몫을 맡을수 있다.

그런데 다름 아닌 그것을 지배인이 주장하고 있으며 재기를 비 롯한 일부 사람들은 자기 광산에 도입할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었다.

잠시후 인학은 지배인방을 찾아 갔다. 아프고 피롭더라도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배인 방에서 그 누군가 전화를 주고받고 있었다.

인학이 들어 서자 그는 손으로 의자를 가리켜 보이고는 전화를 계속했다.

《이동작업조를 책임졌다는 사람이 철수해 올때 삽과 곡괭이의 개수를 세보지두 았구 실구 왔다오. 삽이 다섯가락이나 없어 졌소. 허나새나 광산의 일꾼이라는 사람이 광산의 자그마한 재산이라두 제집 창고의것처럼 피가 나게 아껴 준다면 얼마나 좋겠소. 더 길게 말할게 없소. 그 사람이 변상하게 합시다. 잃어 버린 삽들이 모두 쟁쟁소리가 나던 삽들이라는걸 상기시키오.》

리인학은 그 모습을 거의 두렵게 바라보았다.

광산창고의 삽과 곡괭이의 개수까지 다 세고 있는 지배인이다.

광산일꾼들은 지배인에게 무엇을 폐기해야 한다는 제기를 할 때가 제일 바빠다고 했다.

《좀 더 쓸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뿔것 같은데… 여보! 다 죽었다던 사람두 다시 일궈 세우는게 과학인데 기계설비야 왜 못 일켜 세우겠소. 좀 머리를 짜보오.》

이런 지배인앞에 일꾼들은 혀를 차며 물러나고 만다. 그래서 주변광산들에서는 어떤 설비나 부속품이 없을 때면 덮어 놓고 《ㅎ》광산으로 가보라고 한다.

인학은 현철지배인의 백발에 가까운 귀밑머리를 지켜 보며 가빠 오는 숨결을 느꼈다. 거기에는 위탕만이 아닌 한줄기 땀기가 내배에 있다.

60을 찍 넘긴 몸이다. 어찌 힘들지 않으랴!

그러나 한손으로 그 땀발을 문대더니 계속 전화한다.

《내가 전화한건 변상문제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딸이 래달 초에 결혼이라오. 생필에 가보니까 자투리나무들로 조각무이한 밥상밖에 없던데… 이왕이면 새나무로 웅근 밥상을 만들어 주지요 어머니 없이 자란 딸이 아니요. 이불장두 꼭 도색을 해서 주어야 하오. 좀 책임지고 해주오. 내 바빠서 잊어 버릴가봐 생각날 때 이렇게 전화를 거는거요. 그렇게 합시다. 하지만… 변상문제를 잊지 마오.》

지배인은 전화를 놓았다. 또 땀을 씻는다.

그리고는 인학에게 물었다.

《일은 잘돼 가나?》

인학은 잠시 망설였다. 자기의 이런 심리상태로는 아픈 말을 하기가 몸시도 힘겨우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슴이 답답하도록 안타까웠다.

고개를 드는 순간 그는 자기를 찬찬히 뜯어보는 지배인의 눈길을 보았다. 그와 시선이 부딪치자 현철지배인은 빙그레 웃었다.

《내가 왜 자세히 보는가 하면… 우리 로친이 자꾸 자네가 못 쓰게 된다고 잔바가지를 긁기때문이야. 출근할 때마다 저녁에 데리고 오라는 소린데… 자꾸 잊어 버리거든.》

그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다.

《인학이, 오늘은 집에 가세. 너자들은 그렇지 았아.》

그리고 나서 지배인은 잠시 말없이 창밖 어딘가를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 지배인에게서 처음 들어 본다고 생각되리만치 치치고 쓸쓸한 목소리가 들려 왔다.

《사업뿐만아니라 생활의것두 다 놓치지 말구 헤아리라고 하는데… 힘들거든! 생활이기때문에 욕을 하기가 힘들구 원칙에서두 양보해야 하는 때가 있어 사업하기가 힘드네. 소두 배 부르구 풀판두 손해 없는 그런 일이란 드물거든.》

지배인은 인학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듯 했다. 어디를 보는지 분명치 않은 눈이 허공을 더듬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생활을 초월한 힘든 요구를 할 때두 마음이 편할 때가 있는데… 그건 자기가 겪어 봤거나 이겨 내 본 그런것들을 요구할 때네. 제가 그 힘겨운걸 이겨 냈구 또 그럴 때 옹게 처신해 본 일은 사람들에게 요구하기가 한결 쉽네. 이게 일군의 법도지, 그래서 일군이 힘든거구.》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잠시 그렇게 앉아 있던 지배인은 불현듯 힘을 내는듯 두손으로 책상을 소리나게 쳐누르며 일어 섰다.

《그렇게 하세. 저녁에 내 방에 와서 함께 집으로 가자구.》

인학은 무거운 걸음으로 그리고 겁이 나도록 두려운 마음을 안은채 지배인방을 나섰다.

그가 방을 나서 몇걸음 걷자마자 언제 와 있던지 리재기가 재빨리 옆에 와 서며 물었다.

《말했나?》

인학은 그가 말하는 뜻을 몰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래 뭐랍데?》

그제야 인학은 그가 기술혁신안이야기를 묻고 있다는것을 알았다.

인학은 쓸쓸히 그를 외면하며 걸어 갔다.

3

그날 저녁 인학은 지배인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갔다.

밤도 이슬해 성의 있게 마련된 자리도 끝나고 그가 집을 나섰을 때 명심이 뒤따라 섰다.

광산마을은 아직 잠들념을 하지 않고 있었다. 불 밝은 골목골목에서 아이들의 흥뜬 놀음놀이 소리가 들려 왔다.

꼭꼭 숨어라
내옆에 내뒤에 숨는건
백번 범

어릴적의 추억을 불러 내는 소리였다.

달도 유난히 밝았다. 그러나 그들은 말없이 걸었다.

광산마을이 끝나는 저편쯤에서 기분이 좋아 두 팔을 휘저으며 걸어 오는 리재기가 보였다. 나란히 걸어 오는 인학과 명심을 보자 그는 멈춰 서서 하얀 이를 드러내며 싱긋이 웃었다. ,

그러더니 외통길에서 그들을 피해 주겠다는듯 옆골목으로 쏙 들어 가 버렸다. 골목길로 불쑥 들어 서는 불청객에 놀란듯 어느 집 영악한 강아지가 바스르지게 짖는다.

《위리- 이놈의 개!》

놀란 목소리라기보다는 내가 누구다 하고 한마디 뽐내는듯한 그 목소리가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저편으로 멀어 저 간다.

인학과 명심의 얼굴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피어올랐다. 그것으로 하여 거북하고 조마조마하던 그들사이의 침묵도 사라졌다.

《인학동지!》

무엇인가 중대한 이야기를 할듯 처녀는 힘들게 말을 열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인채 안타깝게 주저했다.

인학은 서서히 다가오는 압박감을 느끼며 처녀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집에서도 자기의 얼굴빛을 자꾸만 눈 여겨 살피던 처녀의 눈빛이 떠올랐다. 인학이 느끼고 있는 그 복잡한 심정을 함께

느끼고 있을 처녀다.

피로우면서도 그러나 피할수 없는것이라고 여겨졌던 그것이 끝내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명심은 끝내 말을 떼지 못한채 호 하고 한숨을 내쉬며 옆에 선 나무의 잎사귀를 뜯었다.

그 잎사귀를 새삼스럽게 들여다 보던 처녀는 말했다.

《래일쯤엔 폭풍이 불것 같군요.》

《폭풍?!》

《예! 이 나무는 은백양나무인데... 폭풍이 다가오면 잎을 안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온통 허영게 보여요. 미리 준비를 하는거지요. 저런 나무들은 연약해 보여두 폭풍에 잘 견디더군요.》

그들은 멈춰 서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내린듯 온통 희끄무레하게 보이는 나무를 오래도록 지켜 보았다.

...

다음날 아침, 명심의 말처럼 폭풍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자연은 한껏 긴장해 진듯 싶었다. 서로 바투 맞닿은 하늘과 땅이 점점 더 무서운 힘을 품고 내리 누르고 올리 힘 쓰고 하는듯 했다.

인학은 문제의 그 기술혁신안을 토의하러 자기 방을 찾아 온 리재기에게 사실을 말해 주리라 결심했다.

그는 천천히 자기 책상앞에 놓였던 광산의 원가소비정형과 카바이드공장폐기를 주장하는 그 보고서를 리재기앞에 내밀었다.

보고서를 읽어 나가던 리재기의 눈이 있는것다 커졌다. 다 읽지도 못하고 급하게 치뜬 눈으로 인학을 바라본다.

《이건 어찌려구 쓴건가?》

《광산당위원회에 제출했다가... 성에 올려 보낼 겁니다.》

리재기는 뜻밖에도 잠잠해서 앉아 있었다. 그러더니 말했다.

《역시 큰 사람은 큰 사람이구만. 자네가 옳을듯하이. 아니... 옳네!》

《?!》

리재기는 또 잠잠해 앉아 있더니 의자를 끄당겨 자세를 똑바로 하고는 인학을 마주 보았다.

《내 한마디 하자구. 이건 사업상 얘기가 아니라 그저 인간적으로 하는 소릴세. 자넨 아무 말이 없었지만 온 광산이 자네가 뭘 하려구 내려왔는지 다 아네. 속으루들 기뻐 하고 있지. 그런데 자네손으로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면... 아니, 자네가 옳지 않다는건 아니야. 옳은것에두 방법이 있는거네. 그래서 생활이야. 이 사람! 내 말 듣게. 꼭 보고서에 써여 진대루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자넨 아무말 없이 그냥 올라 가게. 올라가서 자네 대신 판 사람을 보내게. 그 사람이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게라두 하라구. 응? 자네가 자기 손으로 저 지배인의 뺨을 치면... 사람들이

자네를 손가락질 하네. 그 사람이야 지금 지배인 생활 마감단계가 아닌가. 이제 그 범 같은 사람이... 난 막 소름이 돋네.》

그는 정말 지배인이 앞에 있더라도 한뼘 기겁을 하며 일어섰다.

《자네 너무두 생활을 몰라. 헛내기라니까. 꼭 내 말대로 하게. 자기가 빠져 나갈 구멍두 좀 열어 두어야 하는거야. 응?》

그는 잠시 인학의 얼굴을 살피더니 황황히 방을 나가고 말았다.

인학은 피로한 심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에는 어느덧 폭풍이 불어치고 있었다.

어디선가 나무잎사귀 하나가 휩 날려 와 창유리에 붙어 버린다. 누런 반점들이 드문드문 박힌 병든잎이었다. 창유리에서 흘러 내리는 비물에 씻겨 한치한치 떨어져 내리던 그 나무잎은 끝내 어디론가 다시 날려 갔다. 인학은 그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물론 리재기의 말대로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대신하게 할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생활의 격류 속에서 일군의 위치도 잃지 않고 사람들의 욕도 먹지 않는 눈치 빠른 사람으로 처신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래일에는 이러한 아픈 사정앞에서 어쩔수 없어 지고 마는 나약한 일군으로 이어 지지 않을까?

문득 지배인이 하던 말이 귀전을 찼다.

《...사람들에게 생활을 초월한 힘든 요구를 할 때두 마음이 편할 때가 있는데 그건 자기가 겪어 봤거나 이겨내 본 그런것들을 요구할 때네. 제가 그 힘겨운걸 이겨 냈구 또 그럴 때 옹게 처신해 본 일은 사람들에게 요구하기가 한결 쉽네.》

인학은 거의 두려움에 가까운 생각으로 지그시 눈을 감았다.

사람들에게 한사발의 물을 주려면 자기의 가슴 속에는 한독의 물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바로 일군들은 사람들에게 요구하기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높은 요구를 제기할줄 알아야 하며 그것을 실현할줄 알아야 만다.

(그렇다면 인학이 너는 이 아프고 힘겨운것을 싣뜻 요구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광산의 가장 자그마한 재산도 헤아리며 아끼는 저 지배인과 같은... 광석생산을 위해서 식량보다는 카바이드를 더 요구하는 광부들과 같은 그런 심정이 될 때라야만 이 힘겹고 피로운것을 몇몇이 요구할수 있지 않을까?)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했다. 모든것이 삼시에 확 불 타오르며 인학의 망막에 자기의 존재를 뚜렷이 태워 새기는듯 했다.

그 순간 인학은 자기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이 광산과 주변광산의 여러 일군들앞에 가장 떳떳하게 요구할수 있는 길은 자신이 한그람의

카바이드가 무엇보다 귀함을 느낄줄 알며 바로 그것을 위해 실지로 뛰는 광산사람이 되는것이다.

인학은 가쁘게 뛰는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할가?)

그 순간 그의 눈앞에는 바로 이렇게 무서운 폭풍이 불어 치던 그날의 일이 어제런듯 떠올랐다.

...

중요한 전투기술기재를 정한 시간까지 군단사령부에 도착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소대장 리인학은 소대를 이끌고 달려 가고 있었다.

폭우로 하여 더 어둡던 저물녘이었다.

그때 인학은 폭을 넘어 난 시커먼 감탕물속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벼단들을 보았다.

한그람의 쌀이 귀한 때였다. 하여 조국보위초소를 지키던 인민군군인들이 농장별로 달려 나가 피보다 진한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 온 그러한 가을이었다.

이제 그냥 가면 논판의 저 수많은 벼단들이 감탕에 묻히고 말것이다.

인학은 전사들에게 벼단들을 길우에 올려 놓고 가자고 호소했다. 전사들은 신발도 벗을새 없이 감탕물속에 뛰여 들었다.

이때 논옆 큰길로 살갈이 달려 오던 몇대의 승용차가 환한 전조등불빛속에 가까이 멈춰 섰다.

사나운 비발과 눈부신 불빛때문에 잘 가려 볼수 없었으나 간부들 같았다.

인학은 그쪽을 향해 소리쳤다.

《자, 밥을 먹는 사람들은 다 이리로 오시오.》

그러자 그 불빛속에서 호탕한 웃음소리가 날아왔다.

《하하... 옹소! 옹게 말했소. 자, 동무들! 우리도 하지요.》

그쪽에서 몇몇 사람들이 논판에 뛰여 든다.

찬연한 전조등불빛속에 사람들이 황금색 그림자마냥 움직이는 그쪽에서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울려 왔다.

《<밥을 먹는 사람들은 다 오라!> 옹은 말이요. 우리 군인들이 옹당 웨칠수 있는 말이요.》

그가 간부이든 누구이든 그것이 옹은것이라면 우리 군인들은 저 동무처럼 밥을 먹는 사람은 다 오라구 주저없이 소리칠수 있는거요. 그것은 그들이 다만 농사를 지었기때문이 아니라 바로 조국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안고 살며 투쟁하기때문이요. 그런 각오를 지닌 사람은 논판에 잠긴 벼단들을 보고 절대로 그냥 지나갈수 없는것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 군인들이요.》

저 하늘에서 울려 오는듯 하던 우렁우렁한 목소리.

인학은 문득 심장을 광 치는 예감에 그 자리에 굳어 졌다. 그러나 그 순간 일을 끝낸 전사들이

길위에 정렬했다. 명령 받은 시간까지 도착하자면 이발을 악물고 달려야 한다.

인학은 두렵도록 벽찬 예감에 시달리며 자기들을 도와 준 그 눈부신 금색불빛을 향해 정중히 경례를 불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불빛속에서 한대의 승용차가 달려 나오더니 그들의 앞을 밝혀주며 뒤 따라 오기 시작했다.

찌릿한 감동속에 전사들은 힘껏 달렸다.

그렇게 군단사령부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몇 시간전 장군님께서 자기들의 군단을 현지시찰하시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인학은 가슴을 치던 자기의 예감이 헛된것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전사들은 장군님 떠나가신 길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못 잊을 그날을 돌이키며 인학은 결심했다.

그렇다! 우리 장군님께서 가장 사랑해 주시는 군인의 각오와 같은 그런 높은 요구성을 자기의 가슴속에 안고 살아야 한다. 그런 요구를 안고 사는 일군만이 사람들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광산으로 다시 내려 오자. 와서 지배인동지와 광산을 돕자. 그것이 도덕적으로도 원칙적으로도 가장 떳떳하게 광산의 카바이드공장 폐기를 요구할수 있는 길이다.

인학은 광산당위원회를 찾아 갔다. 제기된 모든 문제와 광산으로 다시 내려 오려는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보고서를 들고 지배인방으로 갔다.

그 보고서를 받아 들고 첫장을 살펴 본 지배인의 얼굴이 검검하게 굳어 졌다. 그 보고서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은채 담배를 한대 천천히 뽑아 무는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그리고는 재털이를 찾는듯 한손으로 경황없이 책상우를 더듬었다.

그러나 역시 빨리 들듯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그러다 지배인은 그만 헛손질을 하여 책상 끝에 놓여 있던 재털이를 득 소리가 나게 밀어 놓고 말았다. 그 순간 재털이는 책상우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네끝에 호랑이의 머리를 부각한 그 목직한 도자기재털이가 박산이 났다.

두사람은 다같이 흠칫 놀랐다.

성을 내듯 현철지배인이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섰다. 그는 탄 사람이 재털이를 박산내기라도 한듯 성난 눈길로 그것을 내려다 보았다.

《미안하네! 좀… 나가주게. 나갔다가 십분후에… 아니 한 삼십분후에 다시 와주게. 미안하네.》

지배인은 숨 가쁜듯 떠엄떠엄 말했다.

인학은 눈물이 펑 하고 어릴것만 같은 피로움속에 천천히 방을 나갔다.

잠시후 인학이 다시 지배인방으로 들어 갔을

때 지배인은 없었다. 마지막장이 펼쳐 진 보고서가 책상우에 놓여있었다.

꺼여진 재털이도 대충 모아져 있었다.

인학은 지배인을 찾기 시작했다.

지배인은 카바이드공장 전기로앞에 서 있었다.

카바이드공장에서는 한참 출강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붉은 화광과 백열이 이글거리는 카바이드 돌물이 레루우에 서 있는 밀차식형타우에 떨어져 내린다.

형언할수 없이 아름다운 물보라가 튀어 오른다.

삽시에 주변은 숨이 가빠지리만큼 강렬하고 아름다운 색조로 물들었다. 동화세계 같은 신비함과 거창한 활력이 한데 어울려져 온 작업장이 통채로 확 달아 오르고 부글부글 끓는듯 했다.

그속에 서 있는 지배인의 얼굴은 환하게 웃는 듯했다. 붉게도 보이고 희게도 보이며 어떤 때는 온통 황금색으로 물들기도 했다.

그의 온몸에서는 폭우속을 뚫고 온 물기가 김으로 문문 피여 오르고 있었다.

전기로의 거창한 열광과 함께 그자신도 세차게 끓어 번지는듯 했다.

이어 출강작업이 끝나고 새 원료작업이 시작되었다. 권양기가 절커덕거리며 로의 한쪽켠에 있는 상승대로 밀차를 끌어 올린다.

그 밀차에 석회석이 담겨져 있다.

한순간이면 밀차가 상승대꼭대기에서 원료를 쏟아 넣을것이다.

카바이드로는 여전히 들먹거리며 새 원료를 기다린다.

누구도 이 거창한 생산의 흐름을 멈춰 세울수 없다는듯 모든것이 활기에 싸여 여전하다.

그 순간 인학과 지배인의 눈길이 서로 부딪쳤다. 지배인은 인학을 괴롭게 외면했다.

원료밀차는 점점 더 상승대 정점으로 오른다.

인학은 숨 가빠 오는 피로움속에 그것을 지켜 보았다.

그 순간 현장을 진동하는 지배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원료작업을 그만두게. 그만!》

인학은 고개를 핵 돌려 지배인을 바라보았다.

현장이 한순간 고요해 졌다.

지배인은 피로운듯 고개를 떨구고 잠시 우두커니 서있었다. 무슨 말을 할듯 한손을 쳐들더니 다시 획 내리 그었다.

《직장장, 불을 끄게.》

지배인은 천천히 돌아 섰다. 인학을 보더니 한마디했다.

《사무실로 좀 와주게.》

그가 사라지자 리재기가 침울해 진채 인학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마주 보았다. 리재기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내 우리 지배인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줄 알았더니... 진짜 무서운건 자네세.》

지배인과 인학은 사무실에 말없이 마주 앉아있었다.

종이장으로 네귀를 접어 만든 재털이에 콩초가 수북하도록 담배를 태운 현철지배인이 침묵을 깨며 말했다.

《사실 나두 괴로웠네. 저 카바이드로가 잘못된 것이라는걸 알았거든. 그래서 그 첩관절약안두도에 있는 공장으로 가져 가라구 했네. 하지만 알면서두 솔직히... 무서웠어. 자기를 이겨 내기가 얼마나 힘든것인지... 아깐 추태를 보여서 미안하네.》

《지배인동지!》

그들의 번쩍이는 눈길들이 서로 부딪쳤다.

《당비서에게서 자네가 성에 제기해서 여기 남겠다고 했다는 소릴 들었네. 고맙네. 많이 배웠네.》

《아니, 지배인동지!》

《내 말을 막지 말게. 자네 마음을 다 알아. 하지만 성에 올라 가게. 자네 같은 일꾼들은 성에도 필요하네. 그래서 당에서 자네를 성으로 부른거야. 거기서두 오늘처럼 일해 주게, 응?》

《지배인동지!》

끝내 눈앞이 흐려 와 인학은 고개를 떨구었다.

지배인도 눈을 습벽이더니 창가로 돌아 섰다.

《명심이두 다 리해할거야. 이겨 내기는 힘들겠지만... 너자니까. 정 그러면 자네가 어릴 때처럼 창문밑에다 카바이드꿀풀이라구 새겨 넣게. 응? 허허...》

목 베인 웃음소리였다. 그들은 눈물이 그렇게 진채 서로를 뜨겁게 마주 보았다.

《전... 명심동무를 믿습니다.》

《그래! 이겨 내기 힘든 폭풍이지만... 이겨 내면... 힘이 되지.》

창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이 불어 치고 있었다.

일꾼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자기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

그것은 바로 저 폭풍과 같은것이 아닐가?

자연의 흐름에는 만물의 자양으로 되는 햇빛도 있지만 때로는 이겨 내기 힘든 폭풍도 있다.

그러나 만약 그 폭풍이 없다면 자연은 자연으로서의 자기의 고유한 법칙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 폭풍으로 하여 생을 유지하려는 만물의 왕성하고 굳센 본능이 더해 지는것이며 바로 그 계기점들에서 자연의 생명력은 놀랄만큼 확대되는것이다.

그러한것으로 하여 광산마을입구의 저 은백양나무도 폭풍우를 이겨 낼 준비를 하는것이며 연약하지만 수십년 세월 끄떡없이 서 있는것이다.

낡고 쇠퇴한것은 사라져 버리고 아름답고 굳센것이 번성하며 또 잃어 버린것만큼 보충되는 자연의 순환과정은 그 폭풍으로 하여 시작되는것이다.

결국 빛도 자연의 생명력이라면 폭풍도 역시 자연의 추동력인것이다.

우리 일꾼들의 가슴속에 바로 이런 폭풍이 없다면 어찌 이 땅우에 진보와 번영의 폭풍이 일것냐?...

가사

전호가의 소나무

전룡우

포연이 가서 진 옛 전장 전호가에
무성하게 자라난 푸르른 소나무
결전의 그 나날 목숨 바쳐 지켜 낸
영웅전사 그 모습 뜨겁게 새겨 주네

고지는 불 타고 바위는 부서져도
소중히 품에 안아 가꿔 온 소나무

푸른 숲 설레이는 조국땅을 그려 보며
영웅전사 육탄되어 결사전에 나갔네

그날의 그 병사 돌아 오지 못했어도
승고한 녀를 안고 설레이는 소나무
참다운 조국애를 이 가슴에 새겨 주며
영웅전사 오늘도 전호가에 함께 사네

평양의 눈보라

전인광

랭겔버그, 조나탄, 루이스... 오 그리고 저건 그 킨콕크대위...

화면은 꺼졌다. 참관자들이 일어 나 《푸에블로》호 선실밖으로 나갔으나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악연도 인연인 셈이다. 30여년전 피의자와 예심자로 마주 앉았던 그 간첩들을 그때의 모습 그대로 다시 보게 되니 나는 그 어떤 격세지감마저 느끼며 어지간히 흥분됨을 어쩔수 없었다.

록화화면은 수십년전의 모든것을 한꺼번에 나의 뇌리에 되새겨 주었다. 나는 문득 내 온몸을 감싸며 배회하는 그 어떤 냄새를 느꼈다.

그 냄새는 한번 느껴 지자 배 전체에 배여 있는듯 새삼스레 온몸에 엄습해 오며 폐장안을 가득채우는것 같았다. 30여년동안 털고 닦고 도장까지 새로 한 배에서 그 냄새가 날리는 만무하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냄새가 분명히 느껴 졌다. 그것은 후각으로가 아니라 느낌으로 감득되는 그런 불결한 냄새였다.

(1)

당시 내가 담당했던 《푸에블로》호 선원들은 특수분견대가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분견대장인 킨콕크대위와 C 조 조장 랭겔버그 그리고 조나탄을 비롯한 12명의 분견대원들과 흑인 루이스, 그밖에 필리핀계 사병으로서 레질 모로마가 속해 있었다.

외국어대학을 졸업하고 군관강습반을 나와 전연부대의 정찰군관으로 복무하던중 이 사건의 조사사업에 동원된 나는 우리 나라의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이끌어 간 이 사건의 장본인들인 이 미국간첩들을 끝 없는 적의감과 증오심을 가지고 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난생 처음 직접적으로 대상하게 된 이들 미국인들을 정찰일군이라는 직업적인 눈으로 그들의 생활리면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투시해 보려고 애 썼다. 그런 나의 눈에 비낀 그들은 과연 어떤 인간들이었던가? ... 그들의 인생관, 인생철리는 어떠했으며 그들의 인생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심문과정에 그들은 기회만 생기면 부모와 애인의 사진과 편지를 꺼내 보여 주며 눈물이 글썽해서 빨리 돌아 갈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곤 했다.

한 해양연구원은 안경알이 깨져 글을 볼수 없다가에 며칠후 새로 맞춰다 주었더니 복도나 마당에서 만날 때마다 머리를 굽벅하며 여간 감심해 하지 않았다. 흑인인 루이스는 우리가 백인들과 식사도 한방에서 시키고 담배도 그들과 같이 《갈매기》를 한달에 한보루씩 꼭꼭 공급해 주며 대우해주니 너무 고마와 어쩔줄을 몰라 했다. 그는 배에 오르기 전 요꼬하마에 있을 때나 또 승선한 후에도 백인들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해본일이 없었다고 했다.

《우리 흑인인권지도자 마틴 루터 킹목사가 늘 얘기하던 만민평등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하고 그는 눈물이 글썽해서 말하곤 했다.

그러나 《푸에블로》호 선원들중에는 특이한 부류의 그루빠가 있었다. 그것은 특수분견대였다. 간첩선에서 그 배가 전문전자도청정탐선이라는것을 정확히 알고 있던것은 6명의 장교와 이 임무를 수행하는 30명의 이 특수분견대원들뿐이었다. 전문전자전교육과 특수정보학교를 거친 이들은 선실과 전자청정실을 상감판에 따로 가지고 임무를 수행했는데 철저한 비밀준수를 위해 순 앵글로색슨족으로만 꾸리고 지휘도 오직 킨콕크대위의 지시만 받게 되어 있었다. 함장외에는 누구도 이 분견대일에 간섭할수 없었다. 말하자면 다른 인종은 믿을수 없다는 내속인 셈이었다. 기타 갑판, 기관정비, 취사 등 보장임무는 흑인과 혼혈인, 아시아계잡병들이 맡고 있었다. 특수분견대원들은 전원이 대학졸업생이었다. 그들은 저들이 《선발된 지식인집단》이라고 다른 사병들을 깔보고 멸시했으며 그들과 뒤섞이려 하지 않았다. 대원들이 그 정도이니 분견대를 지휘하는 킨콕크가 어떠하리라는것은 짐작키 어렵지 않을것이다.

킨콕크는 그 류다른 개성으로 첫 심문때부터 나의 주목을 끌어 온 자였다. 그는 한마디로 《신사냄새》가 물씬 풍기는 장교였다. 미국의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을 졸업하고 해군 정보장교가 된 그는 늘 반듯하게 빗어 넘기고 다니는 머리며 조용히 상대방을 응시하며 논리 있게 이야기하는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가 어떤 기품조차 느끼게 했다. 말이 적고 사병들도 큰 소리 치지 않고 대하곤 해 그는 함에서 《가장 정돈되고 문명한 장교》라는 일반사병들의 평을 얻고 있었다.

그해 4월에 접어들면서 정세가 어느 정도 완화된속에 사건조사를 일단락 지은 기본성원들

이 떠나가고 미국놈들이 수용된 청사에는 관리성원들만 남게 되었다. 나도 그냥 떨어지게 되었다. 아마 미국의 지방방언까지도 알고 있던 나의 영어 실력이 큰 작용을 하였던것 같다.

당시 미군간첩들을 수용한 건물은 평양교외의 한 야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다. 높은 담으로 둘러 막힌 길다란 2층건물이었는데 조사가 끝난 것과 관련하여 그들이 들었던 방들을 전면조절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심문과 조사때문에 같은 임무를 수행하던 자들은 모두 격리하여 분산수용했었다.

그러던것을 기본적인 심문이 끝나게 되자 관리에 편리하게 조별로 집결하였던것이다.

내가 맡은 조에서도 그날 아침 방들을 새로 조절했다. 이미 예정한대로 복도 중앙의 작은 첫방을 킨녹크의 랭검버그에게 주고 나머지 대원들은 3~4명씩 조를 무어 2층 맨 서쪽끝의 내 방으로 오면서 차례로 나누어 들게 했다.

제각기 갈라져 있다가 다시 모이게 된 분견대 사병들은 좋아라 희희낙락하며 기뻐들 돌아 갔다.

다시 자기 조원들을 인솔하게 된 랭검버그상사는 의기양양해서 방마다 찾아 다니며 먼지를 깨끗이 털고 청소를 잘하라고 훈시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다. 관리총화보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 방앞에 주야간 서 있는 무장보초가 킨녹크가 찾아 왔다고 알려 주는것이였다. 나는 무슨 일인가 해서 들어 오라고 했다. 방안에 들어선 킨녹크는 한가지 부탁할것이 있다는것이였다. 평소 자존심이 강한 킨녹크가 진지한 표정으로 무엇인가 부탁을 한다는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무슨 부탁인가고 물었다. 그의 소청인즉 두번째 방에 들게 된 조나탄일병과 자기 방의 랭검버그상사를 바꿔 달라는것이였다. 원래 배에 있을 때 조나탄을 전달병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심부름도 시키고 한방에서 자곤 했다고 했다.

나는 대번에 속이 울컥했다. 자기 사병들과 같은 조를 편성해 주자마자 사병을 한갓 심부름꾼으로 여기는 그 습성을 못 버리고 이따위 소리를 하다니, 나는 어이 없어 분홍빛 피줄이 파랗게 들여다 보일 정도로 껌질이 얇은 킨녹크의 창백한 얼굴을 쳐다보았다.

《랭검버그와 함께 있으면 안되는가. 그도 당신 부하가 아닌가?》

내 눈빛에서 맛갓잡은 기색을 읽은 킨녹크는 난처한 기색이였다.

《대위님!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랭검버그의 성격이 너무 거칠어서 제가 불편해서 그렇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 이유라면 그럴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첫 심문시에 분견대를 책임진 장교와 그 직속부하인 조장의 관계인데도

어딘가 킨녹크와 랭검버그사이에 미묘한 적의가 흐르고 있는것을 감촉했었다.

킨녹크는 자기 분견대원들을 평가하면서 다른 사병들은 우결함을 함께 지적했지만 랭검버그에 대해서만은 랭정했다. 럭비와 레스링을 잘하지만 건전한 스포츠정신을 소유한 자가 못된다는것, 성미가 사납고 샤일록 찜찌 먹는 수전노이면서도 남달리 독실하게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어 사병들은 그를 이리의 속심을 양의 껌질로 감싼 카멜레온이라고 멀리한다는것이였다. 그것은 킨녹크답지않게 그 자신의 어떤 감정이 강하게 섞인듯한 독설처럼 들렸었다.

킨녹크를 돌려 보낸 나는 그날 저녁 사업총화 때 현지에서 사건을 책임지고 있던 박천석대좌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

《랭검버그가 불편하다... 그 킨녹크가 호강에 초치겠군. 제놈이 지금 우리에게 불합쳐 온 간첩이라는걸 잊은게 아니요?》

나를 건너 보며 의미 있게 이렇게 말을 댔 대좌는 무엇인가 생각더니 놈들의 체기가 극히 평범한 생활적인 문제라고 해도 그속을 각성 있게 투시해 봐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진석동무! 그래서 내 생각엔 랭검버그는 그대로 두고 조나탄을 그 방에 들도록 하자는게요.》

다음날 조나탄일병은 킨녹크의 방으로 옮겨갔다. 나는 그대신 랭검버그는 그 방에 그대로 둔다는것을 킨녹크에게 언명했다. 킨녹크는 내심 소래썩은 상이었으나 어쩔수 없는듯 그대로 응낙하고마는것이였다.

그런데 다음날 또 한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리발문제였다. 머리칼이란것은 그 바쁜 정세속에서도 생리적법칙에 따라 자라는것이여서 리발사 한사람이 미군간첩들의 머리를 매일같이 깎아 줘야 했다. 그때까지는 보위성산하한직속구분대의 리발사아바이를 데려다 놈들의 머리를 깎아 주었는데 두달을 못 넘기고 아바이가 기권을 했던것이다. 도무지 노린내가 심해 못 깎겠다는것이였다. 그때 미군간첩들의 리발, 목욕 같은 편의사업도 겸해 맡고 있던 나는 좀 참고 마지막까지 해달라고 설복을 했다. 그런데 아바이는 내가 로동당원이니 눈에서 불이 이는것도 당적분공으로 생각하고 깎아 줬지 다른 사람이면 어렵잖다, 자꾸 구역질이 나 더 못 참겠으니 리해해달라고 오히려 사정하는데는 나도 어쩔수 없었다.

생각던끝에 나는 경비소대를 찾아 갔다. 그때 청사경비를 서던 항공록전병소대의 리발사는 용진이라는 중키의 하사였다. 그런데 그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길 네길 뛰는것이였다.

《아니 대위동진 날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아니 내 가슴에서 계급성의 날을 기어코 쫓자는겁니까? 뭘니까? 어쨌든 미국놈 대가리는 절대 못

깎습니다.》 하고 모욕이나 당한듯이 접어 드는 통에 말문이 막혀 버리고 말았다.

원래 《푸에블로》 호에도 리발사가 있었다. 공교롭게도 나포당시 무기가옆에서 저항하려다 즉사한 그 흑인사병이 바로 리발사였던것이다. 일은 맹랑해 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자체로 깎게 하는편이 나을것 같았다.

그날 저녁 미국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나는 한두번이라도 머리를 깎아 본 사병이 있으면 일어서라고 했다. 하면서도 기대감은 별로 없었다.

(원래 리기적인 이자들중에 이런 구지레한 일에 나설 놈이 과연 있겠는지.) 하고 우려하고 있는데 의외로 중간에서 키가 작고 얼굴색이 적동색으로 검붉게 탄 고무머리사병 하나가 냉큼 일어 서는것이였다. 눈 여겨 보니 취사병인 필리핀계 사병 레질 모로마였다. 머리를 깎을줄 아는가 물으니 좀 서툴기는 해도 할수 있다고 서둘러 대답하는것이였다. 나는 다행스러워 리발도구를 그에게 안겨주며 잘해 보라고 어깨까지 툭툭 쳐주었다.

그후 그가 머리 깎는 모양을 며칠 지켜 보니 영투르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열성을 가지고 달라 붙었던지 하루가 다르게 그 수준이 늘어 가는게 알려 다행이라고 큰 숨을 쉬게 뻬었다.

(2)

이런 일들이 있는 며칠후의 이른 새벽이였다.

나는 급히 자기 방으로 오라는 대좌의 긴급호출을 받았다. 아직 기상시간이 아닌 때였다. 혹시 어떤 정황이 생긴건 아닌가? 하는 예감에 와닥닥 자리를 차고 일어 난 나는 바빠 군복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 갔다.

원래 일에 몰두하면 한나절동안도 까딱 않고 사색에 집념하는 특이할만큼 집중력이 강한 박천석대좌는 내가 들어 선것도 모르고 한손으로 턱을 고인채 무엇인가 골똘히 들여다 보다가 곁에 다 간뒤에야 눈길을 들었다.

그의 서글서글한 눈빛이 웬일인지 긴장되어 있었다.

《진석동무! 이 쪽지를 좀 보오.》

대좌는 몇겹으로 접었던 자리가 또렷한 손바닥만한 종이조박을 내놓았다. 영어로 박아 쓴 종이의 내용을 읽어 본 나는 놀란 눈길로 대좌를 바라보았다. 종이에선 특수분견대의 랭겔버그상사가 탈출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것이다.

《이 쪽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오늘 새벽에 청사밖을 순찰하던 보초가 얻었소. 아마 우리 눈에 띄이게 하느라고 창문을 통해 순찰통로에 떨어준것 같소, 탈출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쨌든 이놈들이 훈련 받은 무장간첩들이고 그 성원이 거의 한개 중대나 되는만큼 무심히 넘길 소리가 아니요. 랭겔버그가 동무가 담당한 놈이지?》

《예, 그놈을 당장 끌어다 심문해 봅시다.》

《아니, 우선 그자의 사소한 동향도 놓치지 말고 잘 살펴 보오.》

대좌는 무엇인가 생각하는듯 말을 끊었다가 심중하게 이 었다.

《그보다 먼저 알아 볼것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자가 누군가 하는거요. 이런 음모가 있다는걸 알려 주면서 왜 자기를 숨기는가. 어쩐지 이쪽지 자체가 어떤 음모 같은 말이요. 랭겔버그가 지금 킨옥크, 조나탄과 한방에 있지?》

《예!》

《그 킨옥크가 방배치를 새로 해달라고 할 때 꺼림직했는데 그 세놈을 다 구체적으로 주시해야 겠소.》

《알았습니다.》

그날로 경비가 강화되고 80여명의 간첩들에 대한 면밀한 료해와 감시가 분담되였다.

나는 그날 저녁까지 킨옥크를 비롯한 담당한 자들을 하나하나 만나 일반적인 담화를 하면서 그들의 내심을 타진해 보았다. 그러나 특별히 의심이 가는것을 느낄수 없었다.

나는 초조해 지지 않을수 없었다.

저녁식사후 나는 놈들의 자백서를 가져다 필적대조를 해보며 우선 쪽지를 쓴 자를 찾았다. 눈이 아프도록 책상에 앉아 필적을 하나하나 대조하느라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런데 방문앞에 서 있는 보초가 문을 열고 나를 불렀다.

《대위동지! 방금 랭겔버그놈이 루이스의 방으로 갔습니다.》

경비가 강화되면서 보초병들은 놈들의 사소한 이례적인 움직임도 즉시 보고할 임무를 받고 있었다. 그때는 취침시간이 지난 때여서 놈들의 호상류동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놈이 자지 않고 무엇때문에 돌아다니는가. 나는 바싹 긴장하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루이스의 방앞에 이르니 두런두런하는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러나 무슨 소린지 알아 들을수 없었다. 나는 조심히 문을 열었다. 루이스는 침대에 뒹굴어 떨어져 코를 골며 자고 있고 다른 두 백인사병이 침대가장자리에 랭겔버그와 마주 앉아 작은 수첩같은것에 무엇인가 적고 있다가 와풀 놀라 일어났다. 랭겔버그도 흘끔 나를 돌아 보고 닝큼 일어섰다. 그러면서도 혼연한 표정으로 수첩을 집어 바지주머니에 넣는것이였다.

저자들이 저기에 적는것은 무엇인가?

순간에 짙은 의혹이 뇌리를 스쳐갔다.

《랭겔버그! 취침후엔 다른 방에 가지 못하게 된 질서를 모르는가?》

《이제 시간을 헤 잘못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랭컴버그는 반죽 좋게 사죄하고는 두 사병에게
 빙긋 웃어 보이고 문으로 향했다. 그런데 문을
 열며 하는 그자의 수작이 야릇했다.
 《헤이 이렇게 빨리 가면 그 킨녹크씨가 바쁘겠
 는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더니 커다란 엉덩이를
 흔들며 자기 방쪽으로 걸어 갔다.

그 말이 또 새로운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왜 킨녹크가 바쁘다는건가?

나는 지그시 입술을 사려 물었다.

저놈의 수첩에 적혀 있는게 무엇인가를 알아
 내야겠는데...

다음날은 아침부터 체육경기가 벌어 졌다. 때
 마침 전날까지도 통통하게 부풀어 있던 마당의
 살구꽃망울들이 그날 아침에 일제히 흰 구름처럼
 피어나 짙은 봄기운이 넘쳐 났다. 그해의 꽃구경
 이 처음이다 보니 장교, 사병할것없이 전부 떨쳐
 나 오래간만에 우울과 번민을 잊고 뉘악 고아대
 며 마당에서 공을 가지고 놀았다.

밤새껏 그 수첩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던 나는
 마침 조용한 기회에 랭컴버그의 방을 한번 보기
 로 했다.

밖에서 벽적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보초
 를 데리고 랭컴버그의 방으로 들어 갔다.

나는 방안을 한번 휘둘러 보았다.

역시 킨녹크의 침대는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으
 나 랭컴버그의 침대는 엉망진창이었다. 베게도
 마구 뭉그러져 있고 백포도 구김살이 간 그대로
 였다. 침대우에는 랭컴버그가 마당으로 뛰어 나
 가면서 벗어 던진 옷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마당에서는 톱구경기가 한창이었다. 랭컴버그
 가 승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 다니며 판을 치고
 있었다. 역시 랭컴버그는 행동성이 강한 인물이
 였다.

저런 놈이 탈출을 기도한다면?...

한끝을 넣은 랭컴버그가 좋아라 경충거리며 휘
 익- 휘파람을 불어 댄다.

돌아 서서 침대우를 살펴 보는데 랭컴버그의
 바지주머니에서 반쯤 빼여 저 나온 수첩이 눈에
 보였다. 어제밤 랭컴버그가 동료들과 함께 쭈군
 덕거리던 바로 그 수첩이었다.

그것을 든 나는 서둘러 첫장부터 번져 보았다.

여러 사병들의 이름이 내려 가며 적혀 있고 그
 앞에 날자순에 따라 어떤 수자들이 밝혀 있었
 다.

거기에는 조나탄과 루이스, 레질 모로마 등 내
 가 담당한 사병들의 이름이 거의 다 적혀 있었다.
 루이스의 이름옆에도 2월 10일 3, 3월 20일 5 하
 는 식으로 날자와 수자가 적혀 있고 어제 찾아
 갔던 두 사병의 이름옆에도 어제 날자와 수자가

씩여 있었다.

이 날자와 수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거기 적힌 이름과 수자들을 놓고 종으로 횡으로
 련결시켜 보며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었다. 하지
 만 아무리 뜯어 보아도 그것은 어떤 암호 같지는
 않았다. 날자열의 수자가 한자리 수이고 무정형
 적으로 오르내린것이 어떤 물건에 대한 계산표
 같기도 했다.

그런데 수첩의 이름중에 뜻밖에도 킨녹크의 수
 표도 있어 나는 은근히 놀랐다. 장교가 사병의
 수첩에 수표를 했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
 고 생각하며 킨녹크의 수표를 살펴 보던 나는 K
 자와 O 자에 시선이 멎었다. 편뜯 뇌리를 치는 생
 각이 있었다.

조용히 그 방을 나온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어
 제의 그 쪽지편지를 꺼내놓았다. 그리고 랭컴버
 그 수첩에 있는 킨녹크의 수표와 그 쪽지에 쓰
 인 K 자와 O 자들만을 골라 대조해 보았다. 필체
 가 같았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랭컴버그
 가 탈출음모를 꾸민다고 우리에게 알린것은 킨녹
 크였던것이다.

어제도 킨녹크의 자백서를 놓고 필체대조를 했
 던 나는 그때는 왜 찾아 내지 못했던가 하는 생
 각이 들었다. 쪽지의 필체를 보니 잘 알아 보지
 못하게 교의적으로 흘려 쓴 흔적이 뚜렷이 알렸
 다. 특정한 글자를 놓고 대조했으니 말이지 필체
 를 맞춰내기 힘들었다. 하긴 정보장교란 자가 그
 만만한것도 생각 못했을텐가.

나에게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박천석대좌는
 버릇처럼 한팔로 턱을 고이고 다른 팔로는 그 팔
 굽을 고인채 두뼉두뼉 방안을 오갔다.

《진석동무! 더 미룰 필요가 없소. 증거가 충분
 하니 그 두놈을 동무가 심문해야겠소.》

대좌는 랭컴버그부터 먼저 따져 보라고 했다.

(3)

랑컴버그는 광선이 희미한 곳에서 보면 영낙
 없는 숲속의 고릴라였다. 그리 크지 않은 중키에
 약간 구부정한 어깨며 력비로 다져 진 넓고 억센
 어깨며 별로 길어 보이는 손이 그런 느낌을 주는
 지 몰랐다. 그의 인상에서 유표한것은 길쭉한 얼
 굴에 어울리지 않게 녹아 붙은 초딩어리처럼 얼
 굴중심에 모양없이 두드러진 커다란 코였다. 그
 덩어리코밑에 까만 코수염이 붙어 있어 멀리서
 보면 흙을 털지 않은 양파대가리 하나가 얼굴가
 운데 붙어 있는것 같았다.

나포직후 첫 심문때 그의 경력을 듣던중 가장
 인상 깊었던것은 그의 부친에 대한것이였다. 그
 의 아버지는 오레곤주에서 큰 목재창고를 관리
 하면서 캐나다에서 목재를 받아다 가공하여 팔
 아 돈을 버는 기업가였다. 그러나 판로개척을

위한 경쟁에서 같은 기업들을 온갖 음모적방법으로 파산시키고 나중에는 마피아까지 동원하여 자기 기업에 흡수하려다 결국은 랭겔버그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캐나다의 숲속에서 살해되고 말았다.

강한것만이 살아 남는다는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생활에 적용시킨 아버지는 랭혹성을 키운다고 갓난아때부터 그를 생나무침대에서 채웠다고 했다. 걸어 다닐 때가 되자 방안의 바퀴, 벼룩을 끝까지 따라가 밝아 죽이게 했고 학교에 다닐 때는 캐나다의 북부도시로 데려가 여우사냥군들속에 밀어 넣어 동토대나 다른 없는 극한에서 고행을 이겨 내는 훈련을 주었다. 그러면서 늘 혼시했다. 《인생은 연습이 없다. 그시그시가 다 실전이다. 강해서 타누르고 이겨야 한다.》

그 아버지가 제일 증오한것은 인간의 동정심이었다. 랭겔버그가 다리를 저는 한 흑인아이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채찍으로 한시간을 두들겨 팬 일도 있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그가 린색하고 포악해 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할것이다.

그는 한쪽으로 꼭 다문 입술을 실룩실룩 움직여서는 하악골과 상악골 관절부위에서 딱 하는 소리를 내는 괴상한 버릇이 있었는데 내가 가리킨 의자에 앉자마자 또다시 입귀를 실룩거리기 시작했다. 여간 태연자약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물었다.

《랭겔버그, 우리에게 뭔가 숨기는게 없는가?》

검을 씹듯 절룩거리던 턱이 푹 멎었다. 양파대 가리밀의 흠뿌리 같은 코수염이 푸들처럼 떨었다.

《없습니다. 대위님! 전 이미 나포직후 심문과정에 다 털어 놓지 않았습니까.》

랭겔버그는 두팔을 벌려 보였다.

나는 그의 두눈을 날카롭게 쏘아 보며 따졌다.

《너는 지금 분견대의 다른 조장들과 탈출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는가?》

랭겔버그의 두눈이 화등잔만큼 커졌다.

《대... 대위님! 그...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전 정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거짓말 말아!》

나는 그루 박듯 밀막으며 그 종이쪽지를 그앞에 내놓았다.

《읽어보라.》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아 든 랭겔버그는 내용을 읽더니 얼굴이 꺼멓게 죽어 들었다. 눈을 감고 무엇인가 생각다가 다시 눈을 뜨더니 그 얼굴이 검붉게 살아 올랐다.

《킨녹크! 킨녹크다, 이 개자식이...》

랭겔버그는 거품을 물고 부르짖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이건 당신들의 손을 빌려 나를 없애 치우려는 그 킨녹크대위의 모략입니다.》

랭겔버그는 두눈을 희번득거리며 의자를 끄당

겨앉았다.

《제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킨녹크대위가 왜 자기 방에 조나탄일병과 함께 있었다고 했는지 까닭을 모를겁니다.》

하면서 씹어 뺨뿔 털어 놓기 시작한 그의 이야기는 전혀 상상밖의 이야기였다.

...킨녹크와 조나탄일병은 동성 연애자들이었다. 한해전 미국의 대서양기슭의 부르머턴에서 그들 분견대가 훈련을 받고 있던 어느날 밤이었다. 외출했다 돌아 온 랭겔버그의 조 사병들 여럿이 무엇인가를 잘못 먹고 식중독에 걸려 한꺼번에 쓰러진 일이 발생했다. 랭겔버그는 급해 맞아 분견대장인 킨녹크의 방에 예고도 없이 뛰어들어 갔다. 거기서 그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킨녹크와 조나탄의 상서롭지 못한 동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랭겔버그는 곧 알아 차렸다.

평시에 거만하고 랭정한 킨녹크를 좋지 않게 보던 랭겔버그는 다음날 이 사실을 군검열관에게 직보했다. 당시 동성애조직을 전국에 확대하자는 시위가 거리를 휩쓸던 때였지만 군대만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서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었다. 군검열관은 킨녹크와 조나탄을 둘 다 강제제대시키겠다고 펄펄 뛰었다.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함장이 랭겔버그의 밀고가 전혀 무근거한것이라고 다시 상부에 제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불명에 제대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을것이다.

함장의 비호로 겨우 제대를 면한 킨녹크는 도리어 체면에서 기세등등해서 로골적으로 랭겔버그를 질시했다. 랭겔버그의 성격에 그것을 참아낼리 만무했다.

그래서 그들 둘사이에는 언제나 싸늘한 랭기와 적의가 흐르고 있었다.

킨녹크는 조나탄을 자기의 정식 전달병으로 임명하여 밤마다 보란듯이 침실로 불러 갔다. 그때마다 조나탄은 꺼리낌없이 조장인 랭겔버그에게 보고하고 가군 했는데 그것이 랭겔버그의 부아를 한층 더 돌구어 놓곤 했다. 인민군대에 나포된 뒤 그들 동성연애자들은 죽은듯 숨을 죽이고 살았다. 그런데 정세가 완화되면서 병실이 바뀌게 되자 킨녹크는 다시 조나탄과의 동거를 꿈 꾸었던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나탄이 아닌 랭겔버그와 한방에 들게 되었으니 개와 고양이사이인 그들로서야 타오르는 적의와 증오심에 하루한 시도 숨이 가빠 함께 있을수가 없었다.

《조나탄은 들어 왔으나 내가 그대로 있으니 킨대위는 그야말로 발밑에 시한탄을 던고 선 심정이 있을테지요. 그래서 부르머턴에서의 복수도 합쳐 나를 제거해 버리자고 한겁니다. 음...》

이를 가는듯한 분노와 살의에 가까운 증오가 랭겔버그의 두눈에서 번뜩였다.

반듯이 빳어 넘긴 머리, 랭정한 자세와 론리 있는 언변... 지성인장교의 인품을 갖춘 그 킨녹

크의 해말썽한 리면이 것처럼 구리고 추할줄은 나도 상상밖이었다.

《랭겔버그! 그렇다면 이 <탈출음모>란 말은 전혀 무근거한 소린가?》

랭겔버그는 그 말에 힐끔 나를 쳐다보았다. 날 카로운 내 눈길과 마주친 그는 《사실 전혀 무근거한것은 아닙니다.》 하며 머리를 떨구었다.

…랭겔버그가 탈출을 운운한것은 사실이었다. 사건이 터진 후 미국이 사죄를 할 대신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데로 나가자 그에 대응하여 공화국의 태도도 의연 강경해 졌다. 미국이 계속 고압적으로 나오는 경우 공화국법대로 나포된 간첩놈들을 처형해 버릴것이라는 단호한 태도였다.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누구라 없이 불안과 절망에 잠겨들지 않을수 없었다.

이렇게 되자 고강도 레인저훈련(특수훈련)도 받은적 있는 행동력이 강한 랭겔버그는 극단의 경우 탈출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같은 분견대의 조장들에게 그런 말을 얼핏 비친적이 있었다. 별자리를 보고도 해도에서 자기 위치를 찾을줄 아는 이 훈련된 간첩조장들은 청사는 어떻게 빠지며 대동강을 따라 서해로 나가 남으로 도망칠수 있다는 방안토의도 했다 한다.

이놈들이 마지막순간까지 한시도 각성을 늦춰서는 안되는 위험한 놈들이라는것을 재삼 일깨워주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무모하고 실현불가능해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저 생각으로 그친, 미수에 지나지 않는 <탈출>입니다. A 조 조장인 바셀이 킨옥크대위에게 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비친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묵묵부답이였고 내앞에서도 전혀 내색 안하던 킨옥크가 그것을 음모로 꾸며 나를 잡자고 드니…》

다시 랭겔버그의 입귀에서 관절 엇갈리는 소리가 났다.

《그렇다면…》 하고 나는 그의 사물칸밑에서 찾아낸 그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네가 장교와 사병들에게서 수표 받은 이것은 무엇인가?》

랭겔버그의 얼굴은 진짜로 놀란 빛이었다.

《아니, 이게 어떻게…》 하며 두꺼운 입술이 푸르르 떨렸다.

《여기 적힌 날자와 수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랭겔버그는 내 얼굴을 멍하니 지켜 보았다. 이 지러진 코날개가 벌름거렸다. 한참만에야 내가 그 수첩에 의혹을 가지고 있는것이 무엇때문인가를 깨달은 모양이었다.

《대위님은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한테서 담배를 외상으로 가져 간 자식들의 명단과 그들에게서 받은 수표입니다.》

《뭐라구?》

나는 저도모르게 한절반 의자에서 일어 섰다. 온몸에 팽팽했던 긴장이 한순간에 풀리며 이번에는 내가 혼란에 빠졌다.

《그럼 이걸 너의 담배를 자기 동료들에게 팔았다는 날자와 수표들인가?》

내가 하도 어이 없어 묻자 힘을 잃은 내 어조에서 무엇인가를 느낀듯 랭겔버그는 활기를 띠며 설명했다.

《대위님! 제가 원래 담배를 안피웁니다. 그런데 한달에 30갑씩 공급해 주는 그 값나가는 기호품을 팔지 않고 공으로 넘기겠습니까?》

《하지만 그거야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게 아닌가. 그걸 돈을 받고 제 동료들에게 팔다니, 말이 되는가?》

《공짜로 생겼지만 어떻든 이 랭겔버그의 소유물이 아닙니까.》

정색해서 나를 쳐다보는게 자주 따지고 드는 내가 오히려 리해되지 않는다는 태도였다. 그러면서 그것만은 좀 뭇한지 이번달에 조별로 내준 세탁비누도 몇장 더 온게 있길래 그것 역시 사병들에게 팔아 버렸다고 하면서 험스케 웃는것이였다.

《사실 이번에 북조선측에 나포되는 통에 특수야전비도 다 떼우고 손해밖에 본게 없게 됐지만 그나마의 공돈이라도 생기니 다행입니다. 역시 하느님께서는 독실한 이 랭겔버그를 잊지 않고 살펴준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입이 쓰고 뺨에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앞에 앉아 력설하는 랭겔버그의 양과덩어리 같은 그 탐욕스러운 시뻘건 코를 바라보면서 나는 언젠가 고래배속에 삼키워 들어 간 어떤 난파선의 장사군이 그속에서도 장사를 했다는 유령의 민화를 읽었던 기억을 새삼스레 떠올렸다.

나에게서 킨옥크와 조나탄에 대한 이야기와 랭겔버그의 그 수첩에 대한 구체적사연을 들은 박천석대좌는 처음에는 한참 웃었다. 그러더니 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그야말로 욕망과 돈에 얽매운 가련한 인생들이군. 저러면서도 자기들을 가장 <고등한 인간>들이라니…》

대좌는 무엇인가를 털어 버리듯 머리를 흔들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이 땅에 그런 더러운 냄새를 더 풍기게 할순 없지. 킨옥크를 비롯해 분산시킨 장교들을 한방으로 집결하고 사병들도 더 구체적으로 료해하여 일체 그런 행위를 엄금해야겠소.》

《그 랭겔버그의 수첩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좌는 맹랑한 표정이었다.

《그거야 그자 말마따나 그의 개인재산인데 어떻게 간섭하겠소. 하지만 지금은 동무가 그냥 가지고 있소.》

박천석대좌는 손을 저으며 나가버렸다.

(4)

그는 적대국의 수용소에 갇힌 그런 최악의 조건에서도 변태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해 상상할수 없는 수단과 방법도 태연하게 구사하는 그런 사나이였다. 조나탄을 제 방에 끌어 넣기 위해 애절한 표정을 짓고 절박하게 사정을 할만큼 연극을 놀줄 알고 랭컴버그의 탈출미수를 하나의 음모로 만들어 쪽지까지 써서 던지며 부하를 서슴없이 밀고할 만큼 자기 목적에 뱀같이 달라붙어 끈질기게 실행해 내는 그런 《점잖은 신사》였다.

내 방에 불러 온 킨옥크를 보자 나는 단번에 그가 온갖 오물이 묻어 있는 걸레처럼 보여 지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킨옥크는 자기가 랭컴버그를 모해했음을 솔직히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조나탄과의 동성애를 절대 금한다고 엄하게 강조하자 좀체로 납득되지 않았다.

《대위님, 동성애는 나라는 한 인간의 자아의 확인입니다. 그것이 귀 정부와 귀측에 어떤 손실을 끼치는 일이 아닌 이상 나와 조나탄 개인의 사생활인데 그것을 막는것은 너무한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람다운 삶만이 향유되는 우리 공화국령토이다. 이 땅에선 그런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대위님, 그럼 솔직히 말합시다.》하며 킨옥크는 그 차거운 눈으로 나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우리 배 성원들중엔 동성련애자가 저나 조나탄만이 아닙니다. 함장이 왜 랭컴버그의 기소를 무마해 버린지 압니까? 우리 함에 게이(동성련애자)가 10여명이 넘기때문에 우리 둘만을 제대시키는게 무의미하다는걸 알고 있기때문이였습니다.》

나는 아연해 졌다. 이자들을 만나면서는 그들의 생활리면을 파들어 갈수록 놀라움의련속이었다. 이 킨옥크와 같은 인간들이 이 청사안에 10여명이나 우글거린단 말인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다.

나의 낮빛이 놀랍게 굳어 지는것을 본 킨옥크는 랭소를 띤 얼굴로 쓰겁게 말을 이었다.

《대의님은 잘 모르실수 있겠지만 우리 미국은 그야말로 <자유의 천국>이지요. 아마 우리 조나탄 일병의 가정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대위님은 미국에서 개인의 자아표현과 인권자유의 폭이 얼마나 넓은가를 아마 리해하게 되리라 봅니다.》하며 킨옥크는 조나탄의 가정에 얹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콜로라도 대협곡에 자리 잡은 미국의 국립공원의 하나인 그랜드캐니언에서 자그마한 호텔을 경영하는 조나탄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죽은 후 딸 하나를 가진 미모의 녀인을 데려 왔

는데 조나탄이 성장하여 대학에 간 후 이북녀동생 엘리스와 아버지사이에 기이한 일이 생겼다. 12년 같이 사는 기간에 엘리스가 어머니를 제치고 몰래 아버지와 동거를 시작했던것이다. 엘리스도 따져보니 이북어머니가 양딸로 데려다 키운 아이였다.

어느 날 그 딸은 어머니앞에 자기가 곧 아버지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다. 분노한 이북어머니는 집을 뛰쳐 나가고 방학때 집에 오니 엘리스는 조나탄의 녀동생으로부터 어머니로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법적으로 그의 아버지이자 매부가 된셈이었다.

이 일을 놓고 소도시에서는 일부 비난도 있었으나 지방신문들을 비롯해서 시민 대다수가 그 일은 아버지와 그 딸의 자유에 맡길 일이지 그 누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것, 인간생활에서 능히 가능한 하나의 시원을 열었다는 립장이 우세했다.

생활의 갈피가 온통 혼돈되고 가정이란것에 환멸을 느낀 조나탄도 녀자친구들과 닥치는대로 동거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치자 동성련애를 즐기는 게이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인차 싫증나자 대학이고 뭐고 집어 치우고 한 음식점의 접대부로 들어 가 헤로인을 흡입하며 자고 먹고 노는 몽롱한 인생을 살았다.

어느 날 그는 식당창고의 습기찬 구석에서 커다란 방구통이 한마리를 잡게 되었다. 우연히 그것을 유리로 된 빈 파일쥴임통에 넣고 나무막대기로 노란 대가리를 쿡쿡 찌러 보았다. 그때마다 흰 가스를 픽픽 쏘며 내달리는것이 여간 재미가 있지 않았다. 그 방구통이가 유일한 친구로 된 조나탄은 군대에 입대할 때도 그것을 가지고 입대했고 이번에 《푸에블로》호에도 그것을 가지고 승선했다. 그 방구통이에 《파분》이란 이름을 붙였다. 《파분》이란 화생방시간에 배운 흰 연기를 내는 신경성독해물의 이름이었다. 시간이 생길 때마다 그놈을 꺼내놓고 개미나 진디물을 던져주며 쿡쿡 찌르곤 했다. 그때마다 흰 가스를 쏘며 필사적으로 바닥원을 따라 달리는 그놈을 지켜 보다가는 그 역시 그 어떤 충동에 이끌려 함께 동심원을 그리며 방안을 달리곤 하는것이 그의 하루생활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런데 배가 나포되면서 혼잡통에 그 병이 박살났다. 《파분》은 종적을 감춰 버렸다. 지금도 조나탄은 그놈을 잃은것을 제일 애석해 하며 꿈자리에서도 찾는것이였다.

《대위님! 기존의 도덕이나 법도 력사의 어느 한 시대 인간들이 만든것일진대 왜 현대사회의 인간들이 교루하게 낡고 진부한것에 매달려 구속을 받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도덕이나 량심, 체면 이러루한 불필요한 인간감정을 제거한다면 인간생활은 얼마나 더 단순하고 자유롭게 향유되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원시적삶의 개념으로 돌아 가야 하느니 어쩌니 증언부연하는 그의 녀두리가 더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까부터 속에서 울컥울컥하며 스멀스멀 고여 오르던 그 무엇인가가 자꾸만 구토감을 불러일으키기때문이었다.

킨녹크가 이야기하는 《문명》한 미국인들의 그 모든 생활과 이야기와 장면들이 하나의 완벽한 표상으로 인찍혀 왔다. 그것은 두엄더미옆에서 볼수 있는 온갖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한여름의 시궁창이었다.

킨녹크를 돌려 보낸 후 나는 깨저분하게 온 정신과 육신을 감아 도는 탁류가 방안을 배회하는 것 같아 밖으로 나왔다.

페부 가득 들이키는 상쾌한 밤공기가 그렇게 시원하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다.

밝은 달이 밝았다. 먼 야산끝에 금시 솟아 오른 둥실한 보름달이 은실금실 은은히 뿌리는 속에 쪽, 쪽, 쪽 금선을 튕기는듯한 외쪽독이소리에 섞여 소쩍, 소쩍 소쩍새소리가 가슴을 적셔 온다. 나의 눈앞에는 멀리 북변 후창 산골의 수옥이가 떠올랐다.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군당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전선에 나가 문화부련대장으로 싸우다 락동강에서 전사한 후 어머니마저 병으로 잘못되자 나는 마을 대장쟁이 림령감의 집에서 그집 막내딸 수옥이와 함께 자랐다. 무림천의 서덜진 개울물에서 산천어를 잡다가 수옥이 그만 개울바닥을 잘못 짚어 고기다래끼를 떨구는 통에 한나절 잡은 고기를 다 떠내려 보냈을 때 나는 너무 분해 수옥의 귀통을 질러 주었다.

공교롭게도 그날 군에서 말파리를 타고 온 한 간부의 손에 이끌려 학원으로 떠나게 될줄이야. 그 일이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아 1년 내내 수옥에게 사죄편지만을 썼었다.

그때의 련련한 추억이 푸근한 밤안개처럼 유정한 감회를 불러 온다.

방학때마다 나는 기차를 타고, 마차를 타고 수천리길을 달려 후창으로 갔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우정은 사랑으로 커갔다. 수옥은 특별한것이 없는 이 땅의 평범한 처녀였다. 그러나 자기 고향, 자기 학교, 자기가 배워주고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얼마나 뜨겁고 강렬한것이었던가.

지난해 가을 휴가를 가니 수옥은 3년 세월 무림천을 업어 건네며 공부를 배워 주던 소아마비로 다리를 잘못 쓰는 영준의 수술을 위해 함흥으로 나갔었다.

이번 평양으로 떠나올 때 받은 편지에서 그는 썼다.

《진석동무! 오늘 영준이가 쌍지팽이를 버리고 제발로 대지에 섰어요. 그애도 울고 그애 부모도 울고 온통 눈물범벅이 된 그 애를 불안고 나도 울었어요. 그리고 진석동무를 생각했어요. 영준이 부모는 그 애때문에 결혼을 3년이나 미룬 저를 불쌍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 찬사가 저를 그토록 고무해주고 리해해준 진석동무에 대한 찬사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바치는 사랑과 우애로 해서 인간은 아름다운것이다.

나는 달빛 밝은 운동장을 천천히 걸었다. 경비소대쪽으로 향했다. 취침시간후면 의례 한번씩 돌아보는것이 습관이였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런 뜻도 없었다. 그저 우리 사람들속에 섞이여 그들의 숨결을 호흡하고 싶은 충동에 이끌렸다할가.

보초소들과 병실, 무기가를 돌아보고 세면장으로 들어가니 용진하사가 빨래를 하고 있었다. 여겨 보니 소대병사들이 취침하면서 벗어 놓은 발싸개였다. 한소랭이나 되는 그것을 섞이지 않게 분대별로 갈라 놓고는 차례차례 빨아서 건조대에 널군한다. 미국놈대가리는 죽어도 못 깎겠다고 펄펄 뛰던 생각이 나 땀이 송골송골 맺힌 그의 코잔등을 슬쩍 튕겨주었다.

《좋은 일을 하누만.》

용진은 혜식은 웃음을 씩 웃었다.

《이런걸 뭐 좋은 일이라고 해야 합니까? 직일이면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그 단순하고 순진한 대답이 왜 이리 가슴 뭉클하게 하는가.

지난해의 동기훈련때 일이다. 그가 속한 룡전소대는 락하훈련을 하던중 한 상등병이 산조종을 잘못하여 한 락하산에 돌이 엉켜 붙는 뜻밖의 정황이 생겼다. 돌이킬수 없는 사태가 몇초안으로 급박한 위험천만의 그 순간 남먼저 이 광경을 목격한 용진이 쏜살같이 옆으로 측찰하며 자기옆을 날아 내리는 그 락하산의 퍼진 자락을 손으로 잡았다. 그리고는 두 전우가 매달린 120kg이 넘는 락하산 한끝을 위에서 억척같이 틀어 쥐고 착지 지점까지 내려왔던것이다.

결국 두 락하산에 매달린 썸이 된 세병사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고 위험을 면했다고 한다. 경비소대장은 나에게 그 말을 하면서 사실 용진의 그 순간의 행동은 거의 본능적이다 할 정도로 생각할 여지없이 단행된 행동이었다고 했다.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 본능처럼 돼있다는 그 말이 그때 얼마나 나의 가슴에 새겨졌던가. 그렇다고 그 일은 누가 떠든 일도 신문에 크게 난 일도 없었다. 땅에 내려 온 용진이 락하산을 얼마나 꼭 틀어쥐었던지 그의 손이 완전히 경직되어 손가락 하나하나를 펴서 겨우 풀었다고 한다.

수옥이, 용진이 ... 사랑과 뜨거운 인간애로 서로 돕고 이끌며 하나의 인간화원을 가꿔가는 우

리 사람, 우리 인민들은 얼마나 좋은가...

한울타리안에서 너무도 편이하게 느껴지는 두 생활을 놓고 깊어 지는 생각에 나는 늦도록 잠들 수 없었다.

(5)

내가 《푸에블로》호 선원들과 함께 있었던 기간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의 하나는 아마 필리핀계사병 레질 모로마일 것이다.

필리핀 민다나오섬의 아바카삼을 재배하는 농장에서 소년로동을 하다가 9년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모로마는 키가 작고 허리가 굽어서 얼핏 보면 다부지게 만든 절구통 같은 사나이였다.

그는 나에게 자기가 순수 돈을 벌기 위해 미군에 지원병으로 입대했고 특수야전비와 해외수당금이 붙는다해서 재차 지원한것이 《푸에블로》호였다고 했다.

키가 작은 그가 미군에 입대하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이며 나는 이 작은 아시아인의 완강한 생활력에 감탄한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배에서 그는 취사와 청소를 겸하는 잡병이었다. 그는 《푸에블로》호가 무슨 임무를 수행하는 배인지도 몰랐다. 일반의 잡병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바다를 싸다녀며 무엇인가 듣고 재고 측정하는 연구선이라고 생각하고있는것이 고작이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돈이었다. 적잖은 봉급이 지불되는 이 배에서 복무기간 한푼이라도 더 벌고 저축해서 조지아주의 땅콩농장에서 그를 기다리는 같은 족 처녀인 아란다와 가정을 이루는것이 그의 최상의 목표였다.

우리는 인도주의적립장에서 식사를 그들의 요구대로 빵과 밥을 반반씩 섞어 해주었는데 아래층 취사칸에서 만든것을 밥국통에 들고 올라가 식당을 한칸 만들고 저희들끼리 배식해 먹었다.

나포된 직후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식사를 운반하고 그 뒤청소까지 모로마가 전부 도맡는 바람에 우리 관리성원들도 어리둥절했었다. 그만큼 그는 배에서 노예처럼 온갖 사역을 치르는데 버릇되어 있었던것이다.

그런 모로마를 랭겔버그가 구라한 사건이 생긴것은 아마 8월말경이라고 생각된다.

그날 평양시내에 나가 공화국창건 20돐을 앞두고 진행되는 3천명대합창단공연을 관람하고 돌아온 《푸에블로》호 선원들은 오후에는 마당의 풀뽑기를 했다. 그런데 작업을 끝마친 그들이 자기방으로 다 밀려 들어간 얼마뒤였다. 책상에 앉아 그날 관리정형을 기록하고있는데 밖에서 법석 고아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무슨 일인가 하여

문을 열고 나갔다. 2층 복도 한켠에 있는 변소쪽에서 누구인가 웅크 고아대고 있었다. 그쪽으로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데 루이스의 부축을 받은 레질 모로마가 변소칸 문을 잡고 쓰러질듯 비칠하더니 변소안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소리 지르는것이였다.

《야, 이 오레곤의 늑대야, 네놈이 아무리 분견대 조장이래도 내가 맞고만 있을줄 아느냐.》하는 서슬에 랭겔버그의 곰 같은 몸이 문짝을 툇기며 뛰쳐 나오더니 키가 어깨에도 오지 않는 작고 땅딸막한 모로마의 먹살을 잡고 공중 쳐들었다. 모로마가 어떻게 울리 받았던지 그도 코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이 자식, 더 주둥아릴 놀려라!》

《랭겔버그!》하는 나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리지 않았더라면 다음 순간 모로마의 턱이 부서져 나갔을지도 몰랐다.

힐끔 나를 돌아 본 랭겔버그는 전기라도 감전된듯 멍칫 굳어졌다. 그의 손에서 풀려 난 모로마는 눈등이 부어 오른 얼굴이 뺨경계 상혈되어 구세주라도 만난듯 절룩거리며 나에게 다가왔다. 곱슬머리에 작지만 정열적으로 번뜩이는 눈매가 여간 만만치 않았다.

《대위님, 저의 공소를 정식 접수하여 공정하게 판결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아직 영어가 서툰 이 아시아인이 얼마나 차렷 자세로 서서 떠듬거리며 근엄하게 얘기했던지 나 자신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 졌었다. 나는 잡병에 불과한 모로마에게서 당한 굴욕의 쓴물을 어이없이 삼키며 분을 못 참아 씹씩거리고 있는 랭겔버그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 구류시키게 하고 레질 모로마가 몸을 씻게 했다. 그 다음 내방으로 데려다 사연을 물어 보았다. 그때 내가 모로마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가는 독자들도 미처 생각 못할것이다.

싸운 경위를 묻자 모로마가 처음 리발값때문이라고 해서 나는 무슨 말인가 했었다.

《리발값이라니! 그건 무슨 소린가?》하고 내가 의아해 묻자 모로마는 처음부터 설명을 했다.

그가 자청하여 80여명 선원들의 리발을 맡아 나섰것은 그것이 수익이 높은 직업이기때문이었다. 모로마는 리발을 시작한 그때부터 근 석달반사이 머리를 깎아 준 매 장교와 사병들에게서 본국에 돌아가면 리발값을 지불한다는 수표를 받아 댔는데 유독 랭겔버그만이 거퍼 세번째나 령수증을 써주지 않았다는것이였다. 모로마가 자기에게서 선대한 세값의 담배값과 세번 깎은 리발값을 상사해서 령으로 해버리고 말자고 하더라는것이였다. 그래서 자기는 딱 잘라 댔다고 했다. 담배세값값이라야 머리 한번 깎는데 지불하는 액수만도 못하다는것이였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나는 두번이나 리발값을 밀지는 셈인데 아 내가 바보라고 그런것을 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는 못하니 어서 지

불확인서에 수표하라고 독촉했지요. 그랬더니 오늘 번소로 오라고 해서는 본견대 조장을 뿔로 아는가고 하면서 밟고 때리는겁니다.》

모로마는 열이 나서 침방울을 땀기며 설명했다. 아, 그랬구나. 나는 짐작되는게 있어 머리를 끄덕였다. 레질 모로마가 기술도 없으면서 리발을 제가 하겠다고 것처럼 나섰던 사연이 그제야 깨닫게 되었던것이다.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해 주마고해서 모로마사병을 내보내면서 나는 속으로 혀를 차지 않을수 없었다.

이 청사에 잡혀 와 우글거리는 미국인들모두가 그야말로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생각을 어쩔수 없었다.

아직 자기들의 생사운명이 확정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저지른 엄청난 정탐행위로 우리 공화국의 단호한 응징을 받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그 자신들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리 담당성원들을 만나며는 제발 용서해달라 빌고 외신기자들을 만나면 세계의 언론과 여론에 자기들의 처지를 널리 알려 하루 빨리 돌아 갈수 있게 해달라고 울고 불고 기도하는 그 번뇌와 우울과 불안속에서도 한푼의 돈을 놓고 아귀다툼을 벌리는 이 생명들을 어찌 불쌍하지 않다고 할수 있겠는가.

이 간첩선의 선원들을 매개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매달리는 대조선침략의 본심에 대해서도 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다.

미국이 100여년에 걸쳐 필사적으로 이 나라에 기여 들어 것처럼 부식하려고 하는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저 선원들이 가지고 있는 저 동물적인 본능과 욕망의 추구, 오직 돈과 재부에 집착한 리기와 타산, 약육강식의 생존방식, 그러루한 썩어빠진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면 그야말로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사려 먹고 저 서양의 《문명》의 사자들을 사정없이 쳐엎어야 하는것인가.

그해 12월도 다 간 23일 아침.

관문점에서는 미국정부가 드디어 저들의 죄상을 인정하고 사죄한데 기초하여 공화국정부가 그 승무원 82명 전원을 공화국경외로 추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근 1년간 끌어오던 《푸에블로》 호사건은 끝나게 되었다.

그 전날 평양 이남지방에서는 밤새많은 눈이 내렸다.

《푸에블로》 호 선원들이 수용돼있던 청사의 지붕과 마당, 담장우에도 푸근한 흰눈이 훨씬 내려덮였다. 조선의 대지에 어지럽고 추한 자국을 남긴 아메리카 이방인들의 자취와 냄새를 깨끗이 세척해 내려는듯 온 대지를 하얗게 덮었던 눈은 추방되는 그들이 뺄스를 탈 즈음에는 눈보라로 변했다.

관문점에 도착하니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었다.

공화국정부의 성명이 발표되고 박천석대좌가 한명씩 호명하여 적측 명단과 대조한 후 그들은 다리를 건너 남으로 넘어 갔다.

킨녹크는 그동안 많이 돌봐주어 감사하다고, 크리스마스명절을 미국에 가 즐길수 있게 해줘 정말 고맙다고 내 손을 잡고 사의를 표했다. 그는 지나간 일은 다 잊은듯 여전히 신사답고 배의가 깎듯했다. 루이스의 공허한 재빛눈은 송환되는것자체에 하등 기뻐할게 없다는듯 우울하고 덤덤했다. 조나란은 머리를 한쪽으로 짓속이고 내 앞을 지나갔는데 무엇엔가 골똥한것이 의연 찾을길 없는 《따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생기에 넘치는것은 레질 모로마였다. 그는 청사를 떠나기전에 나에게 나포돼있는 기간 1,120팔라를 벌여 가지고 간다고 그 적동색 얼굴에 열광적인 눈을 빛내며 기뻐했었다. 그는 끝내 랭컴버그에게서도 수표를 받아냈다. 어쩌든 이 차그마한 필리핀 사병은 어디가나 제 뺄을 부지런히 놀리는 로동만이 인간에게 실질적인 리득을 준다는것을 앵글로색슨족들에게 일깨워 준 셈이었다.

그를 보자 나는 핀트 랭컴버그에게서 회수했던 수첩을 돌려 주려고 가지고 온 생각이 났다.

랭컴버그의 차례가 되었다. 그동안 사연도 많았던 이 야생적인 사나이는 호명되어 내앞에 이르자 모든 해후를 쓸쓸한 웃음에 담으며 머리를 끄덕이고는 그냥 다리께로 걸어 갔다.

《랭컴버그!!》

다시 그를 찾은 나는 품속에서 그 수첩을 꺼내 내밀었다. 랭컴버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노!》하고 한손을 쳐들었다. 그리고는 품속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를 꺼냈는데 원래와 꼭 같은 작은 수첩이었다. 그것을 나에게 쳐들어 보이고는 버릇처럼 입귀를 실룩거리며 돌아서서 사라져갔다.

나는 감탄할수밖에 없었다. 원래것을 잃은 그는 그새 꼭 같은 수첩을 만들어 일일이 다시 수표를 받아냈던것이다.

결국 그들은 80여명의 집단이었지만 올 때도 갈때도 개개인의 자기일뿐이었다.

눈보라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들을 보며 나는 내 몸 주위를 늘 배회하던 그 불결하고 깨저분한 냄새가 함께 씻겨가는 청신한 느낌에 정신마저 개운해졌다.

눈보라가 더더욱 세차게 불어쳤다. 무엇엔가 노란듯 온 천지를 드릉드릉 울리며 뽕얀 눈가루를 날린다. 구름처럼 피여 난 눈가루가 우우 소리치며 남쪽으로 밀려간다. 마치 저들이 이 땅위에 남긴 그 온갖 더럽고 추하고 구역질나는 모든 자취를 깨끗이, 흔적조차 없이 날려 버리려는듯 싶었다.

《푸에블로》 호 선원들을 통하여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그 리면까지 푹푹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썩을대로 썩어 냄새를 풍기는 하나의 거대한 시궁창이었다. 그들이 아무리 《인권》을 떠들고 《자유》와 《박애》, 《전 인류적가치의 문명》을 떠들어도 이미 타락의 극한에 이른 동물들의 거대한 사육장으로 전락해가고있는 미국이라는 땅덩어리에서 풍기는 그 썩은 냄새를 어찌 가리울수 있겠는가. 결례는 아무리 빨아도 결례인

것을.

×

《부대장동지! 대오가 기다립니다.》

깊은 생각에 잠겼던 나는 대좌의 목소리에 눈길을 들었다. 눈보라치는 강변에 참관을 왔던 부대대렬이 어느새 정렬해있었다. 나의 눈길은 배의 시장너머로 그들에게 향했다.

저 젊은 군인들과 참관을 마치고 돌아가는 청년들은 과연 이 배를 돌아보고 제국주의자들의 그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침략성과 그들이 순진한 이 땅의 마음들에 부식하고저 하는 그 썩고 추한 냄새를 느끼고 가는것일까? 아마 다는 모를것이다. 사회주의는 결코 총창으로만 지키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앞서 간 세대의 체험자로서 그들에게

꼭 말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새삼스레 느끼며 나는 일어 섰다.

그때처럼 세찬 눈보라가 강변을 휩쓸고 있었다.

저녁해가 불 타는 멀리 대보산쪽에서 불어오는 눈보라는 강기슭에 웅크린 그 불결한 냄새의 근원지를 단숨에 날려 버릴듯 그 기상이 자못 용용하다. 겨레의 반만년 옥같은 정기가 스며 있고 가장 깨끗하고 문명한 이 민족의 도고한 숨결이 깃들어 있는 평양을 티 한점없이 정히 지켜 내려는듯 붉은 노을을 기폭처럼 거느린 눈보라는 온 천지를 자욱한 순백의 흰 장막으로 덮으며 거세차게 불어 쳤다.

우리 제철소

주광남

제대배낭 풀어 놓고 젊어서 한생
불앞에 땀 흘리며 몸애 쇠내 배여선가
기쁨도 어려움도 함께 나누며
혈육처럼 정 깊어 진 동무들이 많아선가

제철소
나를 키워 준 그 품 그 이름
부를적마다 저도 몰래
우리 제철소
우리 제철소라고 나는 말한다

장군님께서 또다시
우리 제철소에 오시였다고
우리 용해공들이 뿔아 낸
쇠물을 보아 주셨다고
자랑 담아 말하노라
내가 마치 그이를 직접 만나뵈온듯
내가 마치 쇠물을 보여 드린듯

철의 기지 떠난지도 이젠 스무해
하건만 내 정녕
마음까지야 떠나본적 있었던가
출근길엔 철의 숨결에 먼저 귀 기울이고
때로 먼곳에 가 있어도

불노을을 그려 보기에 습관되었나니

내 만약
마음까지 제철소를 떠난다면
쇠물앞에 뜨거워 진 이 가슴도 식어지리
불물 휘젓던 그 의지는 나약해지리
장군님 심장에 박동 맞춰 사는
내 삶의 숨결은 차츰 꺼져 가리

아, 장군님과 생사운명 함께 하며
쇠물처럼 끓어 사는 습관을
체질로 익혀 준 내 사람의 영원한 품
그 품에 났을 묻고 나는 살거니

몸은 떠나서 긴 세월 흘렀어도
나서 자란 고향집을 부르듯
배우며 자란 모교를 부르듯
몸에 배인 그대로
마음에 배인 그대로
나는 부르노라, 긍지를 담아

우리 제철소
우리 제철소라고

용광로의 숨결

김무림

우리 장군님 모셨던 그날
내 심장에 타오른 걱정
네가 다 품었는가
뽀지 않고는 안될
터치지 않고는 못 견딜
나의 열정을 다 품고
세차게 굽이치는 용광로여!

너의 열풍에 약해 지면
신선한 공기속에서도 나는 피로워
너의 열풍이 높아지면
뜨거운 고열속에서도 나는 편해

언제나 만바람
만바람을 일쿠라!

끓으라, 용광로여!
나라의 생명선-김철의 심장이여!

너는 우리 장군님 주신
내 조국의 숨결이다
한껏 들이키라!
시련속에서도 굴함 없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벽찬 숨결을!

용해공 그대의 뒤를 따라

김정삼

육박의 총창인듯 최장대 번뜩이며
출선구 향하여 내달리는 용해공
불뿔는 화구 향해 육탄되어 날아 들던
그날의 리수복영웅이런듯!

힘껏 끓어라 위훈의 불구멍을
최장대 비껴 든 그대의 뒤를 따라
붉은기 휘날리며 내 조국이 진격한다
강성대국 높은 령마루에로!

먼 후날에도

김연

소금발견설자들이여!
몸은 비록 땀에 절어도
시련의 그날에 꺾지 않은
우리들의 깨끗한 그 마음이 응결되어
소금은 백옥처럼 눈 부시리

하여 먼 후날에도
후대들은 소중히 받아안으리
티없이 깨끗한 그 소금을
래일을 위해 오늘을 다 바친
장군님시대 청춘들의 깨끗한 그 사랑을!

용해공의 손

홍순화

용해공 그 손에
들어 찬것은 최장대 하나뿐
휘젓는것은 붉은 쇠물 하나뿐

허나 그대의 손은
조국의 천만당부를 안고 있는 손
원썩들이 제일 무서워 하는 억센 손이거니

오 용해공들아
힘줄 푸른 그 손을 높이 쳐들어
힘껏 불물을 휘저으라
그대들의 손에
장군님 일떠세우시는
강성대국의 열쇠가 쥐여져있다!

청춘은 가지 않았다

조인영

1

경부선 철도연선에 자리 잡은 XXX교도소.

영커 붙은 피딩이인양 검붉은 벽돌색 감옥건물에 새날의 새벽빛이 피빛으로 얼비치고 있다.

여름이다. 호박꽃철인 초여름, 주물한 무거운 철대문이 땅에 박힌듯 묵중하게 닫겨 있는 교도소 정문앞에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서울대학교, 리화녀자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리고 부산, 광주, 대전 등지의 대학가들에서 펼쳐나온 운동권학생들이며 대학교수들, 노동자들, 농민들, 회사원들, 종교인들, 부인들, 기자들과 촬영가들과 문인들...

각계각층 각양각색의 남녀로소가 운집해 서서 그 어떤 중대한 사변을 기다리는듯 초조하고 엄숙하고 숨엄하게 그리고 기꺼이 시간의 초초분분을 삶의 밖으로 밀어 던지고 있다. 시계를 정확히 맞춘 그들은 운명적인 시간으로 점 찍힌듯 싶은 정각 여덟시를 애바르게 기다리는것이다.

태반은 조반을 설때린 사람들이나 그네들의 온넛과 육신을 바쳐 한치 한치 이루어가는 민주화운동의 또 하나의 큰 승리가 눈앞에 오를, 기다려마지 않는 시간 정각 8시가 가져 올 기쁨에 시장기 같은건 잊어 버린지 오래다.

대학생들이 몰고 온 방송차에서는 그 옛날 동요시절의 정서를 불러 일으키듯 달콤하고도 애잔한 동요가 10대소녀의 청아한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각담의 호박꽃 노랑게 피면
지붕의 박꽃도 하얗게 피죠
닐리리 범나비 날아들 오는
개울가 우리집 제일 좋아요

그 누구를 위하여 선택된 노래일까. 노래는 분명 여덟시에 저주로운 교도소의 철창 넘어 나타날 주인공의 운명과 그 어떤 깊은 련관이라도 있는듯 여러번을 반복되었다. 그렇게 거듭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박차를 가하여 군중의 초조한 심리를 어루만져 주려는듯 싶기도 했다. 련이는 노래의 삶지 않은 여운과 매력있는 정서에 취한 군중의 눈길이 새벽노를 곱게 어린 우유빛 방송차의 반쯤 열려진 미닫이식 옆문으로 보이는 소복단장한 할머니한테로 쏠리었다. 그 할머니, 60객의 머리 흰 할머니는 아련한 조선치마저고리로 온몸을 단정히 감싸고서도 손길을 날렵하게 립체

록음기의 단추를 눌러 《각담의 호박꽃》을 연방 불러 내는 신비의 재간을 지니고 있는듯 했다.

군중의 태반이 도시태생으로 콘크리트와 포석과 아스팔트에 습관된 사람들이어서 분명 호박꽃과 박꽃에 대한 정서적감각이 그리 절절하지는 못해도 꿀향기 풍기는 호합진 노란꽃과 순결의 상징인양 맑은 이슬 머금은 희디흰 박꽃에 대한 정겨운 표상만은 간직하고 있는듯 싶었다.

태양이 지평선에서 퍼그나 떠올랐을 때 잠자코 서서 눈과 귀로만 주위를 감각하던 군중이 돌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머리를 떨구고 팔목시계를 긴장히 내려다 보는 사람들, 그 어떤 운명의 해돋이라도 바라듯 그들모두가 지금껏 기다려 온 정각 여덟시를 1~2분 앞두고 초침들은 다급히 채각거리고 있었다.

드디어 정각 여덟시! 군중의 눈앞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철창문은 여전히 닫겨 있었고 교도소건물의 두꺼운 철판문도 기척 없었다. 1분, 2분, 5분이 지났다. 기만인가?

군중의 심리가 바야흐로 격해 지려는 그 무렵, 드르릉... 전기장치로 움직이는 두개의 문이 동시에 열렸다.

그러자 구척장신의 참대처럼 강마른 몸에 홀령 홀령한 명주바지와 저고리를 걸친 60객의 사나이가 교도소건물의 층계를 휘청휘청 내려 섰다.

그러나 군중은 그때까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모두들 숨소리마저 죽이고 이쪽으로 허청허청 걸어 나오는 그의 몸가짐 하나, 툄동 하나, 모색 하나하나를 망막에 쏘아 새기려는듯 눈길 한번 까딱 않고 지켜 보기만 했다.

약간 꺼꺼부정한 등허리, 앞으로 휘인듯 관절을 쭉 펴지 못하는 두팔, 악과 부정의를 짓부셔 버리련듯 짹 움켜 쥔 두주먹... 아직은 거리가 있어서 로인의 얼굴을 가려 보기는 어려웠다.

하나 한걸음, 두걸음 군중을 향하여 가가와 집에 따라 그리고 아침해를 온몸에 함뿍 정면으로 받게 되자 그의 이목구비는 영화화면에 나타난것처럼 명백히 드러났다. 희다 못해 푸릿한 살갗, 홀쭉한 두볼, 살창에 패인듯 검은 주름으로 얼룩진 이마... 세여 버린 다복눈섭아래서 생기를 간직한 두눈이 강철빛으로 빛난다.

무뚝한 코와 긴 인중, 아래입술이 약간 내여 밀린듯한 입(비양과 분노에 습관된 입이 그러하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 실체가 자기들이 이제껏

수십번이나 신문에 잡지들에서 보아 왔고 그의 석방을 위하여 투쟁해 온 비전향장기수 경석규임을 알아보았다. 잡지 《말》과 신문 《한겨레》를 비롯한 수십종의 신문, 잡지들이 그의 사진과 수기를 여러차례나 게재하였고 출판물을 통하여 청년학생, 지식인, 근로대중과 호흡을 같이 해온 경석규로인이다. 그는 눈에 뜨이게 다리를 절었다. 그 거연하면서도 근엄한 절름거림으로 하여 그 철의 인간,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경석규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는듯.

비전향기수 경석규가 철창문을 나설무렵, 군중은 우-하고 밀려나갔다. 그리고는 그의 두발이 땅에 닿을세라 공중으로 높이 쳐들어 올랐다.

《와-아!》 환성이 터졌다. 사진기의 푸른 섬광들이 평국평국 명멸하고 록화촬영기들의 붉은 작업등이 동시에 켜졌다. 기자들과 문인들이 앞자리를 다투며 붐비었다.

《영웅 경석규!》 《민족의 장한 아들!》

대학생들과 군중이 합창했다. 그가 선창을 떴었는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노래가 하늘땅을 메아리쳤다. 한참만에 땅에 내려 선 경석규는 군중의 사정 없는 주무름에 어리둥절해 진 모양으로 잠시 서있더니 자기를 지켜보는 군중에게 인사라도 보내듯 싱긋 웃어 보였다. 그것이 군중의 박수를 자아내었다.

갑자기 경석규의 앞이 탁 트이었다. 잠시후 그 트인 길로 소복단장한 할머니, 아까까지 방송차에서 《각담의 호박꽃...》을 내보내던 그 할머니가 걸어 왔다. 놀랍게도 그의 두손에는 호홉진 호박꽃과 순결한 박꽃으로 꾸며진 한뭉치의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전대미문의 그 꽃뭉치를 든 소복의 할머니가 바로 서울대학교와 리화녀자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퇴직교수 민옥련이었다. 민주화운동의 선두에서 있던 그 운동권청년학생들이 너나 없이 따르는 녀교수는 지금도 대학생들을 위한 초빙강의에 종종 나간다.

민옥련은 켜 걸음으로 사뿐사뿐 걸어 왔다. 드디어 비전향장기수 경석규앞에 이른 그는 꽃향기 풍기며 꿀벌소리마저 봉봉 들릴듯 싶은 꽃뭉치를 그에게 담썩 안겨 주고는 허리를 깊이 꺾어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이윽고 머리를 든 녀인은 《이겼군요. 이겨서 철의 인간되어 돌아오셨군요!》하고 격정에 잠겨 뇌이더니 경석규의 얼른거리는 새골에 살풋이 이마를 갖다 대이었다.

《고맙소! 고마워.》

석규로인은 눈을 천천히 감으며 해별이 파사롭게 내려 쪼이는 창공으로 얼굴을 들어 올리였다. 그의 입술이 무어라 우물우물거렸다. 민옥련은 석규로인이 뇌이는 소리를 분명 가려 들었다.

《오, 태양, 태양의 힘이어! 파사로움이어!》

뒤이어 경석규의 두눈에서 수은파도 같이 묵중한것이 드르르 구울러 내려 민옥련교수의 은빛머

리카락사이로 가뭇없이 습새여 버렸다.

만사람의 숙연한 눈길이 초점을 이룬 곳에 석상처럼 오래오래 굳어 저 있는 두 사람, 경석규와 민옥련의 비범한 한생에는 과연 그 어떤 희로애락이 수놓아져있는가?

2

(민옥련의 일기)

1947년 8월 X일

앞내가 시내물 돌돌 구을고 기슭엔 닭알처럼 희디흰 곱돌, 거기선 차디찬 썸 풍풍 용솟고 앞마을 뒤마을 사람들 너나없이 그물 길어 동자질한다. 개울 건너편엔 오빠(민대식)의 송아지친구이고 나의 소꿉동무이기도 한 《신랑》 석규네 삼간초가집, 그 맞은편엔 프르르하진 못해도 기와집인 우리 집이 있다.

미군《MP》들이 이따금 파궁총 메고 다니며 이제부터 이 개울 건너 북남은 다른 나라 되었다면서 절대 건너 다니지 못하게 한다. 첩엔 《38°선》이라는 꽤쪽이 붙은 말뚝을 들성들성 세우더니 군용트럭에다가 가시철조망통구리를 싣고 와서는 드문드문 털썩털썩 떨구고 지나갔다.

우리가 어릴적부터 소꿉놀이하던 썸터, 사금파리 깨서 국밥그릇 놓고 까치밥열매 따서 과일접시라고 올리던 개울가 자갈터에 가시철망이 주욱 건너 가자 《신랑》인 경석규오빠는 저쪽 북쪽에, 《각시》던 나와 우리 오빠는 이쪽 남쪽에...

이름 모를 미군 참모장교가 쏘련의 대일선전포고이후 붉은군대의 남하를 막으려고 황황히 색연필을 들고 조선반도지도의 북판에 그어 버렸다는 38°선! 지도우의 그 저주로운 선이 땅우에 현실로 그어 지자 이 나라 민족사엔 인류가 100만년을 통하여 겪어 못본 비극이 련일 생겨 났다. 그 선우에 놓여있는 우리 마을에서만도 얼마나 많은 비극이 빚어 졌는가. 집이 허리 끊기여 본체는 이쪽에, 사랑채는 저쪽에, 푸른 언출 뻗어뻗어 호홉진 꽃 피었던 호박포기, 박포기가 미군의 군화에 짓밟히여 푸른 애호박 박산이 나고 흰박속 땅우에 눈 아프게 흩어 졌다. 각담의 호박꽃, 지봉의 박꽃, 꽃뭉 꾸던 시절은 산산히 휘뿌리웠다.

(경석규의 일기)

1947년 8월X일

남쪽마을 집들이 한채두채 헐리고 성글어 질때 우리에겐 새 소식이 날마다 날아왔다.

백두산서 싸우시던 김장군님께서 개선,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모든게 새롭고 기쁜 소식들이였다. 그런 중에 나는 농촌위원회 사업 지도내려오신 권동지라는분과 친해졌다. 김장군님술하에서 왜놈치던분이라 했다. 서근서근하고 기쁨바른, 인정도 후한분이였다.

배우고 싶어 무던히도 안달아 하던 나의 심정

을 알게 된 권동지는 며칠뒤 떠난다면서 우리 부모님과 의논하시고 내 의향을 물어보더니 함께 가자고 했다. 가서 맘껏 배우자고.

꽃강냉이 삶은것과 떡호박 흠뻑 찌서 권동지방 둘러 안아 저녁 들었다.

백두산청년대장 김장군님의 축지법이야기랑 들으며 온밤 잠 못 들었다. 아, 참 좋은 날이었다.

1947년 9월×일

마을 떠나는 날, 대식이와 옥련이서편 인사하고 하직해야지. 이른새벽, 이슬 후두두 차며 개울가로 달렸다. 《MP》놈들 없는 틈에 철조망에다가 목청껏 그들을 불렀다.

한참만에 나타난 민옥련이. 눈가에 눈물자욱 아롱아롱, 눈망울엔 수심이 자욱했다.

《오빠 서울에 대학가.》

그게 처녀의 설음이라면 설음이다. 그를 끔찍히 귀해 하던 대식이, 오빠와 헤어지는 옥련의 마음 기쁠수 없을것이다. 외로운 처녀마음 더더욱 서글프게 하고 싶지 않아 나 또한 배우러 간다고 말하기 쉽지 않았다.

자작농이면서 철파라 고용로동을 채용하던 민대식의 집은 부유중농쯤에 이르렀다. 그러니 대식이 서울공부 가는것이다.

《그래, 오빠 떠났니?》

《응, 좀전에. 민침지(대식의 좀 모자라는 5촌숙으로 그 집에 얹혀 살면서 시중드는)가 달구지에 짐 싣고 정거장 나갔어. 우리도 이제 가산 정리해 가지고 서울로 나간댔어. 아버지가 여기서 언제 볼 맞을지 모른다면서.》

동요시절의 오티, 어릴적 동무 모두 앓기는 열아홉처녀의 심정 몹시도 애바르다. 나를 보는 눈귀에서 또르르 눈물이 군다.

달덩이 같은 얼굴, 별빛 같은 눈동자, 붉은 꽃당콩쪽 같은 예쁜 입술...해맑은 처녀의 쌍겹눈에는 수심의 안개 처연히 서려 있다.

그 정상 하도 가공하여 나머지 떠난다는 말 못한채 입술을 옥물고 서 있었다. 불현듯 그가 없었다. 막아선 철조망만 아니라면 품어 어루스다듬으며 아린 가슴 달래여 주고 싶었다.

련민의 어렴풋한 감정은 기쁨에 달은 불길마냥 확-하고 솟구쳐 내 몸뚱이를 뜨겁게 휘달구었다.

스무살 청춘으로 처음 체험하는 강렬하고도 억제할수 없는 감정. 나는 아직 그러한 심리를 표현하는 말을 배워 두지 못했다. 하나 어떤 방도로든지 그 심정 옥련에게 전하고 싶었다. 눈길은 허둥허둥 방황했다. 문득 가닿은것이 처량하게 짓밟혔던 호박포기, 박포기에 용케도 피여 있는 노랑꽃, 흰꽃들이었다. 얼 나간듯 서둘러 꽃들을 뜯었다. 평화론 단꿈속에 꽃꿀 빨던 왕벌들이 놀라 꽃가루 가득 묻은 몸뚱아리로 무겁게 떠올라서는 봉-하고 향방없이 날아 갔다.

호박꽃 서너송이, 박꽃이 서너송이, 잎 없는 초

라한 꽃 묶음이나 내 마음 전달하기엔 충분할듯.

옥련은 나의 행동을 놀란 눈으로 바라본다.

나는 꽃묶음을 가시철망너머로 옥련의 가슴에 안겨 주었다. 꽃술처럼 휘인 처녀의 속눈썹이 기쁨에 떠다.

《어마나!》 처녀의 입에서 뿜겨 나온 놀라움과 경탄의 목소리, 그는 한손으로 꽃묶음을, 다른 한손으로 내 손을 뜨거웁게 꼭 쥐었다.

기쁨의 전류, 서러움의 전류 세차게 박동하며 흐르는 속에 진정할길 없는 눈물 하냥 쿵 썸 솟아 옥련의 옷자락 적신다.

《나 영사기술 배우러 가, 권동지가 함께 가자고 했어.》

《아니, 그 희한한 기술을!...》

처녀의 감탄, 뒤이어 귀청을 찢는 호각소리.

《MP》놈의 고함소리 들렸다. 《스톱!》

다시 만나자는 인사말도 못나누고 우리는 서로 헤어져 줄행랑을 놓았다. 나는 북으로, 옥련은 남으로. 아, 기쁨도 설음도 간직한 날, 잊을수 없는 날이여!

3

해방된 서울의 밤, 7월의 찜질구는 저녁이다.

한강 건너편 남쪽 어딘가에서 화광이 명멸하더니 련이어 포성이 진동했다. 하늘엔 아군 탐조등이 엇갈려 미군의 항공폭격을 견제하고 있다. 휘넓은 광장, 모여든 수천의 군중.

희끄무레한 어둠이어서 사람들의 얼굴을 가려 보기는 어려웠다. 이 저녁 해방된 서울장안에서 처음으로 공화국의 영화가 상영된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개선연설을 하시는 영상이 수록된 기록영화와 예술영화 《내고향》.

너렁청한 광장 복판에 넓은 폭의 은막이 펼쳐지고 한쪽 가늉에는 발전기 그리고 중심에는 영사기가 자리 잡았다. 몹시 긴장한 영사작업에 키가 큰 젊은 영사원은 얼굴 들새 없이 휘돌아쳤다. 화면의 중심과 초점도 맞추고 소리시험도 다하자 네모난 필립통에서 꺼낸 등근 권통들을 권별순서를 확인하면서 차례차례로 쌓아 놓았다.

관중도 다 모여 오고 영사준비도 다 끝났다.

건장없는 군복차림의 림름한 장년이 군중앞에 불쑥 나섰다. 해방된 남반부에 정치공작대를 이끌고 나와서 사업하는 권동지였다.

그는 해방된 서울시민들에게 인사를 보내고 나서 김일성장군님의 배려로 이동영사대가 조직되어 남반부 각지를 순회상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오늘 김장군님의 위대한 영상을 첫번째로 뵈게 되는 행운을 지닌 관람자들을 축하했다. 관중은 미리부터 흥분으로 웅성거렸다.

드디어 은막우에 밝고 짹짹한 화면이 비쳐지고

명료한 록음이 서울장안에 짹짹 울려갔다.

마침내 영사화면에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만고의 빨찌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영상이 높이 모셔졌다.

개선의 광장, 환호하는 40만 평양시민들에게 답례하시는 장군님!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온 겨레가 통일단합하여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우자고 웨치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

관중은 은막앞이 아니라 군중대회장에 모여 선 듯 했다. 모두 일제히 자리를 차고 일어 났다.

그리고는 환호했다.

환희의 극치, 격정의 극치, 흥모의 극치!

키가 구척이고 얼굴이 길쭉한 영사원청년은 행복에 겨운 눈길로 관객을 둘러 보다가는 연방 필름권통을 갈아 대었다. 그의 얼굴과 이마로는 줄땀이 흘러 내렸다. 한편 두권 기대결에 쌓아 놓았던 필름통기둥은 낮아 졌다.

영화가 끝나자 관중은 우렁찬 박수와 환성으로 그네들의 감정을 폭발시켰다. 어데서부터인지 모르게 《재청!》이 터졌다. 세상엔 이런 일도 있었다! 영화를, 관중이 영화를 재청한것이다.

행복에 취한듯 어찌할바를 몰라 어리둥절한 눈길로 사위를 둘러보는 스물서넛안팎의 영사원 젊은이, 그의 웃웃은 줄곧 땀에 젖고...

그는 관객속에서 불쑥 앞으로 나오는 한사람을 띄어 보았다. 권동지였다. 그는 궁지로운 눈길로 영사원을 향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시민들의 첫 인사가 대단하오. 다시! 다시 한번 돌리지요.》

청년은 재빠른 숨씨로 필름을 돌려 감았다.

첫권을 영사기에 걸고 시동돌리개를 돌리고 났을 때 영사원은 좀 서툴기는 해도 눈썰미 있게 다음 차례의 필름을 돌려 감고 있는 권동지를 보았다. 그렇게 한편, 또 한편, 첫번째 상영때나 다름없는 관중의 열광적인 환호속에 영화는 마감을 가까이 하고 있었다.

서울의 환희, 어찌 아니 그러랴, 꿈결에도 그러 오던 백두산의 김장군님, 《**김일성**장군환영위원회》를 조직해 놓고 일일천추로 기다려마지 않던 위대한 태양의 영상을 보았으니 그 기쁨 비길곳 청청하늘이라, 망망대해랴.

갑자기 하늘이 천둥하듯 쿵쿵거렸다.

인천 앞바다의 항공모함에서 리룩한 《F86》기들이 울썩미처럼 기어 든것이였다. 놈들은 수천의 관중우에 소이탄을 떨구고 기총소사를 하려고 발악했다. 하나 영웅한 인민군 고사포병들의 명중사격에 걸려든 적기 뒤서너대가 벼락 맞은 바위처럼 평긋하고 명멸하더니 풀썩 재가 되어 한강에 곤두박혔다.

다르르르...고르로운 영사기소리, 둥둥둥 공포를 밀어 내며 멈춤없이 돌아 가는 발전기의 동음

...관중은 화광에 찢기는 하늘이 아니라 현실이 재현되고 있는 은막을 주시하고 있었다.

밤하늘, 화광, 포성, 포성...

필사의 혈전속에서 영사막에는 드디어 《끝》자가 새겨졌다.

《와-아!》관중의 노도 같은 환성과 함께 대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관람자들이 영사원이 있는 곳으로 밀려 들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로 그 장대한 청년영사원을 중천에 허양 들어 올렸다.

《영차! 영차! 영차!》

아, 그 어떤 거대한 에네르기를 분출하는 물건이 요동하듯 영사원청년의 흥박이 세차게 들먹거렸다. 미처 영사기 스위치를 《정지》위치에 놓지 못했던 탓에 은막에 비쳐진 백광은 주위를 환히 밝혔다. 권동지는 멀찍이 서서 연방 공중에 오르내리는 영사원청년을 만족한 눈길로 바라본다. 바로 그때 영사원을 힘껏 받들어 올리던 열광에 들뜬 대학생들속에서 급기야 누군가가 웨쳤다.

《아니, 이게 누군가?》

《정말 이게 누구예요? 경석규오빠!》

웨치는 그들은 민대식이였다. 민옥련이였다.

아 아! 이런 희한한 상봉이라구야,

그들은 한동아리가 되어 돌아갔다. 무던히들도 기뻐했다. 가로막혔던 철조망을 헤치고 만났으니 그 걱정 이룰데 바이 없었다.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수십마디의 물음과 대답이 오갔다.

민대식은 서울대학교 3학년, 옥련은 리화녀대2학년이라 하였다. 대식과 옥련은 뜨르르한 대학생이 되었으면서도 오히려 경석규를 무등 부러워 하였다.

《부럽네. 부러워, 어쩌면 그런 황홀한 절경에 올랐나!》민대식의 말에 뒤이어 《정말 대단해요. 이젠 우리 같은건 윈눈으로도 안볼테지요. 하지만 우린 <신랑각시>란걸 잊으면 안돼요. 호호.》하고 옥련이도 우스개소리를 했다.

한편 밤 깊도록 모여 서서 걱정을 터치고 있는 대학생들과 로동청년들 그리고 지식인들 비롯한 각계층 군중들은 흠어질 념을 안했다. 영화가 안겨준 커다란 감화력이 그들의 온넛에 불길을 지핀 것이였다.

《**김일성**장군 만세!》누구인가의 선창에 뒤이은 《만세》3창이 끝나자 또다시 구호들을 웨치는 소리가 몰방으로 터져 올랐다.

《받들자, 민주의 태양!》, 《지키자, 우리 공화국!》, 《나가자, 의용군으로!》

이런 속에서 민대식이 땀에 젖은 열 뼉 손으로 석규의 손을 굳게 잡고 웨친다.

《석규, 나도 의용군으로 나갈테야. 통일조국 찾으러 말일세!》

《잘 생각했네! 이 시대 청년의 길은 오직 그길 뿐일세.》

석규도 긍정해주었다. 장한 오빠와 의젓한 석

규를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옥련의 말.

《나도 군복 입겠어.》

그러자 민대식의 얼굴이 삽시에 흐려졌다.

《옥련아, 량부모 다 앓아 누웠는데 네 어찌...》

그 소리에 옥련의 밝은 눈빛 서서히 꺼진다.

밤은 깊었다. 새벽이 가까운데 삼태성도 어느덧 기울었다. 다시 만나자 약속하고 그들은 헤어졌다. 군중이 흩어진 광장은 잠잠했다.

영사기와 필립, 발전기도 마차에 실었다. 길을 떠나는 경석규에게 권동지가 말했다.

《수원, 인천, 충주...해방되는 도시와 마을들을 따라가면서 계속 영화를 돌립시다. 필립을 잘 다루어 수명 400회가 아니라 500, 600으로 늘어 온 남녘땅이 다 보도록 합시다.》

《알았습니다!》

경석규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서울의 그밤과 같은 무수한 밤들이 갔다.

50년 여름의 저녁들, 찌물꾸는 삼복의 더위와 같은 판중의 열기 또한 건잡지 못하게 휘달아 오르던 나날들, 권동지와도 헤어졌다.

그는 해방지구에서의 인민정권수립, 토지개혁과 민주교육의 실시 등 드바쁜 일을 안아 말아 뛰어야 했다.

4

(민옥련의 일기)

1950년 10월 ×일

깊은밤, 마가울의 소슬한 찬비 내리다.

서울장안 우리 집에 갑자기 나타난 경석규씨.

변모된 모습, 변장한 차림새 몹시도 낯 설었다.

낯은 《국군》복장에 카빙총 메고 등에는 무겁게 짐 지었다. 누워 계신 엄마아빠 구완하느라 줄음에 몰렸던 나는 정신이 펄떡 들었다.

석규씨 등에 진 짐 내려 놓으며 말한다.

《옥련, 필립이요. 위대한 김장군님의 영상이 모서진. 전선을 넘지 못해 예 들렸소. 눈동자처럼, 목숨처럼 보관해주오. 때가 오면 꼭 찾으러 오겠소.》

《알겠어요. 석규씨, 근심마세오. 믿으세요.》

나는 굳게 언약했다.

《오빠 소식은?》

다급한 속에서도 죽마고우였던 오빠를 묻는다.

《부상 입어 대오에서 떨어졌지요. 조치원 외삼촌 댁에서 은신치료중이에요.》

《음, 나으면 대오 찾아 가라고 하오. 난 전선을 못넘으면 태백산이나 지리산으로 빨찌산대오에 들어 가겠소. 다시 한번 부탁하오. 꼭 잘! 온습도, 화기에 주의해야 하오. 절대비밀로!》

우리는 헤어져야 했다. 더운밤 한그릇도 대접 못하고 마루아래서 떠나보내는 이 마음 할퀴우는 듯 했다. 찬비 주룩거리는 야음속으로 그가 첩첩

멀어져 갈제 눈물이 쿡 솟았고 목이 잠겨 말이 안되었다.

《잘 있소. 마음 굳게 먹고 기다려주오. 짐이 무겁소.》

《잘 가세요. 부디 안녕-영.》

그의 희끄무레한 자취 아예 보이지 않았다.

나는 드디어 내 짐의 엄청난 중량감을 의식하였다. 석규씨의 믿음이 가슴 두근거리도록 고마왔다. 이 시각부터 이 삶은 새로운 의미로 약동하는 듯 싶었다. 나는 그 귀중한 《보물》을 어데다 보관할가 하고 고심하였다. 나의 장농 깊숙이 묻어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일기장도 거기에 함께 넣어두고 일기 쓸적마다 그것의 안전유무를 알아보기로 했다. 이 세상 그 어떤 진귀한 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의 귀중한 장중보옥, 장농엔 커다란 봉어자물쇠를 채웠다.

196×년 10월 ×일

세월, 세월, 세월... 세월은 모든것을 변모시켰다. 내가 녀대를 졸업하고 대학에 물러 앉아 교편을 잡은지도 어언 6년. 부상후 달포만에 완치된 오빠는 전쟁이 지긋지긋하다며 대오 찾아 갈 궁리안하고 박혀있더니 정전이후 경찰에 붙들려가 석달만에 전향서 쓰고 나왔었다. 그리고 대학도 마저 졸업하고 이제는 제법 대학교수.

4.19때 리승만 꺼꾸러뜨리는 민주화운동에 현훈증 일으키게 열렬하더니 5.16쿠테타이후론 운동권밖으로 도피, 예쁜 아씨 얻어 장가 들고 조카애 아장아장 잔걸음 칠 때 앓아 누웠던 어머니마저 미소 짓는다.

나이 서른몇에 제법 수염터 거뭇이 자리 잡힌 대학교수는 애연가가 되어서 니코틴냄새 바래우느라 《카르맹》향수 한병을 열흘도 모자란다.

있는집 막내딸인 《예쁜 아씨》(오빠가 단둘이 있을때 부르는 애칭이다.)그 향내에 저으기 시샘을 한다. 대학가 《모던걸》홀리려는 음험한 행위라고, 그 시샘 전혀 생억지는 아닌 모양, 오빠는 곧잘 《예쁜아씨》의 노복이 되기도 했다. 빨래집에 손수 찾아 가고... 그런 가위에 오빠의 《로맨스》한 편지 나에게 발각되어 오빠는 나한테도 추파질했다.

모든것이 변모되었으나 단 한가지만은 여전했다.

석규씨의 행방 묘연한것, 그가 맡긴 무겁고 귀중한 《보물》이 내 장농에 묵직히 차있는 그것이다.

197×년 10월 ×일 (일요일)

석규씨와 헤어지던 50년 10월의 그날처럼 찬비가 구질거리며 내린다. 습기 차고 추운 이런 날이면 장농안의 온도도 내려 가고 누기도 찰테니 나는 부리나케 함실 아궁에 불을 지피었다.

《예쁜 아씨》가 발발 펴며 아끼는 장작을 한아름 밀어 넣었다. 막내 조카 민철이가 날 도왔다.

방에 들어와 앉았다.

일요일이면 석규씨에 대한 애모쁜 그리움에 젖어 드는 마음 달랠길 없는 내 심정이다.

그이는 과연 어디로 갔을가. 이 세상사람으로 살아 있거나 한지? 아니면 그 어느곳에 무주고혼이 되어 묻혀 있는건 아닌지. 아 이제 이 필립은 어 이해야 하는가.

삼면경대를 마주한 나는 저으기 놀랐다. 눈확이 거뭇이 꺼지고 입술은 윤택을 잃었다. 눈정기바래여 가는 모습 서글펐다. 청춘의 꽃은 세월과 함께 야금야금 시드는듯 싶었다. 무엇을 기다리는 내 인생일가 하는 여린 마음이 뽀조름히 머리들 때면 석규씨 안겨주던 호박꽃과 박꽃으로 꾸며진 꽃뭉음이 떠올랐다. 그날의 향기, 그날의 사랑 영영 잊혀 질것 같지 않았다.

나는 록음을 틀었다. 이즈음 내 마음의 우울을 쓰다듬는 노래가 조용히 울려 나왔다.

...

다정한 우리 서로 만날제
들꽃은 피여 만발하였지
그날에 그대 내게 준 꽃은
가슴에 고이피여 있네
우리 서로 거닐던 저 언덕우에
봄은 가고 세월은 또 가도
내 한생 오래 간직하리라
저 목장 언덕에서 맺은 그 사랑

방안이 점점 훈훈해지자 장농속의 온습도계 눈금을 확인하느라 잠시 꾸무럭거렸다. 정상이었다. 문득 50년 여름의 잊지 못할 그밤이 떠올랐다. 위대한 그 영상 다시 뵈고 싶은 유혹에 이끌려 필립권통 하나 열어서 필립토리를 풀어 해빛 들어오는 창가에 비춰 보았다.

아, 젊고 자애로우신 청년장군의 영상. 나는 자꾸자꾸 필립을 풀어 그 여름밤의 흥분에 잠겨 들어갔다. 그때였다. 아래방에서 오빠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렸다.

《처량한 로처너, 또 무슨 애잡잘한 애가를 짓고 있는가.》

나는 화닥닥 놀랐다. 그러나 때가 늦었다.

사이문이 벌컥 열리면서 오빠가 옷방에 올라온 것이었다. 의아한 기색이던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필립을 창에 비쳐보더니 눈이 화등잔처럼 뛴고 이어 공포에 허둥졌다. (오, 우리 집에 이런 위험한 《폭발물》이? 너 그래서 시집도 안갔구나.)

《옥련아, 넌 미쳤어. 지리산빨찌산도 속속 다 <로벌>되어 버렸다는데 행처 묘연한 석규를 기다리지 말고 빨리 시집이나 가거라. 그리고 이젠 몰래 소각해버리자!》

《안돼! 안돼! 안돼!》

나는 세번을 거듭 칼에 찔리면서도 자유를 절규하던 가극의 카르멘보다도 더 담차고 호되게

웨쳤다. 그러면서 신념없는 인간의 두눈을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사상과 신념의 전향을 그리도 쉽사리 하는 사람이니 인생의 변질따위는 식은죽 먹기로 요구할것이다. 다시 한번 그런 소리 나오면 그냥 있지 않을테다라고 빨간 당콩쪽입술을 옥물고 표명했다. 약점 잡힌 인간인 그는 후-하고 한숨을 내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방에서 나갔다.

그뒤로 오빠는 내가 그어 놓은 계선을 감히 범접하려 못했다. 나보다 두살 아래인 《예쁜 아씨》도 옷방의 그 어떤 《비범한 존엄》을 느꼈던지 내방을 디더 볼 엄두를 못내고 나를 어려워 했다.

그도 이 집안에서의 자기의 완전한 자치를 위해서 나의 출가를 은근히 바라는 속심이다.

하나 나는 굳게 믿는다. 오마고 한 사람, 이 세상 무엇보다 고귀한것을 맡겨 놓은 그사람, 그는 죽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찾아올것이라고.

만약에 그가 그때 전선을 넘어 갔다면 통일된 이후에라도 꼭 찾아 오리라고.

198×년 10월 ×일

내 나이 어느덧 오십이 넘었다. 대학가의 《백합》이라던 내가 한낫에 땀별에 시들어 버린 호박꽃 되나 보다.

세상은 휘딱휘딱 뒤바뀌었다.

리승만이 꺼꾸러지더니 박정희도 총에 맞았다.

랭랭하게 얼어 붙었던 파쇼의 동토대를 녹이는 민주화의 선풍이 서드럽게 불어 왔다.

오늘 낮 강좌에 앉아 잡지 《말》을 펼치던 나는 깜짝 놀랐다. 이제나저제나 기다려 오다오다 이제는 죽은사람 아니면 북에 간 사람일거라며 기다리길 단념했던 그 사람, 50년 여름밤과 그해 마가울 찬비속에서 만났다. 헤어진 경석규씨가 누구에게 보내는지 알수 없는 강의한 미소를 짓고 나를 올려다 보는게 아닌가!

《말》의 새소식의 녀신이라는 녀기자가 ××교도소에 갇혀서 근 30년 세월을 불복하고 있는 경석규씨를 사진 받쳐 소개한것이였다.

나는 어인 일인지 굴줄을 더듬어 못 내고 왈칫치는 눈물에 젖버리고 말았다. 잡지를 덮었다.

우리 글 전부를 까맣게 잊어 버린듯 한자도 읽지를 못하겠다. 집으로 달음질쳐 왔다.

그리곤 옷방 나의 구석으로 올라 와 봉어자물쇠를 열었다. 다급히 손을 넣어 나의 《보물》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건재해있었다. 가슴은 야릇한 환희로 후둑후둑 뛰었다.

뒤이어 잡지를 펼치고 녀기자의 머리글을 읽었다.

《50년여름의 잊지 못할 밤들에 백두산김장군의 위대한 영상 은막우에 높이 모셔 남녘겨레에게 감개와 격정의 광망 안겨주던 미지의 영사원, 한때 지리산서 빨찌산 싸움도 했다는 홍안의 청년. 오늘에 이르러××교도소에서 고령의 머리 흰 비

전향장기수로 현출.

자기 수령, 자기 고향, 자기 부모 버릴수 없어 전향용지 수십번 찢어 버렸다는 애국의 인간, 정의의 인간, 절개의 인간! 통일영웅 그 모습의 일단 경석규씨와의 인터뷰로 간략하여 펼쳐 보인다.》

5

(경석규씨와의 인터뷰)

기자: 비전향장기수로 서른해 가까이 절개를 굽히지 않고 싸우신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그 신념의 샘 어디에 뿌리를 두셨는지요?

경석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건대 마음속에 해님을 간직했때문이었습니다. 그 해님은 언제나 지지 않고 내 마음을 따뜻이 덥혀 주고 이 마음 젊게 해주었습니다.

해방후 내가 영사원강습을 마치고 동해안의 아름다운 문화휴양도시에서 영사기를 잡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도시영화보급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영상이 모셔진 첫 기록영화필름이 배포되었습니다. 시안의 서덜개 영화관들에서는 그 필름을 먼저 차지하고 싶어 은근히 원심들을 썼지요. 나는 밤새워 영사기와 증폭기를 정비했고 은막도 백색도가 제일 높은 아연화로 새롭게 도색을 했습니다. 도시의 영화관들을 다 돌아 본 검사성원들은 그 고귀한 필름의 첫 상영권을 우리에게 주었지요. 제일로 깨끗한 화면과 명료한 록음을 얻기 위해 밤새워 고심한 대가였나 보오. 민족의 태양을 은막우에서 뵈게 된 도시의 환희는 이루 헤아릴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다섯번, 여섯번 상영! 나는 일약 도시의 총아가 되었다고. 그때의 희열과 걱정, 내 이제 백번 더 삶을 받는대도 그 나날의 행복을 누려볼수 없을거요. 그뒤 해방된 서울과 인천, 수원 등지에서 수십번도 넘게 필름을 돌릴적에 화산처럼 터져 나오는 군중의 환희를 목격하면서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독차지한듯 싶은 마음 억제할수 없었습니다. 만민이 그토록 숭상하는 위대한 장군님을 해님으로 심중에 간직하고 온 세상이 보란듯이 높이 모셔 가려는것이 나의 절개였고 신념의 샘이 되었습니다!

기자: 옥중고초 이만저만 아니였겠지요. 아픈 상처 건드리는것 같은데요. 어떤 때 제일 괴로웠던지 그 말씀 좀 듣고 싶군요.

경석규: 다 아는 바이지만 나는 평범한 영사원이었습니다. 복행길이 차단되자 지리산서 빨찌산싸움하다 중상입어 체포되었지요. 헌데 파쑈광들은 통일조국 찾자고 싸운 이내 몸을 서른해 철창에 가뒀구려, 내 감옥살이 서른해 지내오면서 세상에서 제일 악독한 짓은 다 겪어 온 사람입니다.

히틀러나 도조를 무색케 할 파쑈광들의 갖가지 고문... 그걸 이겨 내기란 간단치 않았소. 온몸을 벗겨 이글거리는 불길우에 그슬리는 칭기스한의 료리고문, 0.75㎡짜리 독감방에 수십키로와트의 전등을 켜서 지지는 백열등고문, 사슬로 몸을 매어 끌어올렸다가는 삽시에 콘크리트바닥에 떨어지는 폭격고문, 피성과 폭음, 악청을 확성시켜 청각을 괴롭히는 소리고문, 전기고문, 불고문, 심리고문, 아, 치떨려서 더 꼽을수가 없소.

결국 놈들은 폭격으로 영사기와 함께 실종되어 버린 그 필름 내바치고 전향하라면 내 이 다리 뼈마저 바수어 놓았소.

하지만 그런 육체적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문득 환상속에서 어디 있는지 모를 그 필름에 원썬놈들의 손이 닿는 생각을 할 때면 그 괴로움 가슴을 찢는듯 했습니다.

서른해 긴 세월 부모형제, 그리운 이들과의 생리별 그것도 괴로움이라면 괴로웠겠지요, 하나나는 믿고 있었다오. 나를 보란찬 그 길로 떠나 보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리라는것을. (경석규씨의 눈길 뜨거웁다. 두볼로 흐르는 눈물...)

기자: 실례되는 말씀인데요. 애인 있으신지요?

경석규: 있습니다. 아직까지 변심 않고 나를 기다리는 애인이 있습니다. (환희. 복역중의 죄수도 저렇게 천진한 미소 지을수 있을가.)

기자: 비밀되지 않으신다면 그 애인 주소성명대주셨으면 합니다. 제 만나보고픈데요. 또 긴히 전할 얘기라든가.

경석규: (떨쩍 뛰며) 아, 아니! 나는 이미 애인에게 긴히 전할 얘기 다 했다고.

...

(민옥련의 일기)

198×년 10월 ×일

기사를 다섯번째로 읽었다. 건잡을수 없는 소외감에 숨막힐듯,

아, 이런 무정?! 서른해 세월 이 땅에 숨쉬고 있으면서 기별 한번 없었다니? 나는 서러움에 목메여 꺾꺾 북받치는 울음을 삼켜야 했다.

애인이 있다면서 주소와 이름은 왜 숨긴담?

그 애인과의 긴한 얘기 전하는 사이라면서 왜 나와는 서른해 세월 기별 한번 안했을까?

변심?! 무서웠다. 무정이라면 이제라도 그 식여 버린 련정에 불꽃 튀겨 줄수 있으련만 변심이라면 아! 그건 정말 무서울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역시 사상의 전향을 거부한 강무죄족 같은 사나이의 가슴에도 이성의 다른 꽃 피여 것들일 자리 있나부다 하는 생각에 《예쁜 아씨》의 시샘과 류사한 감정 느껴보는 마음이다. 하지만 심분 그렸을수도 있었다. 파란 많았을 인생행로에 이성으로 그의 고임돌 되었던 나보다 그에게 더 가까웠던 녀성이 있을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인생이

허무했다. 그의 심장속에선 연약한 《각담의 호박꽃과 지붕의 박꽃》이었던 내가 스러지고 투쟁선상에서 뗀어 진 피빛 장미나 백일홍과 같은 녀성이 자리잡았을것이라 생각하니 일어 날 기력마저 없어 식음 전폐하고 누웠다. 오빠가 올라 왔다. 그도 잡지를 읽은 모양.

《남자들이란 거의 다 그렇다. 공연히 네 인생만 망쳤구나.》

긴 한숨, 그는 나갔다.

아니다. 나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나에게 산 처럼 무겁고 금옥보다 고귀한것을 말긴이가 어찌 나를 배신할수 있으랴. 하다면 그 어떤 필유곡절로 나에게 긴긴 세월 기별조차 안했던 말인가! 나는 드디어 경석규씨를 찾아 가기로 결심하였다. 그 마음 변심 말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차입품을 썼다. 겨울이 머지 않은 때라 의류에 신경썼다.

오빠가 간섭했다. 공연히 장기수 만났다가 화를 입지 않겠느냐면서 남을 먼저 내세워 보는게 어떠냐고.

아니, 이 일은 누구도 대신 못해. 나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래일새벽 열차로 떠나기로 하였다.

6

(민옥련의 일기)

198×년 10월 ×일

비전향장기수 경석규씨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면회자, 나에 대한 심리가 까다로웠다. 묻는대로 순응했다. 《말》에 나간 그 애인이라 할가 하다가 진짜 애인이 있어 거짓말한다고 단죄될가봐 잡지를 통해 알게 된 소꿉동무라 대답했다. 면회는 장시간후에 수락되었다.

자그마한 면회실에서 철창 저쪽의 경석규씨가 면회창구로 나타나길 기다렸다.

마음은 착잡했다. 서른해 세월 단 한번도 불러주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제발로 나타났으니 경석규씨 놀랄것인지 민망해 할것인지?...

잠시후 창구에 그가 나타났다.

순간 나의 눈길은 애수에 젖어 있었고 동무들이 빨간 당콩죽처럼 애모쁘다고 사랑해주었던 입술은 옥물린채 파르르 떨고 있었다.

민망과 원망, 청원의 복잡한 감정에 나의 얼굴은 곱지 않게 굳어져 있었던것 같다.

나를 보는 순간 석규씨의 허둥대는 눈빛,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아, 저녀가 어텐가 변했군. 하다면 나의 생명인 그 《보물》은?)

그의 첫 물음. 《찾아 와 주어 고맙소. 그런데 그, 그것은?》

누가 엿들을가봐 무척도 저어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 대답했다.

《당부대로 무사히!》

실무적이고도 무뚝뚝하기까지 한 대답이었다.

스러지던 숯불이 바람을 만난듯 석규씨의 눈빛은 순간에 밝아졌다. 그의 곁눈은 얼굴에 떠오른 환희는 나에게 속마음 헤쳐 보일 용기를 주었다.

《어쩌면 서른해 기별 한번 없이... 잡지를 통해 소식 아는 순간 전 실망했었어요. 석규씨의 변심을 읽었을뿐이예요.》

나는 설음을 왈각 토했다.

《아니, 나는 믿었던거요. 믿음이 있어 나를 밝히지 않고 지냈던거요. 옥련의 안부는 밖의 동지들이 지금껏 전해주어서 알고 있었소.

어찌 아니 그리웠겠소. 파스한 인정이, 사랑이.

잔등이 찢쩍 얼어 붙는듯 같은 엄동의 콩크리트바닥, 한잎의 담요와 털내의도 그리웠소. 하나 순간의 나약으로 그대를 불러 댄다면 그때부터 옥련은 요시찰대상, 집도 가산도 죄다 수색당하게 될것이였소. 그때의 엄청난 상실, 그건 목숨 열백으로도 보상 못할것 아니겠소. 그렇지 않아도 이제껏 놈들의 고문은 그 <보물>을 찾아 내자 함이였소. 그래 내 다리뼈도 부서 지고.

이제라도 리해해 주오. 나의 이 믿음, 굳건한 사랑을.

나의 모든것은 여전하오. 청춘도 사랑도 신념도...

나의 심장엔 각담의 호박꽃이 풍기던 꿀향내밖에 다른 꽃향기 스며 둘 자리 없었소.》

《아, 그랬군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기쁨에 흐느꼈다.

뒤이어 석규씨의 묻는 말.

《어떻게 긴긴 세월 소식 없는 이 사람을 저버리지 않았는지?》

《그걸 묻다니요. 것처럼 고귀한 보옥을 날 믿어 안겨준 이는 누군데요. 그것 없었다면 이 연약한 녀인이 어찌...》

눈물에 뒤영킨 희열의 미소. 손수건이 필요치 않았다. 석규씨의 거친 손등이 나의 여린 볼 스쳐 물기를 걷어 갔다.

이윽고 석규씨 긴장한 눈빛이더니 귀속말로 긴한 당부를 했다. 그는 나에게 두번째로 큰 임무를 준것이였다.

《그래서 온 남녘땅에 위대한 영상 높이 모시고 통일기운 세차게 몰아 치게 합시다. 그 길에서 지나간 청춘 되찾읍시다.》

《알겠어요.》 대답하는 나의 결의는 뜨거웠다.

《고맙소. 우린 살아서 밖으로 꼭 나가게 되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모두를 꼭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오.》

《그래요?!》

나의 눈엔 후더운 눈물 펴 돈다.

199×년 5월 ×일

삶의 보람이란 이런것인가 싶었다.

오늘 서울, 부산, 광주 등 남녘땅 열다섯개 대

학에서 일제히 복덕의 기록영화를 록화물로 시청, 1만여명의 대학생들과 교수들이 관람하였다.

머리 흰 대학교수들중에는 50년 여름에 은막우에서 우러러 뵈던 자애론 수령님의 위대한 영상을 록화화면으로 다시 뵈게 된 감격으로 하냥 눈물 짓는 분들도 많았다. 나도 그랬다.

나는 경석규씨의 두번째 당부를 훌륭히 수행했다.

이날을 위하여 위험의 고비를 넘으며 들달린 길은 실로 멀고 험했다. 운동권학생들과 함께 필름을 은밀히 나눠 지고 야삼경 조용한 영사실에서 록화하여 록화테이프 수집개를 《이북바로알기》투쟁의 앞장에 선 전국대학생대표들에게 나누어 주던 때의 고충과 성공의 기쁨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 하지 않는다.

나를 제일 도운것은 막내조카 민철이었다.

민철은 《예쁜 아씨》말이라면 한사코 듣지 않더니 고모와는 기꺼이 한쪽배에 탔다. 공과대학 졸업후 회사에 나가서도 운동권에 발 들여 놓고 나를 따랐다. 내가 경석규씨를 면회하고 온 직후 그의 말대로 민철이와 함께 필름을 안전한곳으로 옮겼을 때였다. 불시에 가택수색을 당하였다.

경석규씨의 예언이 맞았다. 경찰은 헛탕쳤고 우리의 일은 계속 되었다. 오빠는 반통일세력의 폭압이 두려워 늘 안절부절한다.

밤, 통일의 거대한 대하가 굽이치는 밤이다.

위대한 영상 뵈오러 가는 대학생들의 발걸음 가벼웁다. 그 대하를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뇌인다.

《그대 철창안에 갇히운 몸 되었어도

넋은 통일의 광장에서 불꽃 튀고 있어라》

7

(경석규의 일기)

1993년 8월 ×일

석방후 두달이 지났다. 꿈같은 석방이었다.

얼마전에 우리는 60객의 나이로 결혼식상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주변 《만남의 집》에서 대학생들의 주최로 성례했다. 잔치손님 대부분이 청년학생들이었다. 연극무대의 분장사까지 와서 우리들의 젊음을 가꿔준다고 한동안 원심 썼다.

청춘들 못지 않게 해놓은 일이 있어 통일을 소원하는 겨레가 주는 결혼식상으로 알고 기꺼이 받았다. 면목있는 《말》의 너기자도 왔다. 그는 상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말했다.

《청춘 왔다가 울고 가겠어요. 하지만 외양보다 더 중요한건 두 내외분이 청춘에 사시는거지요.》

청년학생들은 그 말에 요란한 박수를 보내었다. 자그마하나 아담한 독립가옥을 얻어 신집살림을 펴놓았다.

대학생들과 대학교수들(그들중에는 50년 여름 밤에 내가 돌린 영화를 본 이들도 있다고 했다.)

이 련일 찾아 왔다. 하나 우리의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하기사 분단조국의 남녘땅에 사는 우리에게 그 무슨 행복 있으랴만 형언키 어려운 불행은 늘 나를 뒤따랐다. 안해 민옥련이 경찰에 련행된것이였다. 놈들의 검거선봉에 붙잡혔던 학생들속에서 변절이 있었나 보았다. 안해는 이북 록화물류포사건의 주모자로 락인되였다.

오늘 지구치소에 면회 갔다.

옥고에 옥련의 얼굴 반쪽이 되고 주름살 더욱 늘었다. 측은한 생각에 마음 쓰라려 말이 나가지 않았다. 하나 놀랍게도 안해는 웃고 있었다.

《절 측은히 생각 말아요. 전 행복해요. 승리자의 희열을 느껴요. 오늘 열번도 넘게 필름 어데 숨겼었나 대라고 손가락 꺾으면서 으르대겠지요. 그것만 대면 신혼살림 재미 보게 해주겠다고 빈정거리면서 말이지요. 전 대답했어요. 이남민중모두의 심장속에 깃든 영상, 수천수만의 록화물되어 집집마다에 찾아 든 필름 이제 찾아 무슨 소용 있느냐고요.》

안해의 의기양양한 모습, 한줌도 안되는 반통일세력의 눈깔 뒤집힌 물결이 눈앞에 삼삼하다.

《장하오, 장해, 투사가 다 되었구려!》

나의 격려의 말,

《아무렴, 투사의 안해가 투사 아니 될가요.

이젠 저도 연약한 호박꽃, 박꽃이 아니라 선혈과도 같은 붉은기빛갈의 그 어떤 훌륭한 꽃 되구려요.》

옥련은 얼굴에 강잉한 미소 짓는다.

2000년 6월 ×일

민족사의 경이적인 대사변, 김대중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남수뇌진을 따듯이 맞아주셨다.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 60여명이 곧 위대한 태양의 품, 조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소식 듣고 처남 민대식이 나를 찾아 왔다.

우리의 비극에 몹시도 서글픈듯 그의 눈언저리 축축했다.

《대부 어찌겠나? 내 누이 생각해서 자네 여기 남겠지?》

나는 차고 쌀쌀한 눈길로 그를 쏘아 보았다.

《철창속에서 전향 안한 내가 철창밖에서 탄뎀 꾸겠나. 내 가슴도 저미는듯 아프네.

하나 태양의 부르심을 저버리진 못해. 옥련의 심정 들어보나마나 그는 필경 나를 바래올거네.》

또다시 구치소로 갔다. 옥련의 모습 하냥 밝고 대견했다. 단정한 소복으로, 흠어 졌던 머리 풀어만지며 나를 맞았다.

《놀랍고도 기쁜 소식 들었어요. 당신은 태양의 품에 안길 권리를 지닌 사람이예요.》

옥련은 그러더니 나를 위로하듯 조용히 시 한

구절을 읊조렸다.

《눈석이 지나면 화창한 봄날
그 뒤엔 열정적인 여름이라오》

2000년 9월 2일

폭풍우 지난 뒤 햇빛 따사롭다.

50년만에 북행길 열린 날! 이른 아침 옥련이 만나러 구치소로 갔다. 이전과는 달리 강렬한 붉은 빛갈의 꽃 피어있는 자그마한 화분 하나 안고 갔다. 받으라 그대여, 태양의 꽃 위대한 **김정일** 화!

꽃을 받은 옥련의 눈빛 유난히 밝아 졌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흘렀다. 떠나야 할 시간이 각일각 박두했다.

내편에서 오히려 작별의 설움 참지 못했다. 눈물이 고랑 지어 내렸다.

옥련은 입술을 모질게도 감쳐 물었다.

《우지 마세요. 당신은 제게 청춘을 안겨 주셨어요. 통일의 날 앞당기려 힘껏 싸워서 저도 기꺼이 따라 가겠어요. 그날을 위하여 부디 안녕히!》

그러더니 급기야 덩쳐 드는 서러움에 지쳐 철창을 부여 잡고 몸을 뒤틀며 오열했다. 피빛 같은 더운 눈물 줄줄이 흐른다.

장장 반세기, 철조망과 철망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헤어지고 만났고 또 헤어지게 된다.

오, 이 행성우에서 우리만이 겪어 온 비극이여! 라오콘의 마지막독사 아직도 이 땅에 청청 휘감겨 남녘인민들의 피눈물 자아낸다.

옥련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애써 웃음을 지으며 손 저어 나를 바랜다. 우는 그를 뒤에 두고 눈물 씹어 삼키며 돌아 섰다.

반세기, 오랜 세월 그렇게도 귀중히 보관해 온 나의 《보물》-위대한 영상이 수록된 필름을 카트와 함께 민철에게 인계하였다.

《남녘의 영화관들에서 공개상영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신념의 샘 고이 간직하고 싸우거라!》

《알겠어요. 고모부!》

민철의 얼굴에 굳은 결의의 빛 어린다.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는 우리를 수많은 대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이 바래였다.

수백만 남녘의 청춘들이 우리-비전향장기수들의 뒤를 따르리라. 옥중고초 서른해, 마흔해 담가에 누워, 사륜차에 앉아 다리를 절며 백발로 넘어 넘는 분리선! 칠팔십객 우리에게 그 무슨 청춘의 향기 있으랴만 태양의 영상 우러러 변심 몰랐던 투사들을 이으려 남녘청춘들의 행렬 끝없이 밀려 온다, 밀려온다. 우리의 육체 비록 늙어도 철창속에서 더욱 억세어 진 녀은 청춘에 머물러 있다! 우리의 젊음이 남녘 청년학생들의 심장속에 살아있다. 그렇다, 우리의 청춘은 가지 않았 다!

북행배스를 바라는 군중의 한쪽 가냘빈 민대식은 얼굴을 땅에 떨구고 외로이 서있다. 처량하고 가궁한 모습, 흡사 주인 잃은 개라 할가.

먹이만 던져 주면 열주인도 바뀌 섬길 개...

판문점, 이 나라 겨레의 희로애락의 증견자인 력사의 땅, 여기서 잠시후 금세기말의 가장 큰 경이적인 사변이 있게 된다.

남조선적십자사 성원들이 우리를 점명하며 서두르기 시작한다.

정각 10시! 드디어 비전향장기수들의 행렬이 움직인다. 내 차례가 되었다. 남조선적십자사대표가 나의 병력서 등 모든 개인정보를 북측대표에게 정중히 넘겨 주었다.

한걸음앞에 분리선이 있었다.

나는 경건하고 숭엄하고 환희로운 감정에 휩싸여 분리선을 넘었다. 햇빛 넘치는 북녘하늘아래로 나섰다. 환영의 꽃바다, 꽃바다...

아 이 행성우에서 우리만이 누리는 행복이여!

북녘의 하늘엔 따사로운 태양 눈 부시다.

폭풍우 지난뒤 그 광망 더욱 찬란하다.

오오, 새 세기의 통일조국을 바칠 위대한 태양이여! 우리 겨레의 영원무궁할 신념의 샘이여!

주체89(2000). 9. 5

작가와 건망증에 대한 일화

리성덕

예나 오늘이나 작가라고 하면 너나없이 건망증(잊음증)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로 하여 많은 일화들이 생겨났다.

결코 로쇠때문만도 아니고 무관심때문만도 아닌 이 작가특유의 건망증은 그림자처럼 작가를 따라다니는 《유령》같은것인데 작가의 체모가 잡혀 갈수록 더더욱 심해지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다.

조국해방전 《카프》시절부터 한생을 문학에 바쳐 온 박세영, 송영이 20대~30대 한창나이에 벌써 건망증때문에 웃지 않을수 없는 일화들을 남겼던 사실은 너무도 널리 알려진 일이다.

어느날 박세영이 송영과 함께 거리에 나섰는데 젊은 시절부터 몸집이 자그마하고 행동이 날렵한 데다가 성격이 사근사근한 박세영이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는지 《여보게, 잠깐 여기 서있게. 내가 얼른...》하더니 골목에 있는 변소쪽으로 사라졌다. 아마 소변이 급해진 모양이라고 짐작한 송영은 아무 생각도 없이 서서 기다렸다. 그런데 용무를 보고 난 박세영은 그쪽 가까운곳에 리발소가 보이자 친구가 기다린다는것은 까맣게 잊고 머리 깎을 생각이 나서 그리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친구를 기다리기에 지친 송영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리발소창문으로 태평스레 리발의자에 몸을 젖히고 앉아 머리를 깎고 있는 박세영이 보이자 성이 나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갔다.

낮선 손님들이 있는 곳이어서 큰 소리로 지청구를 할수 없어서 송영은 거울에 비친 박세영을 쏘아보며 주먹을 흔들었다.

그제야 친구를 알아 본 박세영이 반가와 하면서 《아, 참 오래간만일세. 자네두 리발하러 왔나? 현대 주먹질은 왜?》하고 천연스레 묻는것이였다.

송영은 너무도 어이없어 하늘을 쳐다보며 웃고 말았다고 한다.

한번은 그들 두 작가가 나란히 앉아 무슨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박세영이 방금 본 영화내용을 열성스레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송영이 듣다 못해서 한마디 하였다.

《여보게, 그 영화야 금방 함께 보지 않았나?》

자기 흥분에 취해있던 박세영쪽에서 오히려 어정쩡해 하였다.

《응? 그랬던가?》

정말이냐는듯이 송영을 뻔히 쳐다보던 박세영은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는것이였다.

《난 또 ...임자가 못본줄 알았구먼. ...》

소설가 김진성이 시인 김철을 처음 알게 된것

은 주체46(1957)년 청진시에 있는 함경북도 작가동맹지부에서였다.

그때 청진제1고중 학생이였던 17살 나는 김진성은 문학에 대한 열망을 안고 작가동맹지부에 자주 드나들었다.

시인 정문향이 지부장으로 사업하였고 리선을, 김광섭, 리병철, 황민을 비롯한 작가들이 그때 함북도지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어느날 정문향은 《조선문학》에 발표된 김철의 시 《금야만에 달이 뜬다》가 아주 잘된 시라고 기뻐하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랑독하는것이였다.

바다 멀리 호도의 등어리에
한순간 흰한 빛이 없혀 있더니
하늘과 바다를 가득 채우며
달이 뜬다, 금야만에 달이 뜬다

...

... 달이 뜬다, 달이 날아 오른다
제가 온다고 또 나도 마주 오라고
은빛 고기때로 다리를 놓았는가
등! 등! 복을 치며 달이 달음쳐 온다

정문향의 랑독을 리선율이 받아 읊어가면서 온 지부가 명절을 맞은것처럼 흥성거리였다.

김진성은 전문향을 비롯한 모든 작가들이 그처럼 칭찬해마지 않는 좋은 시를 쓴 김철이라는 시인이 부럽기도 했고 은근히 그의 높은 문학세계를 따르고 싶은 충동도 느끼였다.

그러던 어느날, 작가동맹 함북도지부에 평양에서 온 웬 젊은이가 나타났다.

봄가을 외투를 단정히 입고 중절모를 쓴 키 자그마한 신사풍의 단아한 젊은이였다.

정문향을 비롯한 지부작가들이 모두가 반가이 맞이하였다.

그가 바로 《문학신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던 시인 김철이였다. 김진성은 시인이 너무도 새파랗게 젊은데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조용한 틈을 타서 리선율에게 김철의 나이를 물으니 스물일곱이라고 대답하는것이였다. (사실은 스물다섯이였다.)

스물일곱!

김진성은 자기도 스물일곱이 되면 김철의 문학세계를 따라 잡을수 있을가 하고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그후 스물일곱이 지나고 서른일곱이 되도록 그 문학세계의 높이에 이르지 못한 자신을 발견한 그는 남모르게 자신에게 채찍질을 해가면

서 첫 장편소설 《첫 기슭에서》를 창작발표하였다. 그것이 TV 편속극소설로 형상방영되자 온 나라에 큰 파문이 일어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크나큰 은정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여 작가는 그후 《김일성상》 제관인으로 성장할수 있었다.

이 나날에 김진성은 시인 김철을 처음 보던 그 순간을 한시도 잊은적 없었고 금성청년출판사 문예창작실을 책임지고 사업하면서부터는 시인을 만나는 기회도 자주 가지였었다.

그런데 그 불가사의한 건망증이라는 《망령》이 나타나 기상천외한 일들을 빚어 낼줄이야 누가 예측이나 하였겠는가.

하루는 김진성이 자기 방에서 작가동맹중앙위원회 부장 리호선과 함께 신인작가들의 창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손기척소리가 나더니 이미 60살을 넘긴 시인 김철이 조용히 들어 서는것이였다.

김진성은 들어서는 손님을 보자 정중히 일어서 마주 나가면서 무표정한 얼굴로 깎듯이 물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왔는가구?)

김철은 물론 쓰파에 앉아 있던 리호선까지 아연하여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소설가 김진성은 원래 성격이 조용한 편이지만 사림성도 있고 인사성도 밝고 친절한 사업가형의 작가였는데 이게 무슨 망녕된 짓인가.

개인적인 부탁을 가지고 후배작가를 어렵게 찾아왔던지라 김철은 순간에 얼굴표정이 굳어져서 당장 되돌아나갈 자세였고 리호선은 당황감을 감추지 못하며 어쩔줄 몰라 하였다.

《아니 진성동무, 이게 어찌된 일지요?》

리호선이 영문을 알수 없다는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래 김철선생을 몰라 보시겠소?》

김진성은 무슨 소리냐는듯이 호선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해 하였다.

《뭘, 김철선생이라니...하, 이런...》

김진성은 잠시후에야 김철을 알아보고 급히 다가와 그의 두팔을 부여 잡고 흔들었다.

《용서하십시오, 이 무슨 실수를...》

김진성은 김철의 문학세계를 오랜 기간 동경해왔듯이 건망증때문에 본의아니게 저지른 이 실수에 대해서도 오래동안 잊지 않고 있었다.

결코 무관심성이나 교만성이 아니였다. 암흑같은 망각이였다.

이즈음에 그런 일이 드문히 있었다.

한번은 이웃집 젊은 녀인이 반갑게 인사를 하자 어디서 봤던 누구든가, 옹지, 그전에 룡북동에서 이웃하고 살던 그 녀성이로군 하고 생각한 그가 《예, 오래간만이구만. 그래 지금도 룡북동에서 사시우?》하고 인사 삼아 대답하였더니 그 녀인이 《예? 룡북동이라니요? 아니, 웬일이세요?》하면서

제편에서 무안을 당한듯이 수집게 웃으며 지나가는것이였다.

그날 저녁에 김진성은 안해로부터 뜻밖의 질문을 받았다.

《오늘 준의를 만났어요?》

《아니, 준의는 무슨...》

준의란 옆집에 사는 젊고 예쁘장하게 생긴 녀자인데 김진성은 앓을 때마다 가끔 찾아와 주사도 놓아주고 가군 하는 의사였다.

《그런데 룡북동이라는 말은 왜 했어요?》

《응? 그럼 그 녀자가 옆집 준의였던 말이지요?》

《호호...기막혀라!》

《하하...참, 기막힌 일이로군.》

김진성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고 말았다. 때로는 자기의 이름까지 잊어 저서 눈앞이 캄캄해 지는 순간을 체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선배시인을 알아 보지 못한 일은 이웃집 녀인을 몰라보거나 제 이름을 잊었던 일과는 성질이 달랐던 까닭에 그것이 오래도록 마음에 걸려 내려 가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날 우정 김철을 찾아가 사죄하고 오해를 풀었다.

김철 역시 건망증의 세례를 자주 체험한 작가였기에 김진성의 경우를 얼른 이해해주었다.

그후 세월이 어지간히 흘러 김진성은 김철과 함께 작가동맹중앙위원회 작가로 창작생활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어느날 의암동에 있는 어느 한 회의실에서 열릴 회의때문에 작가들이 모두 모이였다. 김진성과 김철이 나란히 앉게 되였다.

회의 시작시간을 기다리고있을 때인데 옆에 앉은 김철이 무슨 일때문인지 머리를 기웃기웃하더니 김진성의 팔굽을 건드리며 매우 딱해 하는 어조로 속삭이였다.

《이보우, 불세루(<불시로>, <때아니제>의 함경도 사투리)당신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구만 뭐드라?》

(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구?)

김진성은 문득 모욕감을 느끼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작가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고유명사가 아니다. 명예이고 존엄이고 얼굴이였다.

작가의 이름을 모르면 그의 작품을 모르는것이고 그의 문학세계를 모르는것이며 그 모든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것과 같은것이였다.

(흥, 지독스레는 《복수》하는군...)

김진성은 자기가 오래전에 본의 아니게 저지른 실수를 김철이 지금 시인다운 기지로 보복하는줄로 짐작하였다.

김진성은 목을 외로 틀고 앉은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철은 종이에다 무엇인가 부지런히 썼다 지웠다 하면서 공공 거리였다.

잊은 이름을 기억해내려고 무진 애를 쓰는 모

양이었다. 한동안 그러고 있던 그가 《생각해냈소.》하면서 김진성의 이름이 적혀진 종이를 내보이는데 그 종이에겐 술한 성과 이름이 까맣게 적혀 있었다. 아마 조선의 백가지 성이 다 쓰여진 것 같았다. 그것을 본 순간에야 김진성은 그가 보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름을 잊어서 모지름을 썼다는 것을 가슴쓰겁게 느끼면서 김철과 같은 명망있는 시인도 건망증이라는 유령의 희롱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설가와 시인, 선배와 후배라는 차이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사람은 다 작가였던 탓에 그리고 작가의 체모가 무르익어감에 따라 저도 모르게 건망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같은 《그물》 속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시인 김철과 소설가 김진성은 이 건망증이라는 같은 《그물》 안에 들었던 일로 하여 더욱 친근해졌고 생활과 문학에 대한 논의도 더 활발히 하게 되었으니 작가에게서 건망증이 리롭다 할 것까지는 못되나 《백해무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리 적중하지 못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건망증은 생리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일종의 뇌세포활동의 로화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적 창조와 예술적 환상의 세계를 현실처럼 체험해보는 특수한 로동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창작과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작가의 건망증은 결코 생리적 현상만 논의할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작가의 건망증은 정신적 로화나 무관심성이나 집중력 소설의 결과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무한대한 정신적 환상과 자기의 창작세계에 대한 남다른 심취와 정신적인 집중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

가령 어떤 작가가 자기가 사는 도시에 있는 남대문을 지나다가 고색창연한 옛 문루를 보자 저도 모르게 그 유적에 깃든 옛 일과 오늘의 일들에 대한 생각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고 하자.

남대문은 벌써 등뒤에 멀어졌건만 작가에게는 그 문루에서 벌어졌던 침략자들을 쳐물리치는 가렬처절한 싸움들과 그 문루에 메아리쳐 울리던 고려군사들의 우렁찬 함성이며 창검이 부딪치는 소리와 말발굽소리가 쟁쟁히 들려온다. ...그리고 미체의 폭격으로 수백년동안 굳건히 서있던 그 문루가 불타 무너졌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후의 그 어려운 때에도 이 도시의 상징이고 불굴의 민족정신과 기개의 상징인 그 문루부터 먼저 일떠세우도록 이끌어주시던 일들을 현실처럼 머리속에 그려보고 있는데 문득 마주 오던 웬 사람이 반가와하면서 《어디로 가나?》하고 묻는다.

《응, 남대문으로...》

작가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하며 지나친

다.

《뭐? 남대문?》

남대문을 등지고 가면서 남대문으로 간다는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몰라 작가의 친구는 어리둥절해진다.

만일 그 친구가 과묵한 사람이라면 허,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머리를 기웃거리 는 것으로 그칠 것이고 제 생각을 묻어 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남대문이야 이쪽이 아닌가 하고 말을 걸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웃지 못할 또 하나의 일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 작가의 경우에 남대문으로 간다고 한 대답은 너무도 타당하며 또 이해가 가는 대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생리학의 론리이기에 전 생환의 론리이고 인간정신세계의 론리인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작가의 친구에게도 역시 잘못은 없다.

누구도 잘못된 사람은 없으나 생활의 정상흐름에서의 탈선이 분명한 이런 현상들로 하여 작가에게는 건망증이라는 그림자가 늘 따라 다니게 되는 것은 아닌지. ...

건망증이 정신적 로쇠나 무관심성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이 작품의 창작내용이나 그와 관련한 당의 정책을 깊이 새겨 두는 영역에서는 한 번도 작용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로써도 증명할 수 있다.

자신의 이름까지 잊을 정도로 아무리 건망증이 심한 작가라 할지라도 자기 작품의 수많은 주인공의 이름이나 작품의 내용을 어느 하나도 잊지 않고 있으며 자기 작품의 주제사상과 창작방향을 밝혀 준 교시나 말씀들은 잠을 자다 깨어서도 뜬금으로 빠짐없이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작가들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며, 독자들이며,

작가가 특수한 존재는 아니지만 특수한 정신로동을 하는 예술가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건망증이라는 불가사의한 《유령》을 등에 지고 사는 작가들을 이해하시라. 그리고 존경하시라.

웃으시되 애정을 담아 부드럽이 웃으시라.

작가의 건망증은 작가적 로동과정에 생겨난 구슬땀과 같은 것이니 부디 선망의 눈길로 어루만져 주시라. 넓어진 수건으로 씻어 버릴 땀을 말고 귀중한 구슬을 받아 내듯이 소중히 훑쳐 주시라.

그러느라 하면 우리 민족의 지성세계는 더욱 풍부해 질 것이고 아름다와 질 것이다.

사상과 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작가들의 헌신적 노력의 구슬땀이 더욱 아롱져 **김일성** 민족의 지성세계가 인류정신문명의 최고봉우리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인생은 언제 철이 드는가

박웅전

실수

누가 그 실적을 따르겠소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소
얼마나 귀맛이 좋은가

허나 듣지 말라
열사람, 백사람이 말해도

자기에 대한 칭찬만은

그 귀맛에
마음이 움직이고
자만의 싹이 움트거니

보배

구슬도 써야 보배
물망에 오른 한 현장기사
큰일감 말기자고
알아 봤더니

어느새 눈치챘는가
직장사람들
그는 창의교안의 명수

성실하고 인정도 깊은...
제발 그 보배덩이만은
뽑아 가지 말라누나

내 생각노니
그 누가 나를 옮기려 할때
사람들 모두 아껴 줄수 있다면
오, 얼마나 행복하랴

나는 왜 선수교체를 당했던가

대학시절의 어느 일요일
나는 학급의 배구선수로 뽑혔네
뽑히기보다야 자진해 나섰지
키가 큰 장점을 은근히 믿구서

학급별 대전이라 시작부터 열이 올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1 회전에서 이기고
2 회전을 마감하는데
그만 한두알 차이로 지고 말았네

진거야 결승전에서 봉창할수 있건만
문제는 이때 바로
기분잡치는일 생긴거라네
글쎄 둘러 선 구경꾼들이 하는 말
-안되겠어, 키다리를 교체해야지

나는 화가 동했네

내가 잘못 친게 무어람
한두번 실수야 도토리 키 채보기
오는 뿔은 거의 다 받아 넘겼구
강타두 몇번 성공했는데
하건만 3 회전 결승을 앞두고
나는 끝내 선수교체를 당했다네

나는 왜 선수교체를 당했던가
지금도 두고두고 생각한다네
그날의 구경꾼들과도 같은
공정한 객관이
오늘도 나의 일거일동을 주시하는듯

그날처럼 일찌기 내줄 자리도
고집스레 자리지킴하지 않는지
그날처럼 객관을 무시하면서
주관과 독단에 빠지지 않았는가를!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외 1 편

홍철진

군복입고 초소로 떠나갈 때는
집 대문도 허리 굽혀 나섰던
끝끝한 내 아들이

돌아 올 땐
어찌하여 삼륜차에 몸을 맡기고
이 어머니보다 작은 키로
내 품에 안기느냐

작은 아들을 낳지 않은
어머니여서
아들아,
내 너를 안고 우는데
오히려 너는 웃고 있구나
천만마디 말들이
오고 가야 할 이 순간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태연히 웃고 있는
네 얼굴에 다 찍여 있는데야
앞가슴에 달고 있는
영예군인메달이
다 말해주는데야

그래
내 웃으마
장한 아들을 둔 어머니답게
조금도 그늘지지 않은
너의 밝은 얼굴앞에

누구도 널
내려다 볼 사람들은 없을게다
키 낮은 래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없을게다

보아라
만나는 사람마다
올려다 보는구나
네가 무슨 거인인양

조국이 낳은
장한 아들의 기쁨
가슴해 보려는듯

그래선가
몰라 보게 솟구치는
저기 저 건설장의
층층 살림집은
조국에 바친 너의 키로
더 높아 지는것만 같아
이 어머니는 마냥 기쁘구나

두고 보렴,
마당에서 뛰노는
저 이름 모를 아이들
내가 보태준 키로 하여
래년에는 아마
한뼘은 더 클게다
낳아준 부모도 깜짝 놀라게...

이런 아들이
어찌 앉아서 왔다 하랴
아, 아들이
너는 정녕 앉아 오지 않았다
세상에서 제일 큰 거인으로
나는 너를 안아 본다
끌어 안는것만으로는 부족해
이번에는 어디 한번 업어 주고 싶구나
다 자란 아들
무거운 아들을

어릴 때처럼
이 어머니잔등에서
잠 들어도 좋아
종일 업고 있어도
힘 들지 않으리
어찌 힘 들랴
조국이 너를 업고 있는데야
너의 한생까지
조국이 다 업고 있는데야

저의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선생님이시여
버릇없이 앉아서
인사를 올리는
이 제자를 너그러이
용서하십시오

조국은 나에게
차렷거수경례를
배워주었던만
삼륜차에 앉아서
그 손을 들수 없어

이렇게 허리만을
굽히웁니다

생각나십니까
군복 입고 초소로
떠나던 그날
서툴게나마
발뒤축을 모아 봤을 때
선생님은 얼마나
기뻐 하셨습니까

그래서 돌아 올 땐
선생님 더없이 기뻐 하시게
절령이는 혼장을
차렷에 담아
어디 한번 보란듯이
나서 보자 했건만

허나,
허나 동지의 희생을
외면한 두다리로
아마도 차렷경례 표시했다면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시고
도리어 조국앞에
내대신 꿇어 앉을

선생님이시여

그때문이 아닙니까
제 이렇게 웃는것은
항상준비!
손 비껴올리던
넥타이시절처럼
밝게만 웃고 싶은 이 마음은

받아주십시오
선생님이시여
이것이 저의 차렷자세입니다
조국앞에 쉬엣하지 않은
한병사가
선생님께 올리는
차렷중에 최대의 차렷입니다

아, 그대로는
품에 안아 줄수 없어
무릎 꿇고 두팔 벌린
선생님이시여
그 품에 얼굴 묻는
이 제자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나무는 살아있다

최순철

파릇파릇 새싹이 움트고
온갖 꽃망울을 터치는
봄

나무여
1211고지의 파편 박힌 나무여
너만은 너만은
파아란 잎 한개
피우지 못하는구나

포연 서린 여기에
이제는 나무들 자라
하늘을 가리우고
머루다래넝쿨들
저마다 향기론 열매 자랑하며
무성했어도

나무여
파편 박힌 나무여
너만은 너만은
전화의 그날로부터
50여년 되여 오도록
한돌기 해돌기도 새기지 못했구나

허나 죽지 않았다
나무여 너는
이 땅에 서린 원한
그대로 안고
몸에 박힌 파편들
복수의 총창처럼 추켜 들었다

이땅에 봄은 와도
녹을수 없는 그 서리찬 증오
응어리진 분노를 안고
너는 살아 있다

보인다 나에겐
통일의 그날
이 나무에 주렁질
환희와 기쁨의 그 열매

너는 살아 있다
1211고지
파편 박힌 나무여
병사들의 가슴마다
억척같이 뿌리를 내리며
복수를 부르고 있다

옹고집전

윤석 리원희

옛날 황해도 옹진골 옹돌면에 성은 옹이요 이름은 고집이라 부르는 한 토반(토배기랑반)이 있었다.

성 또한 못생긴데다 이름도 아무렇게나 지었으나 본읍에서 토반인것으로 하여 향청출입이 여간 하여 기특한 선대의 아들이라고 옹고집에 대한 칭찬소리 온읍에 자자하니 정말로 사람이 없는 곳이 바로 옹진골이라 할수 있었다.

이 옹진읍 신관사또가 도입하여 옹고집을 청해 좌수벼슬을 시키니 사람들이 모두 어이가 없어 하였다.

욕심 많은 옹고집이 좌수노릇을 하니 행실이 방약무인하고 주제넘어 길가에조차 풀 한대 없으리만큼 백성의 재물을 마구 빼앗아 제것으로 만들어 억수만재부를 모아 놓고 되지 못한 호사를 하고 있었다.

옹돌면 가장 좋은 남향터에 수십간짜리 집을 지어놓았는데 제법 웅장한게 과연 불만 하였다.

아무리 봐도 아늑한 산골짜기에 들어앉은것이 풍수쟁이들이 흔히 말하는 아주 좋은 터자리인 득수득과(산속에서 나와 산속으로 다시 흐르는 물을 이르는 말)한 곳이었다.

옹고집은 그래도 옛사람의 본을 따라 양지쪽에는 방아를 놓고 읍지에는 우물을 파고 울밖에는 오이, 수박 등을 심었으며 울안에는 벌통을 앉혀 놓았다. 층층으로 화단을 만들고 철쭉, 진달래, 맨드라미, 봉선화를 심었는데 활짝 핀 꽃시절에 벌들이 붐뚱거리며 찾아드는것 또한 보기도 그 저 그만이었다. 그러가 하면 잘다듬은 키낮은 소나무와 푸른 참대는 아름답고 무성하여 군자의 절개를 자랑하며 미풍에 살랑거리고 있었다. 대문앞의 앵두나무에서는 황금피꼬리가 춘정을 불러 일으키며 꾹꾹꾹 울어대고 명사십리에 피었던가 싶은 해당화에는 흰 나비가 너울너울 꽃을 보며 희롱하고 있었다. 저녁이면 북두칠성이 옹고집의 마당에 내려앉은듯 련못가에 두둥실 떠흐르는것 또한 경개중의 경개라 아니할수 없을것이었다.

방안치장 역시 요란하기 그지없었다. 앞뒤로 물림을 해놓고 여기에 안팎이 다 긴 창살문으로 된 내외분합문을 걸어 놓았다. 안방, 골방에는 완자창(완자모양의 창살을 댄 창문)에 유리거울을 붙여 놓고 각장장관을 하였으며 벽에는 모조지도 도배를 하였는데 금빛장식이 네 귀마다 찬연한 금전지에 쓴 글을 붙여 놓은것이 더더욱 불만하였다. 패상우에는 벼루집과 문갑이 놓여 있고 책상우엔 사서삼경을 비롯한 언서고담(옛날 우리

글로 된 옛이야기책)이 층층이 쌓여 있는것이 마치도 글하는 선비의 방안 같았다. 《삼국지》, 《운수지》, 《사성기봉》, 《구운몽》이 쌓여 있는 한 옆에는 옷걸이와 유강초대가 세워 저 있고 룡대 가리장식품은 책상옆에 보기 좋게 걸터 앉아 있으며 새총 같은 청울치(겉껍질을 벗겨 낸 칙덩쿨의 속껍질)는 산호갈구리에 걸리어 한가로이 저 혼자 흔들거리고 있다.

또 안팎중문, 솟을사랑 네 귀마다 달아 놓은 풍경이 바람에 땡그렁거리는것 역시 마치 절간의 부처님앞에 서 있는것 같은 느낌을 준다.

한갓 토반주제에 너무나도 제 분수와 동떨어진 집을 짓고 사는 옹고집의 머슴들 또한 옷치 않고는 배길수 없는 배안의 병신작들뿐이었다. 굼배 팔이가 새끼를 꼬는가 하면 앓은뺨이는 방아를 찧고 소경은 바자 두르고 절름발이, 병어리는 심부름을 하고 등썽새는 쌍집 지고 뛰여 다니고 있었다.

이 옹고집은 성미 또한 괴악하여 제집의 어린 계집애는 놀리우면서도 집채만한 황소로 발같이 하는것은 애리디애린 머슴아이에게 시키고 있었다.

그뿐이던 좋으련만 저를 낳아 키워 준 여든살 난 늙은 어미를 뒤통방에 가둬 놓고 아침저녁으로 밥을 제대로 주지도 않으며 박대가 여간 심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 늙은 어미는 침침한 뒤통방에서 홀로 코물눈물 흘쩍이며 매일 탄식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었다.

《옛글에도 부자유친이 으뜸이라 했으니 내 저를 낳아 기를적에 애지중지하여 장중보옥같이 여기고 금자동아, 옥자동아하며 중히 길렀더니 지금은 제 혼자 호사하는고나. 옛날의 효자들은 얼음속에서 잉어를 건져 오고 눈속에서도 참대순을 꺾어 부모공양하였으니 옛사람의 효도를 본 받아 효자는 못되어도 그 반만이라도 됐으면 어찌 내가 오늘과 같은 일을 당할고.》

늙은 어미의 탄식소리를 들으며 이마살을 찡그리는 옹고집의 입에서는 오히려 제 어미를 원망하는 소리만 튀여 나올뿐이었다.

《저 옛날 진시황도 만리장성 길게 쌓고 아방궁 넓게 지어 삼천궁녀 앉혀 놓고 역만창생의 공계를 받으며 억만년을 살자다가 오십년도 못 채우고 려산 두문동 술술에 누워있고 또 초폐왕 항우도 오강을 못 건느고 제 손으로 목을 찢러 죽고 말았는데 인생 칠십 고래희라고 우리 모친 죽는 다 한들 어느 뉘가 단명했다 하리오. 자고로 불지라도 정포은도 팔십장수 못하였고 남이 같은

어진이도 서른살전에 일찍 죽었거니 우리 모친 이제 금시 죽는다고 뉘가 감히 명이 짧다 하겠고. 이 내 말이 조금도 가당치 않은것이 없으니 나를 그르다 시비할 이 어데 있으리오.»

옹고집이 이러며 더더욱 그 늙은 어미를 박대하니 참으로 그 어미가 낳은 자식이 옳은가고 의심까지 할 정도였다.

이 옹가라는게 제 어미뿐아니라 아무에게나 못되게 노니 옹가의 집 근처에는 여느 사람은 물론이요 빌어 먹는 거지도 시주 받는 중들도 아예 오지를 못했다. 특히 옹가는 중을 보기만 하면 사지를 휘잡아 엎어 뜨리고 왕수박같은 중머리에 뜸을 뜨는것을 재미로 아는지라 과연 몹쓸 놈의 자식이 분명하였다.

이때 전라도 월출산 월출암자에 한 도사가 있었는데 천문지리에 능통하여 풍운조화를 능히 부릴줄 알고 신기한 피를 써서 먼곳의 일도 척척 처리하는 재주를 지녀 신이 붙은 도학대사라고 일컬을만 하였다.

하루는 도학대사가 멀리 북쪽하늘가를 한참 바라보며 명상에 잠겼다가 제자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황해도 웅진골 웅돌면에 사는 옹고집이 늙은 제 어미를 박대하고 시주받는 어린 중을 멸시하며 중생을 천하게 여기고 인의례지와 례의렴치도 알아 볼것이 조금도 없이 풍속을 문란하게 함이 날로 심하다 하니 내 친히 내려가 맥을 받아 보아야겠다. 만일 옹고집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저기 극락정도로 보내려니와 만일 불순하면 한번 속이여 제 스스로 깨닫게 할것이니라.》

제자중이 스승의 말에 공손히 두손을 맞잡고 절하며 동감을 표시하자 도학대사는 검은 장삼을 펼쳐 입고 실구타죽갓을 숙여 쓰고 백팔념주를 목에 걸고 룡환장을 손에 잡은채 흰 바라는 한쪽 어깨에 걸치고 절문밖을 나섰다.

동구길을 내려 서니 기화요초는 만발하여 춘정을 불러 일으키는데 푸르다 못해 파아란 구슬 같은 물줄기는 소리쳐 흐르는 양이 꼭 폭포수와 다를바가 없었다. 산새 또한 지저귀며 대사의 발길을 재촉하니 로승의 걸음발이 날개라도 달린듯 획-획 날아 넘어 어느새 옹가의 집까지 다달았다.

청룡, 백호가 량옆으로 가지런히 늘어져 있는 듯 한 골짜기사이에 정남방으로 터를 잡은 옹가의 집은 고대팡실 높다란데 중문, 솟을대문 달아 놓고 시비들이 오락가락하는것이 과연 요란스러웠다.

도학대사가 서컨 문에 다가가서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하시오.》라고 소리치니 안에서 파파늑은 종할미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는 대사의 아래우를 한참이나 훑어 보더니 이런 소리를 하였다.

《로승은 우리 댁 소문을 못들으셨소. 우리 옹

좌수님이 지금 초당에 베개 베고 누우셨으니 망정이지 만일 스님의 념불소리를 들었다면 동냥은 고사하고 큰 경을 치를것이니 대사는 어서 바빠 돌아가사이다.》

대사는 종할미의 나무라는 어조를 조금도 탓하지 않고 두손을 맞잡고 공손히 절을 하며 차분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고루거각에 계신 량반이 설마한들 그러겠습니까. 적선지가에는 필유여경이요, 적악지가에는 필유여악이라 선을 많이 베풀면 반드시 좋은 보답이 있는것이고 악을 많이 행하면 반드시 악한 징벌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소승은 전라도 월출산 월출암자에 있삽는데 절이 퇴락하여 불상이 바람과 비를 피하지 못하게 되었기로 이 댁의 선심을 듣고 불원천리하고 왔사오니 황금 백냥만 시주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며 또 두들기는 목탁소리에 놀라 잠을 깬 옹고집은 《애들아, 밖에서 무슨 소리가 그리도 요란하냐.》하며 왜가리청을 돌구었다.

어떤 늙은 중이 와서 시주하란다는 종할미의 말은 옹고집의 못된 습벽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데 충분한것이였다. 당장 그 중놈을 잡아 들어 마당에 꿇어 앉히려는 호령소리를 내는것과 함께 옹고집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뚱거리며 대청으로 나왔다.

마당에 꿇린 중을 바라보며 옹고집의 말은 첫마디부터 고약스럽기 그지없다.

《아따 이 늙은 돌중놈아, 시주하면 어떠하고 안하면 어떠하냐.》

그러자 도학대사는 룡환장을 두손으로 잡아 눈두덩까지 들어올리고 깊은 절을 하며 《우리 절부처님이 령험하옵시니 시주하시면 수명장수하옵고 부귀공명 이룩하오며 자손은 끝없이 번창할것입니다.》라고 공손하게 여쭙었다.

《야 이 늙다리중놈아, 시주하고 귀하게 된다면 네나 내게 시주해라. 인생 막바지가 중이라 하는 속담 그른데 없구나. 너같은 앙큼한 놈이 나무아미타불 공부하고 극락세계 간다 하니 극락길을 누가 아느냐. 야 이놈아, 네놈이 일찌기 제 일가친척 다 잇고 돌중이 되어 진중보국(중생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함), 부모공양도 못하는 주제에 어른 보면 시주하고 아이보면 적선하라 하니 네 애비, 에미는 다 뉘쳤느냐. 내 집 재물을 네가 무슨 놈의 심보로 무단히 달라느냐. 이 돌중놈아.》

얼굴을 썩그럭거리며 두눈엔 흰자위만 가득 채우고 허연 거품이 게발린 옹고집의 입에선 제법 그래도 《진중보국》이요 뭐요 하는 소리까지 곁들린 꾸중아닌 악성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그래도 도학대사의 얼굴에는 온화한 빛이 넘쳐 흐르고 입에서는 잔잔한 시내물소리 같은 말이 거침없이 흘러 나왔다.

《옛날에는 나라들이 다 불법을 숭상하였사옵니다. 우리 나라도 서산대사, 사명당 같은 스님들이

있어 임진란이후 일본을 항복시키고 다시 일떠선 줄로 아옵니다. 소승도 석가여래의 제자되어 경문을 읽어 부모님의 은공과 부처님의 자비를 배워 아침저녁으로 임금님의 무궁을 바라오니 어찌 진중보국이 아니되며 부처님께 발원하여 못백성의 자손만계를 축원하니 어찌 이게 선심이 아니오리오. 그런 말씀 마시고 시주하시면 부귀영화하고 래세에는 극락으로 갈것이오니 시주를 아끼지 말으시옵소서.》

이러한 도학대사의 간청에도 옹고집은 여전히 한보새로 소래기만 질러 대었다.

《야, 이 요망한 늙다리야, 네 아무리 나를 속이자 해도 내가 속을것 같으나. 그따위 녀두리 걸어 치우고 왔던김에 내 관상이나 보고 길흉을 판단해보아라.》

옹고집의 마지막말마디는 제법 사그라진 어조였다. 도학대사는 옹고집의 얼굴이며 귀 그리고 온몸과 팔다리는 물론이요 그 거동까지 세세히 다 살핀후에 접잡은 어조로 관상풀이를하였다.

《좌수님의 관상을 보니 수명은 만건곤(하늘, 땅에 짝 찬다는 뜻)할것이요, 자손만대 부귀공명할것이로되 명문이 좁아 말년에 횡액을 당할것이오니 지극히 조심하셔야겠소이다. 착한 마음으로 덕을 쌓아 시주하오면 이 액수를 면할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말년에 급경풍이 일어나 다시는 꿈짝도 못할것이오니 각별히 조심하여 시주를 많이 하옵소서.》

도학대사의 《하옵소서》가 끝나기도전에 《창쇠, 악쇠 게 있느냐, 지금 당장 저놈을 결박지워 놓지 못할가.》하는 옹고집의 비린청이 들안을 뒤흔들었다.

옹고집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창쇠, 악쇠가 나는듯이 달려 들어 로승의 뒤덜미를 잡아 채여 휘두르고 나서 구렁이허리 같은 삼바줄로 온몸을 뽕뽕 묶어 옹고집앞에 자빠뜨렸다.

옹고집은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서 주먹같은 침방울이 튀어 나오도록 목청을 돋구며 소리쳤다.

《네가 산중도인이라 칭하고 일없이 다니며 남의 재물을 무단히 달라 하니 네 배심도 착실하다. 네 기골을 잠간 보니 준수하고 또 늙었기로 심분 용서하여 내가 관상을 보라 하였더니 말쑥 하는 말이 말년에 급경풍이 일어 다시는 꿈짝하지 못하고 죽을 일을 당한다 하니 네가 욕을 과하게 하는구나. 세상에 이런 패심한 놈이 또 어데 있으리오. 네놈이 내 횡액걱정 말고 네나 어디 급경풍 겪어보아라.》

그리고는 도학대사에게 달려들어 머리의 음양혈을 짚어 가며 모기불 놓듯 콩알만한 뜸을 가뜩 놓고는 물푸레몽둥이로 태장을 자그만치 삼십대나 안기였다.

실신하여 거의 빈사지경에 이른 도학대사를 만족하게 바라보며 옹고집은 두중에게 밖으로 내다 버리라고 호령하였다.

도학대사는 밖에서 한참동안이나 쓰러져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기운을 회복하고 간신히 절간을 찾아 왔다.

대사가 절간에 이르러 법당에 들어가 제자들에게 옹고집에게서 곤욕을 본것을 이야기하니 모두가 분함을 이기지 못해 하였다.

그놈을 열라왕에게 보내어 규환지옥에 가두어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니, 호랑이로 변신하여 잡아 먹어야 한다니, 중병에 걸리게 하여 제절로 죽게 해야 한다니 하며 저마다 도학대사의 여러 분풀이할 소리를 중구난방으로 떠들어 댔다. 그러나 도학대사는 여러 제자 중들의 떠드는 소리에는 아랑곳하지않고 묵묵히 앉아 있다가 한참후에야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아서라, 그 모든것들은 다 남에게 악한 짓을 하는것이 될것이니라. 그러니 내 그를 잠시 속여 제절로 뉘우치게 할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도학대사는 버짚 한단을 가지고 도술을 써서 가짜 사람을 하나 만들었다. 눈, 코, 입, 귀를 비롯한 얼굴생김이며 말과 행동 그리고 몸매에 이르기까지 영락없는 옹고집이였다.

부적을 속에 품고 귀신이 접하여 말도 곧잘 하고 글도 쓰는것이 조금도 옹고집과 다름바가 없는데다 귀신도 여느 귀신이 아니라 신령스러운 귀신이 접하였으니 그 신통함은 이루 헤아릴길이 없었다. 도학대사는 그 가짜 옹가에게 이리이러 하라고 일러 주고는 황해도 웅진골로 바삐 보내었다.

이 가짜 옹가는 도학대사의 도술로 쉬이 옹가의 집에 와닿았다.

대야머리에 주걱턱을 달고 수닭눈에 주먹코가 붙쑥 나온것이 제법 옹가의 집 가운데마루에 올방자를 틀고 앉아 있는 품이 실지 옹가와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이때에 실옹가(진짜 옹고집)는 향청에 나가서 일을 보느라 미처 집에 나오지 못한 때였다.

헌데 마루에 올방자를 틀고 앉아 창쇠, 악쇠를 연방 불러 대며 사랑방을 치워라, 여무새도 해라, 말죽도 쑤어라 하고 또 계집종 춘단이를 불러서는 대야에 세수물 떠놓으라고 호령하는 허옹가(가짜 옹고집)의 모습은 집안의 종들도 실옹가처럼 여기게 신통하였다.

실옹가는 저물녘에야 향청의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떤 사람이 마루에 앉아서 봄별 내리쬘듯 소란하게 집안을 들볶고 있는것이였다. 저게 대체 누군가 하며 어이없는 눈길로 한참 바라보던 옹가는 《택은 대채 뉘길래 남의 집에 와서 이다지도 소란을 피우오.》하며 책망조로 물었다.

허옹가는 그체서야 실옹가가 온것을 알고 한자리에 나앉으며 추상같이 호령하였다.

《너는 어떤 놈인데 남의 집에 쳐들어와 주인을 꾸짖는거냐. 적반하장(도적이 매를 든다는 뜻)이라더니 너같은 놈을 두고 한 말이로구나.》

엄엄한 허옹가의 호령소리에 기가 눌린 탓인지 실옹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려 도대체 누구길래 남의 집에 와서 주인행세를 하느냐고 사리를 따지려 하였다.

《내 집 재물이 루거만재 (평장히 많은 재산)란 말을 듣고 이 흉악한 몸쓸 놈이 나와 생긴것이 같은것을 핑계삼아 남의 집에 내정돌입하였으니 이놈을 빨리 잡아 내지 못할가.》하고 성을 내며 요란스레 소리를 내지르는 허옹가의 말에 창쇠, 악쇠 두 종은 눈알이 땡그레 졌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우리 좌수님이 분명 돌이 되었구나!

서로 다투며 싸우는 두 옹가를 아무리 살펴 봐야 달 밝은 깊은 밤에 숲속에 있는 학 찾기보다 더 어려우니 어찌하겠는가.

《일이 났소이다, 일이…마, 마님, 사랑에 일이 났소이다. 지금 우리 좌수님이 돌이 되어 서로 싸우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듣던배 처음이요, 대가리에 털 돌아서 급시초문이오다. 웅씨집안에 큰변이 났소이다. 어서 나, 나가 보사이다.》하며 횡설수설 대가리, 폭지를 분간할수 없게 하는 종들의 말에 옹가의 마누라는 울상이 되어 춘단 어미를 불러 어이된 영문인지 자세한것을 알아 보라 지시를 하였다.

춘단 어미가 마님의 명을 받고 나가보니 두 옹가가 마주 앉아 네가 옹가냐, 내가 옹가지 하며 서로 이놈, 저놈 싸우는데 이목구비와 지어 몸통의 길고 짧은것 그리고 말과 행동까지 너무도 신통하니 분간하기가 어려운지라 어이가 없어 다시 내당에 들어와 아뢰었다.

《옛날부터 까마귀의 암컷, 수컷이 분별하기 가장 어렵다 했는데 지금 우리 좌수님 알아 보기는 더 어렵소이다. 소비는 분별할수 없사오니 마님께서 나가 자세히 보옵소서.》

《야 이년아, 남녀유별이 괜한 소리드냐. 내가 어찌 나간단 말이나.》하며 정신없어 하던 좌수마누라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이렇게 뒤를 이었다.

《애, 너의 좌수님 신임좌수 시작할제 조복을 바빠 다리다가 불씨가 튀어 도포자락이 탔으니 이걸로 분간하면 될듯 하구나.》

그 말을 들은 춘단 어미는 바빠 사랑으로 나와서 마님의 그 분부를 전하는데 실옹가가 제격 불에 탄 도포자락을 보여 주니 우매한 춘단 어미는 이가 분명 우리 좌수님이 분명라고 좋아하였다.

그런데 이때 허옹가가 또 한자리 나 앉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년아, 네가 진정 나를 몰라 보니 가소롭도다. 기생방엔 기생어미가 있는거요. 춘향이 잡힌데는 어사출도가 제격이고 칠년가물엔 비 오는게 제격이니라. 또 어린애 경풍증엔 우황고가 제격이니라. 그러니 우둔한 소리 아예 입밖에 내지도 말아, 그만한 도포는 내게도 있니라.》

허옹가가 이같이 말을 하며 펼쳐 보이는 조복

자락을 보고 아연실색한 춘단 어미는 마님께 바빠 가서 《마님께서 나가봅시오. 소비는 정녕 알수 없소이다. 바빠 나가봅시오.》하며 다급한 소리를 질러 댔다.

춘단어미의 말에 그만에야 옹가의 마누라는 울음을 터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녀자는 반드시 남편을 따르고 부처간의 화목함은 지어미의 행실중에 으뜸이라 했거늘 죽어서도 우리 부부 동혈(합장)하기 원이더니 인간이 휘방하고 조물주가 시기하여 이런 큰 변이 생겼으니 어찌하면 좋을고. 성현을 옥보이고 못백성을 귀찮게 여기더니 이런 변이 생겼고나. 아니고. 데이고.》

좌수마누라의 녀드리 같은 통곡이 터지자 허옹가가 벽력 같은 소리를 지르며 호되게 꾸짖었다.

《늙은게 무슨 일로 때없이 곡을 하느냐. 내가 살아 있는데 죽기를 바래서 곡을 하느냐. 우리 부부 오래오래 함께 살다가 죽어서도 동혈할터인데 편히 있는 가장앞에서 통곡하는것은 온당치 못하니라. 다시 그러하면 집안에서 내쫓을것이니 그리알고 조심하라.》

그러자 지금껏 말없이 동정만 살피던 며느리가 기겁을 해서 시어머니에게 《사랑의 아버님 꾸중이 엄숙하오니 울음소리를 그치시옵소서.》라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허옹가는 며느리의 이 말을 듣고 《애 며늘애야, 내 말을 자세히 들어보아라.》하며 작년 태란에 갈적에 상사말의 복두가 끊어 저 늦동이가 깨진 것이 벽장안에 있는것이 거짓이나고 물었다.

너무나도 신통한 소리에 실옹가는 할 말을 못 찾고 그저 《아마 이놈, 나 잘한다. 내가 할 말 네가 잘하누나.》라고 소래기만 지를뿐이었다.

며느리가 제 눈으로 직접 살펴 보려고 그들에게로 가니 실옹가가 《애야, 네가 좀 봐다구. 누가 네 시아빈가 자세히 봐다구.》하며 사정을 하듯 애원하였다.

우리 시아버지는 이마우에 기미가 있고 뒤통미에 흰털이 났으니 그걸 보면 알수 있다는 며느리의 말에 실옹가가 와락 달려 들듯 나섰으며 《그러하면 네가 보아라.》하자 그 며느리가 기겁을 하며 뒤로 썩 물러 앉았다.

그러자 허옹가가 불학무식한 놈이라고 실옹가를 욕하며 자기의 기미와 흰 털을 보여 주니 며느리가 그것을 확인하고는 《이 어른이 우리 시부님이 맞으신데 저 사람은 누구인지 알수 없다.》고 하자 실옹가는 너무도 기가 막혀 대성통곡을 하였다.

《유유창천(높고높은 하늘)하느님은 살피소서. 세상천지간에 이런 일이 또 어데 있으리오. 이놈의 운수가 이다지도 사납고 괴이하단 말이요. 버선목이라고 뒤집어 보일수도 없으니 이를 어느늬에다 항변하리오. 아이구, 내 신세야. 그러하나 내가 정녕 실옹가이니라, 이놈들아.》

목이 메서 꺾꺾하며 슬피 우는 꼴을 보고 있던

허웅가는 노복들을 불러 덜미를 잡아 바삐 끌어서 내치라 호령을 하였다.

허, 실 두 웅가가 서로 싸우는것이 흡사 소장마당에서 부록소들이 싸우는듯 하였다. 아무리 해도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알수 없는지라 창쇠와 악쇠는 바삐 웅가의 아들에게로 뛰어 갔다.

《서방님, 큰일 났소이다. 우리 댁에 변이 나서 망신살이 뻗쳤소이다. 좌수님이 갑자기 돌이나...》하는 창쇠의 말이 채 끊어 지기도 전에 악쇠가 또 《서, 서방님, 빨리 가서야지 이렇게만 있으면 그새 좌수님이 또 몇이나 되겠는지 아시겠수.》하며 들볶으니 웅가의 아들은 넋을 잃고 락심하여 종작없는 말을 주절대며 헤덤비었다.

《화살전통 열이라. 갑작없다 정신이. 정말 큰 야단났네. 한참새에 돌이 되었으면 삼사일이면 웅진골에 좌수가 그득하겠는걸.》

화살전통을 둘러메고 총총걸음으로 활터를 떠나 집으로 바삐 돌아 온 아들에게 허웅가가 반색하며 《기특한 내 아들이 왔고나. 어제는 오시삼중(화살을 다섯번 쏘서 세번 맞힘)을 못했어도 오늘은 오시오중(화살을 다섯번 쏘서 다섯번 맞힘)을 했겠으니 그 아니 기특하냐. 였다. 열냥돈으로 놀이비용이나 하거라.》라고 말을 하자 실웅가가 어이없다는듯 허거프게 웃으며 《아따 이놈아, 내가 할말 네가 다 해라.》하며 짜증만 내고 있다.

아들이 아무리 뜯어 보고 훑어 보고 살펴 봐야 이목구비와 말과 행동이 꼭 같은지라 누가 진짜제 아버지인지 알수가 없어 팔자설음을 통곡하기 시작했다.

《이 내 팔자 사납기두 하구나. 우리 웅가문중이 생겨 나서 돈과 식량은 남아 돌아 가도 푼돈 한번 못 써보고 요모양으로 지내다가 이런 일이 갑자기 웬 변이냐. 남의 집 자손들은 계집질에 음주동락(술을 마시며 함께 즐기는것)을 일삼는데 이내 팔자 정말 가엾기도 하구나. 귀신의 희롱이 아니면 이런 변이 또 어디서 생기리오. 아이구, 남류달리 불안간에 부친이 돌 되었으니 옷사람들 대하기가 부끄럽고 친구친척 볼 낫 없네. 아이고, 요놈의 팔자 왜 이리도 꼬부라졌노.》

웅가의 아들이 이렇게 한창 팔자까지 거들면서 통곡하니 허웅가가 《애야, 우지 말아. 네 진짜 아버지가 여기 이렇게 시퍼렇게 앉아 있는데 무슨 연고로 울음이나.》하며 제법 자애에 넘친 어조로 타일렀다. 실웅가는 그냥 어이없는듯한 태도로 너 잘한다 하고 일언반구도 없이 앉아만 있었다.

이때 이웃에 사는 김풍헌이 여기에 나타났다. 허웅가가 《김풍헌 자네 오나.》하며 반기자 김풍헌은 《옹생원도 일간 평안한가.》하며 인사를 하였다.

《나는 무사하지 못하여 집안에 큰 변이 났네. 어데 있는 누군지도 알지 못할 놈이 나와 같이 생겼다고 몸쓸 마음을 먹고 내 집 사랑에 들어와서 제가 낸척하니 어느 누가 분간할 이 있으리

오.

옛날 어떤 이는 빌어 먹는 중에도 제 처는 알지 못해도 제 친구는 알았다는데 그를 보면 친구가 본시 처보다 낫다 하는게 옳지 않은가. 그러니 나와 절친한 자네가 우리 둘을 자세히 살피고 저놈을 당장 쫓아 주게나.》

김풍헌의 인사에 이런 장광설로 대답하는 허웅가를 바라보던 실웅가는 《아이고, 답답한 내 일이야. 저런 흉칙한 놈이 또 어데 있으리오. 처처럼 천연스레 제가 낸척하니 내가 아무래도 골병 나서 죽고 말겠구나. 아이고, 가슴이야.》하며 진짜로 답답한듯이 주먹으로 제 가슴을 탕탕 두드리며 울어 대었다.

그러자 허웅가도 지지 않겠다는듯 《네가 나냐, 내가 네냐.》하며 달라 붙어 서로 붙어 잡고 싸우는데 눈, 코, 입, 귀는 말할것도 없고 지어 손톱 나온것까지 입고 있는 의복까지도 너무나도 똑같으니 아무리 절친한 김풍헌이라도 진짜와 가짜를 분간할수가 없게 되었다.

시비를 가릴수 없게 된 김풍헌이 《옛 글에도 신하는 임금에 알고 자식은 부모가 안다고 했으니 이럴것 없이 돌이 다 모친님께 들어 가서 물어보도록 하게.》하자 이번에도 허웅가가 먼저 그 말이 옳다 하며 제 먼저 모친께 들어 가는것이였다. 실웅가도 따라 들어 가 보이나 여든이 된 늙은 모친이 어찌 갈라 볼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저 탄식하며 울기만 하였다.

그러니 김풍헌이 다시 생각해 보고 관가에 원정(사정을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실웅가가 먼저 관가에 원정을 올렸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옹돌면 본토배기 옹고집이 백발이 되어 급년신수 어찌 불길하옵던지 천만뜻밖에도 어떤 알지 못할놈이 이 사람의 집에 나타났사온데 그 행실이 실로 괴이하기 짝이 없나이다. 옹모와 그 행동거지가 저와 꼭 같다고 해서 제 어미를 자기 어미라하고 제 처를 자기 처라 하며 제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 하옵니다. 또 우리 집 노복을 제 노복이라하고 내 재산까지도 자기의 재산이라 하며 내 땅과 돈도 다 제것이라고 하니 세상에 이런 강도가 또 어디에 있사오리까.》

소인이 이런 연유를 상세히 밝히오니 이놈을 묶어서 잡아다가 엄히 죄를 다스려 정배를 보내도록하여 주옵소서.》

원이 또 허웅가의 글을 받아 보니 실웅가와 사정이 조금도 다름이 없는지라 손뼉을 치면서 큰소리로 웃어 대며 《원정이 신통히도 한입에서 나온것처럼 꼭 같으니 처결이 불가하니라.》하는것이였다.

고을원이 두 웅가의 꼭 같은 《성주 덕분으로 밝은 처분이 내리길 바라나이다.》하는 소리에 이쪽보고 저쪽 봐야 아무리 해도 알바가 전혀 없어 어찌지 못하고 있던참에 형방이 이렇게 여쭙었다.

《두놈을 각각 가두고 한놈씩 불러 들어 물어보시면 진짜와 가짜를 알듯 하오니 그리 하시는게 어떻하오이까?》

그 말을 그럴듯하게 여긴 원이 그들을 가두고 먼저 실용가를 불러 내었다.

《부는 웅송이요 조는 맹송이요 증조는 상송이요 외조는 심송이라 하니 살펴 처분하옵소서.》

실용가의 저희 집 호적을 외워 바치는 소리를 들은 원이 깔깔거리며 《그만하게. 그만해. 이거야 웃음이 나서 견디겠나. 온통 웅송맹송 상송 심송이니 내 머리가 다 뒤송송하구나. 다른 웅가를 불러 들어라.》라고 희롱조로 말하였다.

허웅가가 원의 부름을 받고 자못 현양한 기세로 들어 와 머리를 조아려례를 표하고 전후사를 차근차근 아뢰이기 시작하였다.

《어느해인가 민(자신을 원앞에서 낮추어 부르는말)은 좌수를 하옵다가 그해 설달에 갈리웠사옵고 을유년 류월 십이일에 성주께서 도입하시여 올해 병술년 삼월 초하루날 좌수를 시키여 두어달이나 하였사운데 어찌 성주님이 민을 몰라 보시나이까.》

호적을 외우기도 하려니와 모든 일을 력력히 아뢰일것으니 해와 달 같은 밝음으로 고루고루 헤아려 살며 처분하옵소서. 민이 살기는 웅진 웅돌면에 사옵고 3대째 유학(벼슬하지 못한 유생)이옵니다. 부는 학생(생전에 벼슬을 못한 사람에 대한 죽은후에 쓰는 존칭) 웅송이옵고 조는 학생 맹송이옵고 증조는 학생 상송이요 외조는 심송이라 하옵나이다. 민의 집은 수십간이요 방향은 정남향이옵고 논밭결수는 도합 일만 사십결 두집 오숙이옵나이다. 알곡소출량은 일만 칠천석이옵고 술은 탁주며 삼화주를 가득 쌓아 두고 금준미주와 옥반가효로 빚을 삼아 세월을 보내오니 남의것을 어찌 넘보며 남의 기물을 어찌 탐하리오.

저 몸썩 마음 가진 놈이 민을 죽이고 호사할 마음을 가졌사오니 이런 변은 자고이래로 금지 처음이옵니다. 그리하온즉 저런 놈은 엄하게 다스려 후일에 이런 피변이 다시 나지 않도록 하여 주사이다.》

허웅가의 그럴사한 말에 원이 그를 당상으로 불러 올려 술을 권하며 《그런 욕을 보았으니 어찌 심기가 편하리오.》 하며 위로하기를 마지 않았다.

말로야 어찌 저놈의 피악한 행실을 다 밝힐수 있겠는가 하며 짐짓 분개해 하는 허웅가에게 넋여간 원은 분기를 터뜨려 실용가를 당장 중형을 치라고 호령을 추상같이 내리었다.

우악스럽고 건장한 집장사령 두놈이 번갈아 가며 중장 오십대를 매설계 내려 치니 웅가의 뱃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허물만 남아 죽을 지경이 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분명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수 없는중에도 다시 이제 제가 진짜 웅가라하면 살아 나지 못할것은 뻔한것이라는것을 실용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좌우간 목숨이나 보존하고 차차 장래를 보리라 하고 죽은체하고 가만 엎드려 있으니 원이 《네 아직도 웅가라 우길셈이나.》 하고 물어 보는것이였다.

《소인이 이제 와서 성주님앞에 무엇을 더 속이리이까. 실은 소인이 서울장안에 있는 어떤 후례 아들놈이옵니다. 일찌기 부모를 잃고 동서남북으로 돌아 다니며 남에게 쾌악무도한것만 일삼다가 우연한 기회에 웅좌수택 소문을 듣게 되였습니다.》

나와 똑같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헛된 꿈을 안고 웅좌수집에 내정돌입하였다가 이 지경이 되었사오니 부디 성주님께서 어진 성덕으로 살려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사옵니다.》

제가 진짜 웅가이면서도 거짓 웅가행세한것처럼 울며불며 살려 달라 애걸하는 실용가의 모습은 과연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원은 그 처량한 모습에서 그 어떤 심정이 살아났는지 한동안 가만있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네 죄상을 나라에 알리면 엄히 형을 내려 멀리로 정배할것이로되 내가 이 고을의 원으로 되어 잘 다스리지 못해 부끄러운 일이라 그만두겠나.》

또 너같이 무지스런 놈을 용서하지 않으면 네놈이 세상에 나왔던 본색도 없을것이기애 살려 주나니 이후로는 각별조심하도록 하라.》

그리고는 사령을 불러 고을 지경밖으로 내쫓으라고 명을 내리었다.

아, 세상천지간에 이보다 더 망극하고 원통한 일이 또 어데 있으랴.

가짜가 진짜로 되고 진짜가 가짜로 되어 세상의 버림을 받게까지 되었으니 이것이 바른 리치인가. 생각해 보면 바른 리치는 아닌데 어찌하여 나에게는 바른 리치처럼 행하여 지는것일까!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행실에 대한 그 어떤 양감음이라도 당하는게 아닌가?! 정말 알수 없는 노릇이였다....

제아무리 재산이 많고 부유하다 해도 부모처자, 형제자매, 일가친척은 물론이요 산속의 중까지도 극악스레 대하더니 이런 고통을 당하는것도 또한 하늘이 무심치 않은것이라 할수 있는것이다. 허기진 배를 부여쥐고 매 맞은 여독까지 겹쳐 진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며 빌어먹는 실용가의 모습은 정말로 가궁스러웠다.

이때 허웅가는 송사에서 이기고 시뚱해서 집으로 돌아 와 집안식구들과 하인들의 치하를 받으며 관가에서 있던 일들을 토 하나 틀리지 않고 세세히 얘기하며 자못 기뻐하였다.

《이번에 우리 집에 이런 변이 나기는 늙은 어미를 박대하고 어진 안해의 말도 안듣고 일가친척모론체하고 산간 중과 빌어 먹는 아이까지 팔세한죄로다.》 하며 다시 그러지 않을 뜻도 펴니 좌중이 모두 기뻐하였다.

이후부터 웅가의 집에서는 허웅가가 가산을 총

팔하기를 일일이 하고 늙은 어미도 잘 공대하며 일가친척들과 친구들 지어는 하인들에게도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주변에서 소문이 자자하였다.

날마다 집안에서는 웃음꽃이 피고 조상제를 지낼 때에는 손님은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례의를 차리니 어찌 소문이 안나겠는가.

곤궁한 친구를 진정으로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낌없이 제 물건을 내어 구제하니 사람들은 이 웅가의 집을 가리켜 《활인소(가난한 사람을 살리는곳)》라고 하는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한편 고을밖으로 쫓겨 난 실웅가의 고생은 이루 말할수가 없을 정도로 막심하였다.

제 집 재산 가지고 제가 한 노릇인데 그 무슨 나라곡식 흠치기라도 한것처럼 이 고생이나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괴롭기 그지없는 실웅가의 심정이었다.

(팔십로모 슬하를 억지하직하고 백년해로하자던 처와도 생리별하고 허다한 자식들과 따듯한 말 한마디 못해 보고 이 지경 되었으니 이게 뉘 탓이고. 고간에 그득한 쌀과 그 많은 돈을 두고 빌어 먹는 이 신세 어이하여 생겼는고.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있으랴. 애꿎고 설은 내 신세야.)

이런 가슴 답답한 생각을 하며 산지사방 다니며 구걸해도 남의 재산 탐내다가 저렇게 된 놈이라고 잠재우기도 싫어 하고 찬밥명어리도 아예 주려고 하지 않으니 못된 심보만 부려 온데 대한 갈음이라 아니할수 없는것이였다.

웅진골 아이들도 보기만 하면 갖은 행패로 구박을 하고 일가친척이라고 찾아 가면 저런 불측한 놈이 어데서 나타나서 또 왔느냐며 개처럼 때려 내쫓으니 실로 이 진짜 웅가가 걸어 다닐만한 곳은 천지간에 어느 한구석이라도 있을것 같지 않았다.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처럼 부모처자와 리별하고 외롭고 가엾게 살아 가신 뫼하랴 싶어 죽자하니 목숨도 아까운지라 생각이 뒤숭숭해서 갈팡질팡하며 돌아 다니니 때는 바야흐로 음력 4월 보름께였다.

산골짜마다에는 아직도 봄의 여운이 얼마간 남아 있었다. 꽃은 이미 폼다다 다 지고 구름은 낮추 떠도는데 온갖 짐승이 서로서로 울어 대는 산속풍경은 그윽한 맛이 있었다. 잔잔한 물가에선 란봉공작(란새와 봉황새, 공작새)이 쌍쌍이 춤을 추고 두견새는 슬피 울며 《불여귀》를 찾으나 아무리 그렇다 한들 형장 맞고 쫓긴 몸이 다시 어찌 돌아갈수 있으리오.

생각할수록 눈물밖에 나올길 없는 가련한 제

신세를 한탄하며 점점 산속으로 들어 가던 실웅가는 마침 때도 황혼이요 배는 이제 등가죽에 붙었는지라 기진맥진하여 더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평퍼짐한 바위돌우에 쓰러져 그채로 잠들고 말았다.

…한 로인이 백발수염을 흘날리며 청려장(명아주대로 만든 지팡이)을 짚고 실웅가의 앞에 나타났다. 웅가가 하도 신령스러워 보이는 로인앞에 어쩔바를 몰라 하며 꿇어 엎드리자 로인은 청려장으로 그의 등어리를 한번 치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하였니라. 그러면서도 세상사를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그 보답으로 나에게 속아 인심을 잃고 고생을 한들 뉘를 원망하겠느냐. 내 너를 보니 가공한 생각도 없지 않고 이제 좀 깨달을듯하여 한가지 일러 줄게 있느니라. 이제 바빠 전라도 월출산 월출암에 가서 도학대사에게 정성껏 빌고 사죄하면 용서 받을것이니 지체하지 말라.》…

등줄기에 후련한 감을 느끼며 어디론가 가버리는 로인을 찾으려 벌떡 일어나니 로인은 간곳없어 한갓 꿈인줄 깨닫게 되었다. 비록 못별이 총총한 야밤중이지만 자기에게 살아갈 길을 지시해 준 산신님께 백배사례하고 웅가는 전라도 월출암의 도학대사를 찾아 먼먼길을 떠났다.

여기저기서 빌어 먹으며 허위단심하여 월출암에 이르러 천봉만악이 하늘에 닿고 은은한 경패소리 들리는곳에서 룡환장을 짚고 있는 한 늙은 중을 만났다.

《네가 웅돌뎌에 사는 웅고집이로구나.》하는 로승에 말에 깜짝 놀란 웅고집이 넘적 땅에 엎드려 제발 살려 달라고 비니 로승의 입에서 이런 위엄있는 소리가 울려 나왔다.

《네 행실이 괴악하기로 내 도술로 너를 깨우치자 했는데 지금 제 잘못을 아는듯하니 너를 살려 주리라. 앞으로는 불의를 생각지 말고 선한 일만 착실히 하여 덕을 쌓거라.》하며 집에 가서 이러이러하게 하면 알 도리가 있을거라고 하였다. 고집이 그 로승의 말대로 하여 다시 착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허나 이 웅고집의 얘기를 통해서 사람이 착하게 살면 인망과 덕을 한꺼번에 얻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앞으로 망하는것만은 틀림 없을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이때로부터 남의 말을 잘 안듣고 제멋대로 놀아나며 심술부리기 좋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웅고집쟁이》라는 말도 생겨 났다고 한다.

내가 책임진다

천일수

이제 세월은 흐르리
수십년
수백년
또 수천년
하지만 나는 책임진다
내가 검사한 강철을 두고

강관의 치수
강관의 질뿐이라
강성대국건설의 밑뿌리
강철로동계급의 량심을 두고
조국앞에 세월앞에
내가 담보하고 책임진다

나무람 말아 다오
강관을 밀어 내느라 수고한 벗들이여
한치의 양보도 모른다고
인정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사정에 동요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알아 다오
조국앞에 혁명앞에
우리 서로 바치는 량심은 같아
우리 서로 가슴 조이며
강관에 마주 서는 그런 때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신성한 이름이
우리 서로의 가슴속깊이에 더 더욱 새겨 지고
있음을

충신과 배신이
총을 들고 싸우는 전장에서만 갈라 지랴
여기 철판에 새겨 진 《합격》 《불합격》이
말해 주지 않느냐

내 량심우에 높이 솟은
그것 이 강물우의 교각이라면
내가 담보한다
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린
그것이 저 발전소의 언제라면
만년대계를 자랑하라
내가 책임진다

눈 먼 나의 인정이
후날 조국에 상처로 남는다면
후대들앞에
로동당시대를 욱 보이게 되려니
내 마음 어찌 흔들릴수 있으랴

오 나라의 국장은 아니여도
한번 찍으면 내 량심과 함께
빛을 뿌리는 검사도장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존엄을 빛내가는
주인된 심장은 말한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담보한다
영원히!
영원히!